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2-04  
연구보고 07-R13-3

#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책임연구원 : 김익기(동국대학교·교수)

공동연구원 : 이동훈(육군사관학교·명예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20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동국대학교
20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호남대학교
20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증장기 대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박동성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문경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한순 (아주대학교) 최진숙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협력 연구 기관	고려대학교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채정민(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김익기 동국대학교 교수	이동훈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호남대학교	김태기 호남대학교 교수	임영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 문화연구단 연구교수) 박일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배광웅 (오사카교육대학교 교수)
	한국 외국어대학교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고가영(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지배(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병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권주영(한국외대 산학협력단 GCC연구원) 김석원 (키예프국립대학교 교수) 최소영(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연구소 연구원) 최인나(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 문화센터 연구원) 임현숙(러시아 볼로그라드 국립대학교 동양언어문화 센터 한국어강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전재식(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전문연구원)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배기형(세종대학교 교수)



# 연구 요약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조선족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한줄기 뿌리를 탐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민족 간에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일이 될 것임.
- 장차 한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국내 청소년들과 조선족 청소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임.
-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여러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내 조선족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연구하고자 함.
- 논문에서는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한국과 관련되어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함.

## 2. 연구내용

- 문헌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조세대들의 이주와 정착과정

- 조선족의 인구이동과 변화
- 경제와 생활 실상
- 조선족 청소년의 교육 문화 실상

□ 본 논문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 조사대상자가족의 이주 경로
- 조사대상자 가족의 경제적 상황
- 조사대상자(및 가족)의 한국 또는 한국문화 경험 여부
- 조사대상자의 한국친구 유무 여부
-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
- 조사대상자의 장래계획(한국 진출계획 - 유학, 취업, 결혼, 장기거주 등)

### 3.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중국 조선족 분포, 현황 및 실태와 관련된 문헌자료 분석
- 중국 조선족 해외 이주 경향 및 경로 변화에 관한 문헌자료 조사

□ 설문조사

-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중국의 5개 지역에서 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유효 응답자수는 810명임. 조사대상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정함.
  -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음: 길림성 연변자치주, 북경, 요녕성(대련, 단둥, 심양 등), 산둥성(청도, 연태 등), 기타지역(상해, 홍콩강 성 등).

- 본 조사는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시행되었음.

□ 초점집단 토론조사(Focus group discussion)

-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개 집단(한 집단에 4명)을 대상으로 토론조사(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함.
  - 토론 대상 집단은 다음과 같음: 길림성 연변자치주 (대학생 집단), 북경시(대학생 집단), 산둥성 연태시(대학생 집단), 요녕성 대련시 (대학 졸업 직장인 집단), 연변 훈춘시(고등학생 집단).

#### 4. 설문조사결과

- 조사대상자의 신분별 분포는 고등학생이 전체조사대상자 중에 59.3%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생이 40.7%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6.6%를 나타내고 있고 여학생이 63.4%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자의 현 거주지 분포는 연변지역이 39.1%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요녕성(25.8%), 기타지역(18.1%), 북경(10.0%) 및 산둥성(6.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부모와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33.9%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혼자서 거주한다는 응답이 24.8%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머니와 같이(12.3%), 아버지와 같이(9.1%), 형제자매가 같이(3.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인이 앞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42.4%의 응답자가 전문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무직(24.6%), 고위관리직(19.5%), 자영업(3.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사대상자의 95.8%가 조선족 초등학교(소학교)를 다녔고 94.6%가 조선족 중학교를 다녔음.
- 조사대상자의 27.5%만이 중국어를 일상 언어로 쓰고 있고 다수인

- 67.4%는 한국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사대상자의 94.4%는 가장 친한 친구가 조선족이며, 응답자의 이성 친구 가운데 85.8%는 조선족이고 74.9%는 앞으로 결혼 상대로 조선족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어 민족적인 결집력이 강함을 나타냄.
  - 전체응답자의 15.0%는 현재 생활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족하다는 응답률이 34.7%인데 반하여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률은 15.8%이고, 전체응답자의 평균 만족도 점수는 79.9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응답자의 72.8%가 한국에 대해서 느낌이 좋다고 답하고 있고 74.0%가 한국이 능력이 있다고 답하고 있고 22.9%는 매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81.0%는 한국이 활동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68.8%가 한국은 친밀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응답자의 52.1%는 한국인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있으며 60.4%가 한국인이 능력이 있다고 답하고 있고, 77.7%가 활동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62.3%가 한국은 친밀하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감정에 대한 응답률보다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응답자의 19.0%는 한민족역사를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고 28.0%는 대체로 노력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47.0%의 응답자가 한민족역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응답자의 32.3%는 한국방문을 매우 희망하고 있고 31.8%는 대체로 희망하고 있어서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비율이 64.1%로 나타나고 있음.
  - 응답자의 21.0%는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반면에 38.5%의 응답자는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응답자의 14.2%는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증대를 매우 희망하고 있으며, 25.2%는 대체로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증대를 희망하고 있음.
  - 응답자의 7.5%는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으며 15.5%는 2, 3일

에 한 번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응답자의 56.4%는 한국드라마를 자주 시청하고 있고 36.5%는 가끔 시청한다고 답하여 전체응답자의 92.9%가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5. 제언

- 조선족은 한반도의 상황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포일 뿐만 아니라 조선족자치주를 운영하고 고유한 한민족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중국 조선족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음.
- 조선족의 생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동북지역에의 집중 투자와 함께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장려하고 조선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하는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차 조선족 사회의 지도자와 각 방면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인재들을 점차 한국의 인재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속적인 교류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조선족의 청소년과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이나 산업연수 등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전승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매체인 조선족언론기관과 출판사 등을 지원하여 조선족 매체들과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가 ‘민족문화’는 장려해 왔지만 ‘민족의식’이 민족분리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선족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에게 자극적이거나 경계심을 유발할만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6
II. 문헌연구	
1. 선행연구 개관 .....	11
2. 조선족의 정착과 변화추세 .....	14
1) 조선족 이주 실태 .....	14
2) 중국 국적취득과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 .....	17
3) 소수민족 정책과 조선족의 위상 .....	22
3. 조선족사회의 현황 .....	28
1) 인구 현황과 변동 추세 .....	28
2) 조선족의 경제적 상황 .....	33
3) 조선족의 교육과 언론·문예 실상 .....	37
4.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본 조선족 학생의 실상 .....	49
1) 조선족 대학생의 강점과 문제점 .....	50
2) 북경 조선족 대학생의 현황과 학업 성취도 .....	58
3) 조선족 교육에 대한 과제 .....	63
III.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사항 .....	69
2.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양상 .....	71
3.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	76
IV.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인식	
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일반적 인식 .....	81
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 .....	82

3. 한국에 대한 인식에 관한 교차분석 .....	85
<b>V.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b>	
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인상 .....	91
2.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교차분석 .....	93
3.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일원 자부심 정도 .....	94
<b>VI.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활동</b>	
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이해 노력 정도 .....	107
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활동 참여도 .....	109
3.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14
4.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1
<b>VII. 초점집단 토론결과</b>	
1. 초점집단토론조사의 대상자 구성 .....	131
2. 초점집단토론조사의 내용 .....	132
<b>VIII. 결론 및 정책제안 :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언</b>	
1. 요약 .....	155
2.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제언 .....	157
3. 결론 .....	158
<b>참고문헌</b> .....	161
<b>부 록</b>	
부록 1.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 .....	167
부록 2.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중국어) .....	180
부록 3. 조선족 청소년 Focus Group Discussion Guideline .....	192
부록 4.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내용 .....	195

## 표 목차

<표 I-1> 중국 각 민족간 대학졸업자 비율 및 문맹률 비교	38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신분 및 성별 분포	69
<표 III-2> 조사대상자의 현거주지 및 출생지 분포	70
<표 III-3> 조사대상자의 세대와 최초중국이주자의 분포	70
<표 III-4>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민족배경과 최초중국이주자의 고향과 최초이주지역의 분포	71
<표 III-5> 조선족 청소년의 거주관계와 종교 분포	72
<표 III-6>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학력 분포	72
<표 III-7>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직업 및 본인의 희망직업 분포	73
<표 III-8> 조선족 청소년 가족의 가족수입수준 분포와 수입수준 비교	74
<표 III-9> 조사대상자의 소(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분포	75
<표 III-10> 조사대상자의 일상언어	75
<표 III-11> 조선족 청소년의 민족지향 분포 (%)	76
<표 III-12>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76
<표 III-13> 생활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77
<표 IV-1>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82
<표 IV-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 관심	82
<표 IV-3>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일 관심	83
<표 IV-4>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지식	83
<표 IV-5>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문화 이해	84
<표 IV-6>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어 유리 여부	85
<표 IV-7>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배경 도움	85
<표 IV-8>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	87
<표 V-1> 조사대상자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	91
<표 V-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유학생인상과 유학생을 통한 한국인상	92

<표 V-3>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후손 긍지 .....	93
<표 V-4>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 .....	94
<표 V-5>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일원 자부심 .....	95
<표 V-6> 성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	95
<표 V-7> 학생신분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	96
<표 V-8> 현거주지역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	97
<표 V-9> 출생지역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	97
<표 V-10> 한국방문계획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	98
<표 V-11> 한국방문경험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	99
<표 V-12> 한국에 대한 느낌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	99
<표 V-13>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른 한민족일원 자부심 ..	100
<표 V-14>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민족일원 자부심 .....	101
<표 V-15> 한민족이 도움이 되는가 여부에 따른 한민족일원 자부심 .....	102
<표 V-16> 한민족일원 자부심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	103
<표 VI-1>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역사 이해노력 .....	107
<표 VI-2> 조선족 청소년부모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	108
<표 VI-3>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	108
<표 VI-4>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방문계획과 한국방문 희망 .....	109
<표 VI-5>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직업희망과 한국연수계획 .....	110
<표 VI-6>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유학 프로그램이해와 한국취업 프로그램이해 .....	110
<표 VI-7> 조선족 청소년의 한인조직체 참여와 한인단체 활동 .....	111
<표 VI-8>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과 연락 및 한국청소년과 교류증대 희망 .....	112
<표 VI-9>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구축필요 .....	112
<표 VI-10> 한국관련 활동에 있어서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 .....	113

<표 VI-1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청취와 한국뉴스접속통로 .....	114
<표 VI-12> 조선족 청소년의 성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15
<표 VI-13> 학생신분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15
<표 VI-14> 거주지역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16
<표 VI-15> 출생지역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17
<표 VI-16> 한국방문계획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17
<표 VI-17> 한국방문경험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18
<표 VI-18> 한국에 대한 느낌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19
<표 VI-19>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른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19
<표 VI-20>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국뉴스 청취 상황 .....	120
<표 VI-21> 한국뉴스청취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	121
<표 VI-2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드라마 시청 .....	122
<표 VI-23> 조선족 청소년의 성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2
<표 VI-24> 학생신분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3
<표 VI-25> 거주지역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3
<표 VI-26> 출생지역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4
<표 VI-27>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른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4
<표 VI-28>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5
<표 VI-29> 한국방문계획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5
<표 VI-30> 한국방문경험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6
<표 VI-31> 한국에 대한 느낌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126
<표 VI-32> 한국드라마시청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	127
<표 VI-33> 한국뉴스청취와 한국드라마시청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유의도 비교 .....	128
<표 XIII-1> 한국정부의 청소년정책과 인적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	158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3. 연구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은 한중수교 15주년을 맞는 해이자, ‘연변조선족자치주’(이하 조선족자치주)<sup>1)</sup> 창립 55주년을 맞는 뜻 깊고 중요한 해이다. 1952년 9월 3일 조선의용군 출신의 주덕해(朱德海)는 연길시에서 조선족자치주의 창립을 선언한 이후, 올해로 반세기가 넘는 조선족자치주는 재중 동포(이하 중국 용어대로 ‘조선족’을 사용)의 자랑이지만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해서도 크나큰 의의가 있다. 조선족은 약 130년의 본격적인 이민의 역사와 55년에 걸친 모범적인 자치주 건설을 통해 중국 내에서 56개 민족 중 14위의 인구(2006년 현재 총 200만여 명)를 가진 우수한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동시에 세계에서 유일한 동포들의 해외 민족자치주를 실현했다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중국내 위치를 생각할 때, 중국의 국민이자 또한 우리 민족의 동포로서의 위치를 갖는 조선족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한줄기 뿌리를 탐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민족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장차 한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국내 청소년들과 조선족 청소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일은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의 대 주제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는 세계화·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세계화 및 국가 경쟁력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

1) 중국내 한민족을 조선족이라 부르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내 55개 소수민족들은 자치구역을 설정하여 집단 거주와 함께 민족 고유의 언어·문화·풍습 등을 지키고 있다. 조선족은 연변을 중심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이루게 되었으며 조선족의 분포는 주로 중국의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민족의 실질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과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여러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내 조선족을 조사연구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세대는 이민 1세대 혹은 이민 기성세대와 달리 주재국의 언어와 문화 내에서 사회화 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이들은 주재국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세계화 및 국제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세대와 달리 이민국가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여 주재국에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경을 넘는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은 모국과 그들의 주재국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청소년기는 모국이나 민족과 관련된 정체성 제고가 필요한 시기이며, 한민족 청소년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인 조선족 청소년들의 규모 및 실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한국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 차원에서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청소년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및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고 해외 한민족 청소년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우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자료(선조세대들의 이주와 정착과정, 인구 이동과 변화, 경제와 생활 실상, 교육 문화 실상 등)를 분석하고, 다음은 실제로 조선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할 것이다. 그 후 결론적으로 조선족 청소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및 연구내용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가 점증하면서 한국으로의 유학, 산업연수 등으로 한국인과 접촉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지리적인 인접성 때문에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빈번한 접촉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반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인식상의 갈등 혹은 상호간 잘 융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더욱이 이러한 일들은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세대로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정작 이러한 문제들의 배경인 조선족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나 인식 등에 대해 아직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청소년인 조선족 청소년들의 규모 및 실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한국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우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자료(선조 세대들의 이주와 정착과정, 인구이동과 변화, 경제와 생활 실상, 교육 문화 실상 등)를 분석한다.

다음은 실제로 조선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토론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할 것이다. 설문조사 및 토론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즉,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조사대상자가족의 이주경로, 조사대상자 가족의 경제적 상황, 조사대상자(및 가족)의 한국 또는 한국문화 경험 여부, 조사대상자의 한국친구 유무 여부,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상, 조사대상자의 장래계획(한국진출계획 - 유학, 취업, 결혼, 장기거주 등) 등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족 청소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및 토론조사로 이루어졌다.

- 1)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청소년들 연구의 배경자료가 될 내용들을 우선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주로 조선족 청소년들 이해에 도움이 될 내용들에 초점을 두고 선조세대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의 특징, 인구이동과 분포 변화, 경제와 생활 실상, 교육 문화 실상 등 자료를 분석 요약하였다.
- 2)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는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선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5개 지역은 연변자치주, 북경, 산둥성(청도, 연태 등), 요녕성(대련, 단둥, 심양 등) 및 기타지역(흑룡강성, 상해 등)으로 분류되었다. 본 조사는 2007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전체응답자수는 845명이었으나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여 810명을 최종 응답자수로 확정하였다. 조사는 외국인 연구자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중국의 특수성 때문에 본 연구자가 설문지 작성 등 일체의 작업을 주관한 후 현지에서 있는 각 지역의 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표본추출의 한계를 안고 조사에 임하게 되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3)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외에 중국내 5개 지역 즉, 길림성 연변, 북경, 요녕성 대련, 산둥성 청도, 산둥성 연태에서 조선족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5개 집단에 대한 Focus group discussion을 실시하였다. 토론 대상 집단은 다음과 같다: 길림성 연변자치주(대학생 집단), 북경시(대학생 집단), 산둥성 연태시(대학생 집단),

요녕성 대련시(대학 졸업 직장인 집단), 연변 훈춘시(고등학생 집단).

- 4)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토론조사 의 내용에 근거하여 조선족 청소년들  
과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 Ⅱ. 문헌연구

1. 선행연구 개관
2. 조선족의 정착과 변화추세
3. 조선족사회의 현황
4.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본 조선족 학생의  
실상



## II. 문헌연구

### 1. 선행연구 개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자료들은 대체로 1980년대 말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비교적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분위기속에서 조선족 연구는 주로 중국정부의 통계자료나 중국공산당의 발표자료에 의존하는 선전성 짙은 문헌자료들과 중국공산당 또는 기관에 관련된 학자와 교수들의 발표자료들이 주류를 이루다가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조선족에 대한 연구자료들이 전문학자, 취재 기자, 조선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글들이 다수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그 유형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적 연구’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다. 조선족의 역사부터 현재 사회변화에 이르기까지 총론적으로 연구한 자료들로서는 대표적으로 중국학자 정신철의 연구<sup>2)</sup>와 반룡해·황유복의 연구<sup>3)</sup>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중국조선족의 전반적인 내용과 내부 문제들을 다루었고 특히 반룡해 등의 연구는 조선족 내의 각 지역 자치구역별로 실상을 상세히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종합적인 연구서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광규의 연구<sup>4)</sup>와 윤인진의 연구<sup>5)</sup>를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논문이나 보고서 및 평론 형태의 글들도 조선족의 실태와 민족의 장래발전 문제 등이 가끔 발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글이 2002년 8월 ‘연변통신’<sup>6)</sup>에서 한중수교

2) 정신철(1999). 중국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심양 : 요녕민족출판사.

3) 潘龙海·黄有福(2002). 跨入二十一世纪的中国朝鲜族. 吉林 : 延边出版社.

4) 이광규(2002). 격동기의 중국조선족. 백산서당.

5)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적응·정체성(제3장). 고려대학교출판부.

6) ‘연변통신’(<http://www.yanbianforum.com>)은 조선족 관련 소식과 기획논단 등을 게재하던 ‘예문연변통신’(<http://www.yanbiannews.com>)의 후신으로 조선족의 여러 언론매체의 기사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예문연변통신’의 많은 기사나

1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특집에서 조선족의 전반적인 문제(이주역사, 인구변동과 분포, 경제, 문화 등)를 다루며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현상과 문제들에 대한 연구자료’들이다. 이 주제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는 2003년 10월 북경 중앙민족대학 민족정책연구소의 주최로 개최된 ‘중국조선족인구문제와 대책’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이 인구센서스 자료와 현지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의 조선족인구 현황을 소개하였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조선족인구 감소문제이며 그 원인을 인구유출과 저출산에서 찾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권태환의 연구<sup>7)</sup>로서 조선족 인구의 양적·질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지조사 자료를 기초로 조선족의 인구, 가족생활 변화, 조선족 장래 등에 대해 권태환, 박명규, 박광성, 김귀옥 등의 현지자료 조사, 참여관찰, 심층면접 자료 등을 연구해 편집한 권태환의 연구<sup>8)</sup>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선족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정체성에 대해 그 인식의 형성과 변화 등을 다룬 한상복 등의 연구<sup>9)</sup>와 주로 문화측면을 다루면서 조선족 문화의 이중성 등을 지적한 정관룡의 연구<sup>10)</sup>, 김강일의 ‘변연문화’(邊緣文化, 한국식 용어로는 주변문화)<sup>11)</sup> 그리고 조선족의 해체현상을 ‘위기론’과 ‘발전론’으로 분류해 분석한 황유복<sup>12)</sup>의 연구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재중동포의 실상과 문제

---

용들이 삭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연변의 조선족 소식과 기획논단을 좀더 조직적으로 새롭게 인터넷으로 알리는 ‘연변뉴스사이트’(www.ybnews.cn)가 2007년 7월 2일 정식 개통되었다. 이 사이트는 연변자치주 당위원회 선전부에서 주관하여 지역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연변을 대외에 홍보하며 지역별 교류 협력증진을 목표로 개통하였다. 이 사이트는 중국어를 사용한다. 조선족의 최근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 사이트가 유용하다.

- 7) 권태환(2005). 조선족 인구의 추세. 권태환 편저.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pp. 15-33. 서울대학교출판부.
- 8) 권태환 편저(2005).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 9)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연변의 조선족·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10) 정관룡(1999). 중국조선족과 21세기. 중국 :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11) 김강일(2001). 중국조선족사회 지위론. 중국조선족: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 12) 황유복(2002). 중국조선족사회와 문화의 재조명. 심양 : 요녕민족출판사.

점을 위기와 기회의 측면에서 분석한 이윤기<sup>13)</sup> 등과 기타 여러 인터넷 사이트 자료와 평론의 글들이 있다.

셋째,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자료’들이다.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농촌해체’를 주로 다룬 연구와 함께 또한 형태로 새로운 이주지역에서 형성되는 ‘집중촌’ 현상(동북지역내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형 커뮤니티)을 연구한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는 중국 연해지역으로의 이주 혹은 한국 등 국외지역에서 형성된 도시형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이다. 연해지역 연구 중 박명규의 북경조선족집단 연구<sup>14)</sup>와 청도지역 조선족공동체에 대한 제한적이지만 질문지 조사연구를 실시한 윤인진의 연구<sup>15)</sup>등은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국외지역 연구로는 한국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박광성의 연구<sup>16)</sup>와 노고은의 연구<sup>17)</sup> 등이 모두 참여관찰에 의한 질적연구를 통해 조선족 집단의 적응과 정착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다. 또한 성격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연구한 권태환·박광성의 연구<sup>18)</sup>와 최근 중국조선족의 노동력 이동과 사회변화를 중국조선족을 대상으로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박광성의 박사학위 논문<sup>19)</sup>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심층연구의 하나라 할 수 있다.<sup>20)</sup>

이상에서 살펴 본 중국조선족에 관한 선행연구 개관은 특징적인 분야를

- 
- 13) 이윤기(2007). 재중동포의 실상과 문제점. 백산학회 학술대회(2007. 7. 27) 발표논문.
  - 14) 박명규(2005). 북경의 조선족. 권태환 편저, 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 pp. 231-264. 서울대학교출판부.
  - 15) 윤인진(2003). 중국조선족의 도시이주, 사회적응, 도시공동체: 청도 사례연구. 재외한인연구, 13권 2호.
  - 16) 박광성(2003). 한국의 조선족노동자집단의 유입, 정착,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노고은(2001). 기대와 현실 사이: 한국내 조선족노동자의 삶과 적응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권태환·박광성(2004). 중국조선족의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현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권 2호.
  - 19) 박광성(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 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이상의 선행연구 개관에서의 유형분류는 박광성의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면서 내용 일부를 보완하였다.

중심으로 분류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연구들을 열거하였지만,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는 중국의 상황 때문에 모든 선행연구들은 내용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통계자료면에서 볼 때, 인용자료와 필자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많고 또 서로 인용하는 형식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분야 특히 조선족 청소년에 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음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본 연구는 조선족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나름대로 충분한 분량의 표본을 선정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모두 어렵고도 새로운 분야의 도전적인 연구가 되리라 기대해 본다.

## 2. 조선족의 정착과 변화추세

### 1) 조선족 이주 실태

중국의 조선족은 역사상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한인들이 중국 땅에 정착하면서 중국내 한 개 소수민족이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유일하게 모국을 갖고 있는 이주한 민족이다. 조선족의 이주과정은 크게 다음의 4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선인은 중국의 원(元), 명(明)조 시기부터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 청조(淸朝, 1636년 건국)이전에 이주한 조선인은 한족(漢族), 만주족 등 여러 민족속에 융합되었다. 이 당시의 인구는 약 2,000명으로 현재 중국 조선족의 0.1%를 차지한다. 이때는 이들을 조선족이라 하지 않고 조선인, 혹은 한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조선인이 중국에 정착한 것은 1860년대 함경북도의 10년 대 흉년을 계기로 시작하였다. 19세기 중반까지 만주지방은 청(淸)정부로부터 봉금지역으로 정해져 있었고 인구의 유입은 철저히 통제되었으므로 그

곳은 인가가 없는 무인지경이었다. 그 후 청정부는 러시아정부가 이 지역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주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부 이주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기를 조선족 이주사의 본격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황유복, 2002: 39-42; 이운기, 2005: 31-37).

이 시기의 이주민의 이주 배경을 중심으로 다시 크게 세 부류로 세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일제에게 땅을 빼앗긴 수많은 농민들이 살길을 찾아 만주로 이주해 온 것인데 초기 이들은 일단 이 지역에서 정착을 하고 점진적으로 자기의 가족, 친지, 동네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이 지역에 비교적 방대한 조선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둘째는 일본에 의한 강제 집단이주이다. 1931년부터 일본은 만주에로의 조선인 대량이민이 그 지역에 대한 세력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과 관동군의 식량보급을 확충할 만주지방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대량의 조선인을 강제로 만주에 이주시켰다.

셋째로 다른 또 한 부류는 한반도 내에서의 반일무장투쟁과 조선독립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애국지사들과 반일 무장 세력들은 중국의 만주지방을 본거지로 삼고 여기서 반일애국사상을 전파하고 일본군과 무력투쟁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주 동기와 그 과정이 어떠하든 조선족의 이주는 우선 땅 잃고 집 잃고 먹을 것 없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새 삶을 찾았다는 점과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동참하고 주도했다는 점, 그리고 광활한 만주땅을 개척하고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홍승직 등, 1988: 183-188).

아무런 재산도 없고 정치적 배경도 없이 빈 몸으로 개척에 나선 이들 초기 이주민들의 고난은 실로 비참하고 어려웠다. 당시의 한 목격자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겨울날 영하 40도의 눈발 속에서 백의를 입은 말없는 군중은 혹 10여 명, 혹 20여명, 혹 수십 명씩 떼를 지어서 산비탈을 기어 넘어 온다. 남정네들은 지게를 지고 아낙네들은 아기업고 붓짐을 이고 ……

거기서 그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중국인의 발 위에 있는 산기슭의 불모지를 팽이와 호미질을 하여 손으로 심고 거두며 흔히 생을 유지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초근목피로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

이 당시의 어려움은 여러 자료에서 나타난다. 하나의 예로 1937년 12월에 길림성 안도에 도착한 이민단 130여 호의 400여 명 중 1년 사이에 식량부족과 장질부사로 겨우 140명만 살아남았다.

거기에도 이방인인 조선인들은 우선 본 지방의 만주족, 또는 한족 지주들의 착취 대상이었고 일본 정부의 탄압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조선 독립 무장세력들과 함께 자기의 터전을 지켰고 일본군과 싸웠으며 결국 이 와중에서 조선인들은 처음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된다.<sup>21)</sup>

중국공산당은 조선인들에게 힘을 합쳐서 공동의 적(敵)인 일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조선인들의 숙원인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혁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중국인, 조선인 가리지 말고 똑같이 잘살아 보자고 약속하였다. 쇠진상태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과 가난한 조선인 민중들에게 이것은 기회이자 희망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과 연합하여 일본을 몰아내고 국민당정부를 뒤엎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며 당당하게 새 중국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중국의 ‘조선인’들은 ‘조선족’으로 칭하였고 조선족은 중국정부로부터 항일전쟁과 중국혁명에서 가장 큰 기여와 희생을 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았다. 지금도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마다 도처에 열사기념비가 세워져 있음은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sup>22)</sup>

21) 초기 만주지방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된 김좌진(金佐鎭), 홍범도(洪范圖) 등이 이끄는 독립군은 30년대에 와서 양세봉(梁世鳳)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의 쇠퇴로 거의 소멸 되었으며 대신 공산주의 세력들인 김일성(金日成), 이홍광(李紅光) 등이 이끄는 항일연군과 김두봉(金斗奉), 무정(武亭) 등이 이끄는 연안독립연맹, 그리고 조선의용군 계열의 항일무장 세력들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연변통신(2002). 韓俊光(1990). 中國朝鮮族的人物傳. <http://www.yanbiannews.com> (2005. 4. 2)에서 재인용.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후 조선족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삶에 자신감을 가졌고 신 중국을 자기의 나라로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민족자치라는 포용적인 민족정책은 중국의 조선족들로 하여금 “중국을 자기 삶의 고장으로 여기며 자기 민족의 운명과 중국의 운명을 함께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중국공산당 역시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였으며 약속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연변지역에는 1952년에 조선족자치구(1955년에 개정헌법에 따라 자치주로 변경 됨)를 설립하여 민족자치를 실시하게 하였다.

조선족자치주는 길림성의 동부 장백산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42,700km<sup>2</sup>로서 길림성 면적의 1/4을 차지한다. 산과 고원이 총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며, 자치주 내의 주요 도시는 연길시, 훈춘시, 도문시, 돈화시, 용정시, 화룡시의 6개 시(市)와 왕청현, 안도현의 2개 현(縣) 및 51개 진(鎮)과 17개 향(鄉)이 있다.

## 2) 중국 국적취득과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

13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중국에서의 생존 혹은 중국당국의 동화정책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중국국적을 얻고 중국국민이 되었다. 1929년에 중국 동북3성지역 조선인의 약 10%(11만여 명), 1945년 8.15 해방 전까지 25~35만 명(20%)이 중국국적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1945년 8월부터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될 때까지 대부분 조선인이 실제적으로 중국국적에 가입하였으며 중국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누렸다. 한반도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중국이 사회주의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들은 국적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중국거주민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재중국 한국교포의 대부분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중국과 북한의 동맹 관계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북한 공민권(公民權)을 가진 교포도 5만여 명이나 된다. 전체수는 200여만 명으로 세계에 흩

22) 조사통계에 따르면, 14년간의 피어린 항일투쟁에서 3,000여명의 조선족 투사들이 귀중한 생명을 바치는 등 희생된 조선족열사는 도합 3,555 명이나 되며, 그중 연변은 5세대에 1명의 열사가 생겨 전국 여러 민족 가운데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이 조선족열사들은 중국정부로부터 연금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연변통신(2002). 朝鮮族略史編纂組(1986). 朝鮮族略史. <http://www.yanbiannews.com>(2005. 4. 2)에서 재인용.

어져 있는 한국의 교포국별 인구수에서 수위를 점하고, 이 가운데 97%인 약 194만 명이 길림성(吉林省)·흑룡강성(黑龍江省)·요녕성(遼寧省) 등의 동북3성지역에 모여 살며, 특히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에는 217만7천만 명이 거주하며 그중 조선족은 약 82만 명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sup>23)</sup>

중화인민공화국 출범이후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았던 조선족이지만 1950년대 말에 몰아닥친 반 우파 투쟁과 1966년에 시작된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은 조선족사회에 전례 없는 막대한 재난을 가져왔다. 민족의 전통과 문화는 봉건적인 이데올로기로 비판받았고 지방민족주의는 반혁명으로 단정되어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은 숙청되었다. 따라서 민족교육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조선족들과 그들의 민족주의는 북-중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남북한이라는 ‘모국’이 있다는 이유로 중국정부의 경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sup>24)</sup> 사실 현재도 중국내 소수민족들의 분리주의를 가장 경계하는 중국정부로서는 조선족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족은 수십년간 수시로 닥쳐드는 역사적인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굴함 없는 투쟁과 끈질긴 노력으로 현재까지 타민족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 고유의 한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지켜왔던 것이다. 특히 조선족의 쌀 재배 등 독특한 근면과 불굴의 정신 그리고 높은 교육열 등은 현재의 조선족청소년들이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재능으로 중앙의 대학이나 직장으로 약진하는 바탕을 이루었다.<sup>25)</sup>

23) 조선족의 인구통계는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문의 통계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2007): 인구통계 현황. <http://www.yanbian.gov.cn>(2007. 7. 23)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며, 이주시기에 따라 상세한 인구통계는 현지 문서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한상복·권태환, 1993: 50)에 소개되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1990년 조선족 인구를 192만여 명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13번째의 인구 규모를 가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순위는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24) 한상복 등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 분석에서 조선족의 ‘모국의식’, ‘남북한 차별 인식’ 내지 ‘민족적 자긍심’ 등 용어를 사용한 점은 의미 있다고 본다(한상복 등, 1993).

25) 조선족학생들의 대학입시 성적을 보면 중국 56개 민족 중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판이 나 있다. 해마다 대입성적을 발표할 때마다 조선족 학생들이 동북3성지역은 물론 중국 북경의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길림신문, 2007. 6. 27일자: 장춘조중 울 대학입시서 어거리 대풍. 그리고 흑룡강신문, 2007. 6. 26일자: 상지조중 우기봉 학생 흑룡강성 문과장원 등에서 좋은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 <http://www.ckywf.com>(2007. 7. 24)에서 재인용.

조선족은 지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자본주의 열풍에 휩싸이면서 산업화·도시화라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변화는 도시화로 인한 이농 현상 그리고 한국 등 해외로의 취업 및 학업을 위한 이동 등으로 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의 인구감소, 집거지 축소, 교육의 위축과 한족의 세력 확장 등 조선족 해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위기는 조선족 발전의 기회도 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여하튼 조선족은 현재 북경, 천진, 상해, 대련, 칭도와 같은 대도시로 이주한 조선족이 새로운 민족집거지를 형성하므로써(윤인진, 2004: 47) 기존의 조선족사회가 해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재구조화(박광성, 2006: i)로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선족이 중국사회 속에서 더욱 흥성하고 우리 민족의식 내지 민족정체성을 유지·계승할 것인지는 조선족의 미래인 조선족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의 민족의식 내지 민족정체성은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이 소수민족자치 정책을 채택한 배경은 높은 민족의식은 중국에 대한 국가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학교와 사회교육을 통하여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는 민족관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민족관 교육은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구체적인 ‘소수민족’이라는 신분이 소수민족들에게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더 쉽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해외 이민자들의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국가의식(혹은 국가정체성)과 민족의식(혹은 민족정체성)으로 나누어 살피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의식은 스스로를 어느 나라 국민으로 간주하느냐의 문제이고 민족의식은 자신의 종족적 내지 문화적 귀속의식을 뜻한다. 이 둘은 단일 민족국가의 경우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중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 나라의 민족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 이민자들의 정체성이 결정되며 변하게 된다. 특히 이민 2세대 그리고 3세대 등 세대를 거듭하면서 수용사회에 대한 귀속의식과 문화적 동일시가 강화되는 것도 일반적 현상이다. 중

국조선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을 포용하기 위한 민족 자치 정책을 따르면서 중국을 새로운 조국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한 조사연구(최우길, 2000)에서는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에 대해 소개하면서 조선족 응답자의 70% 가량이 중국을 조국이라고 응답했으며, 연령과 계층에 따라 응답결과가 달랐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간부의 95%는 중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농민의 경우는 30%만이 그렇게 생각하였다.

요컨대, 지금까지 조선족은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분리가 중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되면서 별로 갈등 없이 그들 나름의 통합된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권태환, 2005: 119-120).

그러나 이와 같은 행태는 조선족이 한족 지배의 중국사회에 동화라기보다는 수용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윤인진, 2004: 65). 첫째, 티베트, 위구르족, 만주족들이 중국의 원주민들이며 한족으로의 통합에 갈등과 적대감을 갖는 데 비해 조선족은 그들에 비해 최근에 이주했을 뿐 아니라 자발적 이주에 의해 중국사회에 통합된 경우에는 비교적 체제에 순응하고 다수민족과 공존하려는 자세를 갖게 한다. 둘째, 조선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약 0.17%를 차지할 정도여서 수적으로 소수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에서도 소수자인 조선족은 방어차원에서 당과 정부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셋째, 사회주의 체제에서 소수민족으로 민족자치주에서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우대를 받고 있음은 물론 사회경제적 혜택을 받은 조선족은 기존 체제를 지지하고 그 안에서 신분상승을 추구해 온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선족은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중국에 이주해 들어 온 소수민족이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의해 처음부터 조선족만의 마을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집단 정체성을 유지, 변화시켜왔다고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 첫째는 일제침략시대의 ‘조선인 정체성’, 둘째는 신중국 건설이후 개혁 개방시기까지의 ‘조선족 정체성’, 한

중수교 이후의 ‘정체성 분화’로 구분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권태환, 2005: 141)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광범위한 개혁·개방정책과 그에 따른 산업화·도시화라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현재 조선족 특히 조선족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은 새로운 분화된 혹은 복잡한 형태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족 특히 조선족 청소년들의 높은 국가의식은 중국의 민족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내 소수민족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전반적으로 산업화·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조선족들은 취업과 학업 등으로 조선족 집거지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중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하면서 조선족에게 고용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한편 한국에 취업, 학업 등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한국인과의 교류 접촉이 많아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곧 조선족이 북한만을 모국이라고 여겼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한국을 모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졌음은 새로운 변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환경변화는 최근 한국에서 재외동포법이 마련되고, 조선족의 지위가 문제로 제기되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라는 뜻을 가진 ‘교포’란 개념은 조선족의 자아 정체성 구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교포’ 또는 ‘우리 교포’란 말이 한국인들과 조선족들이 섞여 사는 산동지방 연해지구와 같은 곳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오히려 ‘조선족’이라 불리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들은 조선족을 편하게 ‘우리 교포’라고 불렀고, 조선족은 그것이 자신들을 한국인과 한 뿌리임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권태환, 2005: 136). 이처럼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의 변화와 같은 현상들이 조선족사회의 다양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민족정체성의 분화 내지 복잡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다양한 환경과 문화에 접하게 되는 조선족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정

26) 중국 연해 지역 조선족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지위도 현저하게 제고됨으로써 중국 한인 사회에서 재중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인의 관계는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박창근, 2005).

체성의 변화는 더욱 복잡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 3) 소수민족정책과 조선족의 위상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그에 도전하는 소수민족의 도전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인 지향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적 기조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정책의 핵심은 중국 헌법에 규정한바와 같이 민족평등정책, 민족단결, 민족구역 자치정책과 각 민족의 공동발전변영정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내 민족들은 그들 공통의 언어, 지역, 경제 및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화민족이라는 이상적 개념과 주체민족인 한족(漢族)의 역할이 강조되는 민족정책하에 공통적으로 한어(중국어: 보통화-普通話, 이하 중국어로 표기)를 사용하며, 통일적 중국, 전 민족단결이라는 기본 원칙에 소수민족들이 따르도록 유도되어 왔다. 조선족들 역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중앙과 유관 지방정부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도시에 조선족들의 집단 거주지에 자치기관을 설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치권이나 자치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모든 민족은 중국의 공민(公民)”이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권을 갖는 주권적 자치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민족자치구역법’에 따라 이러한 자치구역에서 행정수장<sup>27)</sup>은 조선족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인민대표대회 대표구성에서도 민족대표의 비율을 보장받는다. 또한 교육, 언론출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다. 자치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지역의 각급 정부기관에 민족 사무를 책임지는 부서가 설치되어 민족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박광성, 2006: 158).

조선족은 초기 이주과정에서 중국내 소수민족 중에서 그 역할과 공헌이

---

27) 중국의 헌법과 자치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중국의 5개 자치구의 주석, 30개 자치주의 주장, 124개 자치현의 현장은 물론 그 예하 직위도 거의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자치민족의 공민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힘을 발휘하는 각급 당위원회는 한족들이 주요부서를 점하고 있다(이병호, 1997: 21).

매우 컸으며, 아울러 중국의 소수민족자치 정책으로 독립적인 조선족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 외에 조선족의 역할과 지위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에 이주한 조선족들은 중국 동북지역의 개척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동북지역은 한랭하여 원래 벼를 재배하지 않았으나 조선족이 이주하면서 벼 생산을 하게 된 것이다. 실로 위도 50도 이북지방에 벼 심기에 성공한 것은 하나의 기적과 같은 것이었다. 1945년 해방 전 동북지구 총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조선족의 벼 생산이 동북지역 총 벼 생산량의 90.1%를 차지했다.

또한 조선족은 동북지역 자원개발과 철도건설에서도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연변지역의 탄광, 금광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조선족이었다(근로자중 80%가 조선족). 그리고 중동철도, 연변철도 건설에서 일체의 강압하에 조선족들은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sup>28)</sup>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과 법률이 오늘날까지 조선족의 공동체를 담보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淸)정부로부터 민국(民國)정부, 위(僞)만주국은 민족압박, 민족차별, 민족동화정책을 실시했지만 중국공산당은 민족평등, 민족단결, 민족공동번영으로 소수민족 경제 지원정책과 각 민족의 언어문자·풍속 습관·종교 신앙 등의 자유 정책 등의 4대 민족정책을 제정 실시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중국의 변방지역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저항적이고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있는 곳이며, 소수민족의 인구는 비록 전 중국 인구의 8%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실제 그 생활 점유 면적만으로 보면 중국 국토의 절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안보, 자원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sup>29)</sup>

28) 연변통신(2002). 朝鮮族略史編纂組(1986). 朝鮮族略史. <http://www.yanbiannews.com> (2005. 4. 2)에서 재인용.

29) 소수민족이 중국내 차지하는 면적은 소수민족자치주 지역으로 혹은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계산할 것인지 정확히 산출해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혹자는 중국면적의 3/5, 혹은 5/6 정도까지 기록되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쓴다.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소수민족 문제는 앞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 새로운 도전이란 곧 시장경제의 도입과 중국의 국제화라고 하는 경제의 개방화가 몰고 온 중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기반을 둔 소수민족 사회의 변화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한족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간 발전의 차이를 줄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민족 자치정부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민족지역이 위치한 변경 지구의 발전을 위해 ‘서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등소평 시기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 받아, 서부개발을 통한 중국 통일과 사회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서부개발 자체가 소수민족지역이라기 보다는 서부의 한족지역 중심 혹은 한족 주도로 추진되고, 소수민족에 대한 대중국 통합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민족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하튼 세계의 변화와 중국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사회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소수민족들이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그 사회가 근본적인 해체를 경험하면서 중국 사회에 좀 더 통합될지, 아니면 중국정부의 정책이 좀 더 다원적인 성격을 가질 것인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정책은 소수민족 자치를 허용하고 각 민족의 언어, 문화, 지역적 특성을 권장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정치권력의 다원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족 분리주의’는 특별한 경계대상인 것이다.

요컨대, 중국 공산당 일당이 영도하는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서 그리고 한족으로의 동화를 추구하는 국민적 통합이란 정책 하에서, 한편 현재 급속하게 자본주의를 도입하며 발전 변화하는 중국사회 변동 속에서 소수민족들은 물론 조선족은 장차 자체의 인적능력과 민족역량 그리고 민족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는 큰 과제가 될 것이다.<sup>30)</sup>

그 동안 조선족자치주는 전체 재중 동포사회의 수도이자 심장으로서 민족 자치와 더불어 민족문화와 민족교육 보존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족

30) 한족사회에 어느 정도 동화될 수 있는냐는 ‘언어사용’과 ‘민족간 통혼율’로 가늠할 수 있는데, 조선족은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000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조선족의 통혼율은 그 비율이 7.95%로 인구 백만 명이상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낮은 민족간 혼인율을 보이고 있음(박광성, 2006: 160)은 현실적으로 조선족의 순수성과 개성이 강한 민족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를 지키고 민족교육을 견지함으로써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다민족 사회에서 조선족의 민족적 자각과 연대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결집된 조선족의 역량은 중국 내에서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

이제 중국이 80년대 개혁·개방과 90년대 한중수교라는 큰 변화의 시대를 맞아 특히 조선족은 2002년 한중수교 10주년을 기념하는 ‘연변통신’의 기획 특집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내용은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에 일부 내용을 요약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이제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에서 매개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남과 북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주고 맺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조선족사회는 자체 특수성을 기회로 잘 활용하여 미래의 동북아경제권을 주도할 한민족 네트워크의 한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차 조선족 사회의 지도자와 각 방면의 인재들을 양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 인재들의 양성과 활동을 점차 한국의 인재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체제를 시급히 만들어내어야 한다. 조선족 경제도 부흥시키고 한국도 유익한 ‘윈윈전략’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협력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민족은 가장 창의력이 풍부하고, 가장 보편적인 원칙을 실천하는 민족일 것이다. 오랜 동안의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왔고, 평화를 사랑하며 타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는 우리 민족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명분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다 슬기롭게 타민족과 공존하면서 삶을 개척해온 재중동포 조선족의 경험이 보태진다면 우리의 민족적인 역량은 배가될 것이다.

그밖에 장차 남북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중국조선족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각각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대립된 남북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 서서 어느 정도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

선족은 민족적인 화해와 남북한 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조선족은 북한이 개방을 본격화하거나 한반도가 통일되는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그들의 전략적인 위치도 급부상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에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되어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자 한·중·일 삼국이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될 때, 한반도와 조선족사회의 전략적인 협력관계는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조선족의 남북한 관계에서의 미래 인재들의 중요성을 발굴하고, 남북한 통일의 중개 및 조정자로 기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조선족이 남북한 민족화해 내지 민족통일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과 장차 조선족을 통해 무한한 통일 역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민족적 네트워크 및 동질성의 결여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1)</sup> ……

이상의 내용으로 보면 조선족은 한민족 네트워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고 조선족의 신문 등 언론매체나 지식인들 논평 역시 이 점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은 어디까지나 중국국민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도 그렇게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선족이 중국정부의 경계를 받아서 좋을 것이 없으며, 또한 조선족 자신들도 이미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족의 문화적 특징과 그 역할에 대한 주장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연변대학 동북아국제정치연구소 김강일 교수는 중국 조선족사회는 중국문화와 한반도문화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변연문화’(주변문화)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변연문화체계는 모체문화인 한반도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100여 년간 중국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 주로 전통, 습관, 생활방식,

31) 연변통신(2002). 한중수교 10주년 기획특집 - 조선족의 과거·현재·미래, <http://www.yanbiannews.com>(2005. 8. 25).

사고방식, 언어 등 방면에서 중국문화와 한반도문화가 융합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복합성격 때문에 조선족사회의 문화는 중국문화와 한반도문화 모두로부터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의 성격을 띤다고 하였다.

이 변연문화의 성격 때문에 조선족사회는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교류에서 중요한 중개작용을 할 수 있고, 특히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북한이 폐쇄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조선족사회도 실질적으로 반 폐쇄상태이지만, 북한이 개방하거나 한반도가 통일되면 조선족사회가 지닌 이러한 변연문화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날 것이며 그 전략적인 위치도 급부상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에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되어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자 한 중일 삼국이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될 때, 한반도와 조선족사회의 전략적인 협력관계가 어떤 이점을 지닐지는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이 조선족 청소년들의 민족교육과 직업교육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인 자라나는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선택성 있게 효율적으로 민족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급변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후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을 확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를 들면, 민족교육사업을 장려한다던가, 민족교육기구에 장학금을 마련한다던가, 또는 대량의 조선족학생들의 한국유학의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기업이나 한국국가기관의 취직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조선족들로 하여금 항상 한국과의 유대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 그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정체성과 한국문화의 전파수단인 조선족언론기관을 지원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항상 ‘민족문화’는 장려하고 존중해 왔지만 ‘민족의식’은 항상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선족 청소년들의 지원과

32) 길림신문. 2002. 5. 14일자 기사 : 민족진로 탐구. 이 기사에서 김강일(2001) 주장을 평론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하는데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 3. 조선족사회의 현황

조선족 청소년들의 실상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들의 환경에 해당하는 조선족 인구 현황과 변동 추세 및 경제상황 그리고 교육 문예 등의 중요한 내용만을 다음에서 개괄함으로써 본 연구가 실시하는 설문조사연구의 배경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 1) 인구 현황과 변동 추세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대체로 130년 이상의 이주 역사 속에서 대부분이 2세대에서 5세대에 걸쳐 있다. 특히 현재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대체로 3~4세대에 속한다.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조선족의 인구는 자연 증가에 그쳤으나 최근에 와서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한 자녀 정책’의 분위기 때문도 있지만 소수민족에게만은 2자녀를 허용하고 있으나 조선족은 타민족에 비해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한 때문인 면도 있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조선족은 높은 교육열과 성취욕 때문에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주와 한국으로의 취업이동,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여성의 이주가 인구 감소의 원인되고 있다.

1953년의 중국 제1차 인구센서스에서 중국조선족의 인구는 약 112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1964년에는 약133만 명으로, 1982년에는176만 명, 1990년에는 192만3,361명 및 2000년에는 192만3,84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953년부터 1990년까지 37년 동안 전국적인 인구증가(1.95배)보다 느린 약 1.7배의 증가를 보였다. 연변지구만 보면, 조선족 인구는 1953년의 55만7천명에서 1990년 82만1천명으로 약 1.5배의 증가를 보인 반면 한족의 인구는 1953년의 34만6천명에서 1990년 118만7천명으로 약 3.4배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변의 조선족 인구비율 통계만 보더라도 1953년의 60.2%

에서 1964년에는 48.1%, 1982년에는 40.3%, 1990년에는 39.5%, 1999년에는 38.76%, 2005년에는 31.6%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sup>33)</sup>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족청소년 19세에서 25세까지의 인구 총수는 1990년에는 260,004명, 2000년도에는 195,556명으로 10년 동안 64,448명이 감소하여 24.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청소년 19~25세 사이의 인구는 2007년 현재 240,208명으로 추산<sup>34)</sup>할 때 2000년도에 비하면 44,654명 증가하나 1990년에 비하면 19,796명(감소율 -7.6%) 감소하고 있다.

중국 소수민족정책에 의하면, 소수민족인구의 비율이 해당지구 총 인구의 25%이상이어야 민족자치권을 부여한다. 앞에서 본 연변조선족인구의 감소 추세를 보면 이 25%의 한계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족에 비해 조선족의 출생률 저하와 최근 청장년층의 대도시로의 이동 및 해외유출로 인한 대량의 인구유실에서 주로 기인된다. 현재 조선족자치주에서만 20만 명 정도가 중국의 대도시나 해외로 나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만 명이면 자치주 조선족 인구의 약 24%인데 노약자와 어린이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경제인구가 유출된 셈이다.

그중 최근 10여 년간 생육(가임)연령계층의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인한 인구유출은 단순한 인구유실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상당기간 그로 인한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추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한국에 시집 온 조선족 여성은 6~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성인구의 도시집중화와 해외유출은 심각한 성비차이를 야기하고 그에 따른 출생률 저하와 인구감소 등 악순환을 계속 유도하고 있다. 여성인구의 타지 진출로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곧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연변 가족계획 담당부문인 계획생육(가족계획)의 통계

---

33) 연변통신 기획특집(2002). 자치주 50돌 맞은 연변 조선족(상): 민족공동체 해체 위기. <http://www.yanbianforum.com>(2007. 8. 30) 및 崔厚泽(2007), 延边人口问题与边境人口安全问题对策研究, 吉林: 延边大学(未刊论文)에서 참고.

34) 중국청소년의 2007년도 인구통계는 현재 발표된 자료가 없어 '중국 2000년 인구조사자료'(중국 국무원 인구조사판공실 및 국가통계국 인구 및 사회과학기술통계사. 2003, 권태환 편저(2005), pp. 19-25에서 재인용)에서 7년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통계로 추산하였다.

에 의하면 25세~45세 사이의 미혼 남성들 가운데 28세 이상 농촌 총각이 67%(1만8천여 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8세 이상 농촌 총각 10명 중 6~7명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농가 소득 증대와 대출금 마련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sup>35)</sup>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10년간의 출생률 감소를 감안하면 2009년에는 2,000명, 2019년에는 500명, 2029년에는 31명이 출생하고 2049년에는 한명도 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 내 조선족인구 비율도 2010년에는 20%대, 2020년에는 10%대로 내려갈 것이고 2030년이면 8.7%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 중앙민족대학 한국학연구소측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신생아 출산수는 1999년 말 현재 3,800명으로 10년 전인 1989년과 비교하면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구감소로 볼 때, 조선족사회는 이주 130여년 역사에 있어 가장 큰 해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sup>36)</sup>

이러한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 상황에서 최근 조선족 중산층들이 둘째 아이를 낳거나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환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조선족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최근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동북3성의 조선족 밀집 도시에서는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보조금 지급과 학비 면제라는 우대정책을 제정하기도 했고, 조선족 언론에서도 출산율 적극 권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및 문제점을 보도해 왔지만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부를 축적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도시 및 해외 노무송출로 인해 경제적 부가 축적되고 그들의 출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점과 둘째를 낳을 경우 혼자보다 정서상, 교육상 좋다는 인식이 확산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여하튼 조선족 사회의 큰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sup>37)</sup>

35) 온바오 연변 김미화(2007). 연변 농촌총각 10명 중 6-7명 장가 못 가.

<http://www.onbao.com>(2007. 8. 23).

36) 연변통신 기획특집(2002). 자치주 50돌 맞은 연변 조선족(상): 민족공동체 해체 위기. <http://www.yanbianforum.com>(2007. 8. 30).

37) 온바오 연변(2006). 조선족 중산층, 둘째아이 원하는 가정 늘어.

<http://www.onbao.com>(2007. 8. 22).

조선족은 이주초기부터 길림성, 흑룡강, 요녕성의 동북3성 지역에 밀집하여 사는 집거형태를 취했다. 이는 자연, 혈연 중심의 공동생산체 형식을 취하며 결집력을 유지하게 하였다. 특히 조선족자치주를 구성한 후에는 공산당 위원회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치주내의 주요 직위를 조선족이 차지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를 사용하고 민족 고유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집거형태는 최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들어와 중국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초기에는 조선족들은 연변, 심양, 장춘, 하얼빈, 길림, 대련 등 민족지역내 도시로의 이동이었다. 이 시기의 이주자들은 상당수가 농민들이었으며 주로 막벌이군 생활이었다. 그리고 80년대 말에 들어서는 북경을 비롯한 산둥, 강소, 광둥 등 연해도시로 대거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이주자들은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층과 고학력자가 대부분이지만 특히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여성들은 대도시에서 한국 기업이 설립한 노동집약적인 기업에서 생산직, 통역 및 관광 안내원, 한국음식점과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면서 남성들에 비교해서 쉽게 일자리를 찾았다. 반면 학력이 떨어지고 직업기술을 갖지 못한 젊은 남성들은 도시에서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족의 인구 이동의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내이동은 2005년 전후의 언론보도에 근거하면 광둥지역에 6만여 명, 상해지역에 3만여 명, 산둥반도지역에 15만 명, 북경지역에 5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기타 관내 연해지역을 포함하여 중국 연해지역으로의 이동한 조선족 인구를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의 국외지역으로의 이동 인구도 국내 이동인구와 비슷한 30만 명 추정하고 있음(박광성, 2006: 4-5)을 볼 때, 현재 전체 조선족의 중국내와 해외로의 이동을 합하면 60만 명 정도로 조선족 총인구의 1/4이상이 이미 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조선족 자치주내 조선족의 타지로의 이동도 그 비율이 24%인 점과 유사하다.

한편 1970년대에 조선족 인구의 30% 정도가 도시와 읍에 살고 있었지만 1990년대에는 도시인구가 조선족 인구의 50%를 넘게 되었다. 여기서 도시인

구는 호적은 농촌에 있지만 토지를 이탈하여 도시에 나와 장사를 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는 조선족의 인구가동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되었으며 초기에는 러시아로 향하던 이동은 곧 한국과 일본으로 옮겨졌고 멀리는 미국과 캐나다로까지 확산되었다. 특히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을 방문한 조선족은 1996년 5월까지 20만 명에 달했고 그중 노동자로 이주한 사람은 10만 명에 달하였으며, 2002년 6월에 한국에 체류 중인 조선족의 수는 10~15만 명이었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2007년 8월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조선족 총수는 26만6천724명이라 밝히고 있다.<sup>38)</sup> 조선족들이 근거지인 조선족자치주 지역을 떠나 대이동을 하면서 그들의 직업분포, 타민족과의 관계, 교육과 문화 그리고 민족정체성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요컨대, 조선족의 인구가동 숫자는 파악이 어렵지만 한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15년간 조선족 총인구의 45% 정도, 노동력 인구의 70% 정도가 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진출지역을 보면, 국내에서는 원거주의 도시지역은 물론 원거리에서 수 천리 떨어진 중국 남부지방에 이르기까지, 국외로는 한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 리비아와 같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까지 수 십개국에 퍼져있다. 조선족이 이와 같이 국내외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동시적으로 대규모 분산 이동하면서 사회변화를 겪은 집단은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보아도 흔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박광성, 2006: i).

이러한 지역적 다원화는 동북3성의 일부 지역에서 집거를 기초로 형성되었던 민족사회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적 구조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관찰된다. 첫째, 경제가 발달한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시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제화이다. 앞에 말한 도시화는 국내외를 망라하며, 특히 국외로도 서울 일부지역, 도쿄 신주쿠, 뉴욕 플러싱 지역 등에 조선족타운이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셋째, 다원

38) 조선족의 한국내 체류 통계는 자료원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서울 사무소. <http://china.yanbian.gov.cn>(2007. 8. 29)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한국 체류자 26만6천여 명 중 불법 체류자는 3만7천573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화이다. 조선족 이동은 진출지역이 넓고, 성격이 다양한 특징 외에,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다시 집중되면서 새로운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도 있다. 가령, 연길시로의 집중, 심양시로 유입 증가, 청도시에서 새로운 집거지 형성, 서울에서 타운형성 등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이동과정에서 연해지역에 한국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처럼 연결망의 작용과 집중을 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적 구조와 연결된다. 이러한 지역적 다원화는 조선족사회가 지역에 기초한 동질성이 높은 민족사회에서, 탈지역적인 다원화된 민족사회로 재편되고 있음을 뜻한다(박광성, 2006: 68).

## 2) 조선족의 경제적 상황

조선족이 중국에 이주한 초기에는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타민족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를 얻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선족의 가치관과 역사적, 인구적 및 지역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쇠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조선족과 한족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경제적 가치관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전의 소유와 경제적 수준을 인생과 성공의 기준으로 간주하는 한족들과 달리 한국문화의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조선족들은 금전보다는 지위나 학식, 체면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상이한 가치관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인 1970년대 말까지도 중국에서는 사영(私營)경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족들은 모든 기회를 만들어 작은 장사라도 놓치지 않고 돈을 모았고 그것은 훗날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창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한족들의 수십 년간의 꾸준한 부의 축적은 그들을 부유계층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반대로 양반은 굶어 죽어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강한 조선족들은 노점상이나 건설현장, 광산노동 등과 같은, 돈은 되지만 힘들고 굶은일을 하는 것을 체면이 깎이는 일로 생각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상업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조선족들의 가치관이 옳다 그르다 간단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가치관이 당면한 경제 현실에 역작용을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한족들은 돈벌이에 대해서는 본능에 가까운 타고난 장사기질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다른 조선족 주거지는 물론이고 연변의 중심인 연길시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상가나 장사하기 좋은 자리, 그리고 장사가 될 만한 업종은 이미 거의 한족들의 수중에 넘어가 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중수교이후 10년 동안에 많은 조선족들이 코리안 드림을 타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들였고 이것은 조선족 경제의 성장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대도시나 해외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60만여 명의 경제활동은 지방의 조선족 경제를 유지하는 데는 일정한 몫을 하고 있지만 조선족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고 소비수준이 높은 조선족지역은 다른 지방의 한족들에게는 오히려 돈벌이하기 가장 좋은 곳이 되고 있다.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외지에서 돈 벌어난 조선족들이 본 지방에서 소비하고 외지의 한족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는 자기의 고향에 가서 소비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조선족들은 계속 상황이 나빠지는데 반해 한족들은 계속 부유해지면서 조선족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적 차이에서 나온 간단한 경제관념의 차이가 결국에는 조선족사회의 해체라는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한편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한중 교류협력에 힘입어 조선족은 공업기반을 확장, 발전시키는 등 생활수준이 부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특히 조선족은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체로 농업분야가 줄어들고 상업과 서비스업 분야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1990년 초기부터 시작된 조선족의 연해지역 진출은 어느덧 17년에 가까워 온다. 그동안 북경-천진권, 청도-연태-위해권, 상해-남경-항주권, 광주-심천-주해권을 중심으로 연해지역 조선족사회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조선족의 경제생활권이 조성되고 있다. 상기 지역에는 적게는 4-5만 명, 많게는 10만여 명 이상의 조선족들이 거주

39) 연변통신(2003). 우리 조선족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http://www.yanbianforum.com>(2007. 8. 29).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집거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처럼 조선족의 연해지역 등 도시로의 진출은 경제활동 종사와 발전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취직·진로·개척형’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연해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한국 기업의 대규모 연해지역 진출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해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이 날로 빨라지면서 조선족의 진출은 계속될 전망이며, 조선족의 경제상황은 분명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해지역 경제발전이 점점 가속화되면 한중간의 경제·인적교류의 폭이 점점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40)</sup>

중국의 연해지역은 현재 엄청난 경제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05년 10월 18일 중국공산당중앙 16기 5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앞으로 5년간의 경제발전구상은 상해 포동신구(浦東新區)와 비슷한 의미의 천진 빈해신구(濱海新區)를 개발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는 연해지역에 대한 개발이 계속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중간의 경제·인적교류도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연해지역의 교류 확대는 조선족의 경제여건을 더욱 좋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시작된 중국의 ‘서부개발’ 전략과 2004년에 시작된 ‘동북노후공업기지진흥’ 전략에 연변지역이 포함되어 2차 산업인 제조업의 투자가 증가되면서 오히려 3차 산업이 줄어드는 특수한 현상이 생겼다. 실제로 연변의 산업구성 비율을 예를 들어, 1999년에서 2004년으로의 변화를 보면, 1차 산업이 16.4%에서 15.4%로 감소, 2차 산업이 42.1%에서 45.1%로 증가, 3차 산업이 41.5%에서 39.5%로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인구가동이 지역구조 변화를 초래하며 도시화, 국제화, 다원화의 내용을 가져왔다고 설명하였지만, 이와 같은 연변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탈농화, 산업화, 초국가화라는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족의 산업구조 변

40) 흑룡강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0년부터 연변의 노무송출수입이 지역의 재정수입을 초과했으며, 2003년에는 재정수입의 2.6배로 증가하였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 해외노무송출로 들어온 돈은 총 40여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흑룡강신문(윤은걸 기자) 2005. 1. 11일자 기사 : 연변 인구 당 주민 예금 만원선 돌파 전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 중 선두.

화 역시 연변경제와 연변조선족경제 그리고 연변경제와 도시지역 경제를 각각 구분하여 그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생겼다(박광성, 2006: 77).

이러한 조선족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조선족 농촌지역은 위축되고 공동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 중국 연해지역 내지 국외지역에서 조선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적 상황도 좋아지면 결국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룬 조선족 청장년들과 학생들은 중국에는 조선족의 고향이자 역사·문화·전통의 근거지인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하여 동북3성지역의 경제상황 및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조선족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 노무송출로 인한 수입은 그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sup>41)</sup> 2006년 말 노무송출이 10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5년보다 2억 달러가 증가한 액수로 2005년 연변 재정 총수입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노무송출 지역으로는 한국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일본, 러시아, 미국 사이판의 순이며 기타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연변 주정부는 취업문제 해결과 산업발전에 노무송출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노무자들의 해외 생활의 어려움과 귀국 후 창업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아 앞으로 조선족은 한층 더 폭넓은 경제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 GDP는 104억5천만 위안에 달해 전년도 동시기에 비해 19.9% 증가하였고 성장속도는 동시기에 비해 8.1포인트 상승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공업경제와 제3차 산업 그리고 대외무역의 역할이 괄목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제발전 속도가 두드러진 연결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결시의 경제력은 2005년 GDP가 72억1천8백만 위안으로

41) 참고로 노무송출과 관련하여 연변, 심양, 하얼빈, 북경, 청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연구에서는 조선족 설문 응답자의 48%가 한국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이 도움 된다는 응답이 87%로 조선족 가정경제에서 한국 의존도가 높고 한국에서 번 돈을 사업자금(34%), 생계비(30%)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응용 등, 2005).

연변조선족자치주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 종합 잠재력 평가에서 중국내 2,000여개 현급시(縣級市) 중 100대 현급시에 재진입했으며, 잠재력 평가에서는 3위에 들어 앞에서 언급한 노무송출 수입과 동북지역의 관광사업을 가장 유력하게 꼽고 있어 조선족 경제의 두 기둥이 될 전망이다.42)

### 3) 조선족의 교육과 언론·문예 실상

조선족의 교육수준은 여타 소수민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소수민족이라는 제약으로 사회적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선족 출신 지식계층은 중국정부내 연구소, 학교, 방송국 등 조선어(이하 ‘한국어’로 표기)문화 및 전문기술분야에서 두루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족은 특히 교육면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보였다. 한 예를 들면, 비록 200만 명밖에 안 되는 조선족이 1,308개소의 소학교(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함)와 223개소의 중학교43)를 설립하였으며 연변대학까지 설치하였다. 즉, 조선족은 1952년도에 소학교 교육을 보급했고, 1958년에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기본상 보급했으며, 중·소학교 입학률은 98%에 달했고 1만 명당 대·학공부를 하는 학생이 50명에 달해 조선족의 대학진학률은 중국 56개 민족의 제일 선두를 차지했다. 그리고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는 2004년 통계에 의하면, 1개 고등학교, 9개 중등전업학교(전문학교), 181개 초·중·중학(중학교), 407개 소학교, 455개 유치원이 있으며 중학교급 이상의 조선족 청소년 학생 수는 대략 4만8천5백여 명에 달한다.44)

교육분야의 지표중 하나로 2000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6세 이상 조선족

42) 이상의 수치와 기사는 SCK미디어(2006). 중국 최대 조선족민속문화촌 선다. <http://www.onbao.com>(2007. 8. 15)에서 인용. 여기서 연변 용정시에는 연변최대 규모의 ‘조선족민속문화촌’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변대학 동북야관광자원개발 연구중심에서 설계하고 2억8천만 위안을 투자하는 큰 프로젝트로 2009년 완공 예정이다. 연변의 2006년 관광인원은 300만 명이며, 관광수입은 28억4천만 위안이며 전년도보다 13.6% 증가한 수치이다.

43) 중국의 학제는 우리와 달리 ‘중학(中學)’(‘普通中學’이라 함)은 初中(중학교 과정)과 高中(고등학교 과정)을 합하여 6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高等學校’란 우리의 대학과정을 말한다. 여기서의 중국 학제를 그대로 ‘중학’으로 사용한다.

44)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2007). 교육통계자료. [www.yanbian.gov.cn](http://www.yanbian.gov.cn)(2007. 8. 17).

가운데 고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은 33.3%에 달한다. 그러나 한족의 경우 그 수준은 절반이하로 떨어져 16.2%를 나타내며, 다른 민족은 총체적으로 조선족의 1/3 수준인 11.2%에 머물러 있다.(권태환·박광성, 2005 : 95) 이와 같은 조선족의 높은 교육수준은 또 다른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의 대학졸업자 및 문맹률을 타 집단과 비교한 <표 I-1>을 보면 조선족의 높은 교육수준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족의 대학졸업자 비율(1.66%)은 한족(0.30%)은 물론 중국 전체(0.50%)보다 높으며 문맹율도 조선족(11.54%)이 한족(31.04%)이나 중국 전체(31.88%)보다 크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은 조선족의 높은 교육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최근자료에 의하면, 조선족 문맹인구는 전체인구의 2.7%인 15만 1,293명으로서 중국 전체의 문맹률 7.7%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화수준 비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 이상 도달자가 조선족은 8.5%인 15만 8,937명으로 중국 전체의 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45)</sup>

<표 I-1> 중국 각 민족간 대학졸업자 비율 및 문맹률 비교

구 분	조 선 족	한 족	기타 민족	중국 전체
대학졸업자 비율(%)	1.66	0.30	0.51	0.50
문맹률(%)	11.54	31.04	44.31	31.88

자료 : 연변통신(2002). 한중수교 10주년 기획특집 - 조선족의 과거·현재·미래.  
<http://www.yanbiannews.com>(2005. 8. 25).

대학진학률에 있어서도 조선족학생들은 역시 두드러진 우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중국에서 대학교육의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대학졸업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가령, 1995년 중국의 대학입학률은 6.5%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4년에는 19%로 급속히 증가한다. 조선족은 교육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해 조선족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은 60~70%로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대학규모가 커지면서 대학을 졸업

45) 온바오 연변(2007). 2006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및 통계연보(연변주 통계국. 2007).  
<http://www.onbao.com>(2007. 8. 20)에서 인용.

하는 학생들은 정부가 알선하는 취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 자신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sup>46)</sup> 최근 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선족사회에 대학진학을 위한 과외열풍이 심하게 불어 학생의 90%이상이 과외를 받고 있으며 가구당 과외비용 부담이 한달 평균 600위안이 넘는 가정이 많다고 한다. 특히 과외과목은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 외에 한국어나 중국어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sup>47)</sup>

또한, 조선족은 고유의 민족언어문자 교육과 민족대학 설립을 성취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1945년 해방 후 큰 특징은 민족학교의 설립이 본격화되고 민족언어와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학교들은 일제시의 학교를 인수한 연길사범학교, 연길중학교, 공업학교, 광성중학교, 고려여자중학교와 소학교 등이 있었다. 그 후 용정에는 ‘교육동맹’이 조직되어 동흥중학교, 대성중학교, 영신중학교, 은진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명신여자중학교 등 중학교 및 소학교가 운영되었다. 기타 지역에도 여러 학교들이 설립되어 민족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해방후 조선족은 자기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와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변에서는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로 교육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것은 민족언어문자 사용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당의 정책에 의해 조선족의 문화교육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연변주 자치기관의 행정용어일 뿐만 아니라 주(州)정부의 문건이나 포고문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용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성분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80%이상 학생이 노동자, 농민 가정출신이었으나 사범학교 학생과 농민간부반의 학생은 국가의 경비로 학습

46) 여기서 말하는 대학입학율은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비율이 아니고, 해당 연령대의 대학 진학 비율이다. 2000年 全國教育事業發展統系公報”,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05年 4月. (박광성, 2006: 54)에서 재인용.

47) 온바오 연변(2007). 한국인 못지않은 연변 조선족의 교육열. <http://www.onbao.com>(2007. 2. 1). 한달 과외비 600위안은 조선족자치주내 초임 교사의 한달 월급이 1,500위안이며 외자기업 취업인 첫월급이 2,000위안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이다. 이러한 과외열풍은 한국을 닮아간다고 기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게 되면서 빈부의 차이에 의하여 이루어진 교육불평등은 많이 없어지게 되었다. 1947년 3월에는 교육출판사가 창립되어 조선문 교과서를 정식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선족 고등학생들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1949년 3월 20일 조선족 대학인 ‘연변대학’이 창립되었다. 창립시에는 ‘연길대학’이라 불리다가 그 후 ‘연변대학’이라고 정식 명명하였다. 현재까지 조선족의 인재를 육성하고 조선족 과학문화교육을 발전시키면서 이제는 조선족의 중등교육교원, 민족간부,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종합적인 민족대학이 되었다. 실로 연변대학은 소수민족종합대학으로서는 중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대학이며 2006년 현재 조선족 졸업자는 3만5천 명이 넘는다.<sup>48)</sup>

연길시에 위치한 조선족 교육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또 하나의 대학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이다. 1990년 중국 최초로 중외(中外)합작대학 형태로 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1992년 ‘연변과학기술대학’으로 교명을 개칭하고 현재 약 1천3백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현재 형식상 연변대학 ‘과학기술학원’(www.yust.edu)으로 설립되어 있고,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부속기관으로 연변외국인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사회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부설 ‘IT교육원’을 개원하여 산학협동으로 조선족 IT인재 육성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sup>49)</sup>

앞에서 언급한 조선족인구의 감소, 연해와 국외로의 이동, 농촌 조선족학교 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선족 학생의 유실과 감소는 현재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 연변의 조선족 중에서 소학교의 조선족 학생들이 대량 한족학교에 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학생이 한족학교에 대량으로 다니는 현상은 중국의 가장 큰 조선족 집거지인 연변에서 아주 심각하다. 연변일보 류일석 기자의 탐방기사에 의하면, 연변에서도 조선족이 가장 집중된 연길시의 경우만 보아도 한족학교

48) SCK미디어(2006). 연변대학 성인교육 3만5천 명 배출. <http://www.ckywf.com>(2007. 7. 13)

49) SCK미디어(2007). 연변과기대 IT교육원 3월 개강. <http://www.ckywf.com>(2007. 7. 13).

에 다니는 조선족학생이 3,000명을 웃돈다고 하였다. 이는 재적이 1,000명 이상이면 비교적 큰 조선족학교라고 할 때 연길시에서 세 개의 큰 조선족학교가 소실된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한족학교에 가는 조선족학생이 더 많아진 다는 것이다. 반대로 현재 조선족학교에 다니는 한족학생은 고작 450명에 불과하다.

조선족학생들이 한족학교로 가는 주요한 원인은 중국에서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발전 전망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중국어를 제대로 잘 배우게 하려면 어릴때부터 한족학교에 보내야 한다면서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지식인들과 유지 등 지성인들이 오히려 아이를 한족학교에 보내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조선말 조선글은 어지간히 알고, 중국어 하나만은 한족 못지않게 잘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주류사회에서 중국어에 어설프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연변에는 소학교 3~4학년 때 한족학교에 전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연변에서 조선족학생은 어릴 때부터 한국어 환경이 주어졌지만 거기에 소학교 3~4학년까지 배우면 말하고 쓰기 능력을 상당히 갖추게 된다. 나머지는 집에서 계속 보충하고 한족학교에 가서 중국어를 한족학생들과 함께 제대로 배우게 되면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정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조선족학교에서는 전문 중국어 수업반을 개설해 조선족학생들의 유실을 막고 있다. 물론 한족어린이들까지도 한국어를 더 배울 수 있다는데서 이 학교에 입학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조선족학생들에게는 한족학교에서처럼 한족교원에게서 중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면서 또 한국어도 잘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족학생들에게는 중국어는 물론 조선족학교라는 언어환경 속에서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므로 선호되고 있다.

최근 조선족 소학교의 신입생이 증가했다는 보도는 이러한 영향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06년 9월 소학교의 신입생 모집에서 인원이 증가한 현상에 대해 조선족 사회가 무엇보다 반가워하고 있다. 신입생이 증가한 이유는 첫째, 조선족 부모들의 의식변화를 들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중국어를 잘 해야 진학에 유리하다는 점을 조선족 소학교에서 중국어교육을 강화시킴으로 만족하게 된 것이다. 둘째, 한국어 구사능력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추세에 따른 것이다. 최근 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업체에서도 채용시 한국어 능력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곳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아마도 한국에서 2007년 3월부터 조선족의 방문취업제가 실시된 점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셋째,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이지만 다른 이유와 결부되어 이왕이면 가산점이 많은 조선족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sup>50)</sup>

한편, 한족학교에 한국어과가 설치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제고된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조선족학생들의 가장 큰 장점이던 한국어가 취업이나 진출에 더는 결정적인 강점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 조선족학교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시장경쟁시대에서 한국어의 강점을 한족들도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조선족학생들이 한족학교에 다니는 현상은 도전이자 기회다. 이 위기와 기회를 지혜롭게 넘기기만 하면 조선족학교의 앞날은 밝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족의식이 강하고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거의 없이 자체적인 민족공동체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던 조선족들은 불가피하게 외부세계와 접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중국어를 몰라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었지만 갈수록 외부와의 접촉이 필요해지고 상호경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중국어를 모른다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한다. 중국어를 모른다면 국가기관에로의 진출이나 경제활동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게 돼가고 있다. 누구도 민족교육을 포기하고 중국어만 배우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제 중국어는 모든 사람들의 필수적인 생존수단이 되었고, 아울러 민족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고 민족 정체성의식이 날로 희석 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조선족들은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50) 온바오 연변(2006). 연길시 조선족 소학교 신입생 증가. <http://www.onbao.com>(2007. 7. 13).

앞에서 한족학교로의 진학이 증가함을 살펴보았지만, 조선족학교에서 조차 민족사나 민족문화는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60만 명 정도가 타지방이나 외국에 나가 돈벌이 하고 있는 인구 중 절대 다수가 20~40대의 연령계층인데 이들은 가정교육이 가장 절박한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하다. 그중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한번 출국하면 수년간씩 가족을 만나지 못하므로 아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sup>51)</sup>

이와 관련하여 길림신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은 매우 의미가 있다.<sup>52)</sup> 설문 응답자는 64명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 박사, 전문가들과 학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는 조선족 고급지식인들의 시각으로 조선족 교육의 현황을 조명하고 정리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는 조선족 교육에 대한 전반적 평가, 조선족대학생 문제, 조선족사회 당면의 주요문제 등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되었다.

우선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조선족교육이 이전보다 좋아졌다”와 “못해졌다, 비슷하다”가 각각 절반으로 나왔다. 이는 조선족교육에 대한 고급지식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응답자들이 민족교육의 전초기지인 조선족 중·소학교 운영난을 교육문제의 중요한 내용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38%를 차지하는 24명은 “조선족 중·소학교 교원 유실이란 엄중한 문제”를 꼽았으며 응답자의 34%를 차지하는 21명의 사람들은 “조선족 중·소학교 학생 유실”을 꼽으면서 이 두 문제가 조선족 중·소학교 운영난을 조성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족 중·소학교 운영난 문제”는 별도로 진행한 “조선족사회 10대 문제”에서 제5위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 대도시와 연해에서 온 일부 응답자들은 “농촌인구의 도시여로의

51) 김룡남(2006). 조선족의 어제와 오늘. <http://www.onbao.com>(2007. 7. 13).

52) 조선족 신문인 길림신문은 2005년 11월 19일 장춘에서 진행된 전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제5차 이사회 및 제1차 조선족여성과학자학술회의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길림신문 2006. 3. 24일자 기사 : 조선족교육의 현황 : 조선족대학생의 우세와 문제점-설문조사.

전이에 따라 대도시와 연해도시의 조선족 새 집거구에서 조선족학교가 없는 문제를”를 중시하면서, 긴 안목에서 보면 이 문제가 조선족사회 구성과 발전에 관계되는 새 과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전반적으로 조선족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특히 주목되는 점은 별도의 주제로 진행된 “조선족사회 10대 문제”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87%에 달하는 56명의 사람들이 “부모 출국이후 편부모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를 조선족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이는 출국과 도시 진출로 인한 조선족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교육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민족에게서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함을 보여준다. 길림지구(省)에 있는 영길현(縣) 조선족실험소학교 등 7개 중·소학교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편부모거나 부모 없는 학생수는 재학생 총수의 60.6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영길현 조선족실험소학교의 경우 이 비례수는 79.7%에 달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학생의 비례수는 12.3%, 부모가 국내외 노무에 종사하는 학생 비례수는 67.4%, 그중에서도 부모가 다 곁에 없는 학생의 비례수는 34.1%나 된다. 편부모가정 학생들은 특수한 집단으로서 학습, 품행, 생활 및 심리 등 여러 방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 특수한 집단의 교육문제는 조선족 향후의 존망과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문제라고 전문가들은 호소하고 있다.<sup>53)</sup>

이와 관련하여 연변 교육부문 자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흑룡강신문의 인용보도에서 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중·소학교 학생들 중 편부모 자녀가 54%이상이나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길시조선족 중·소학교 학생들 중 편부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례는 소학교 53.9%, 중학교 53.2%이며, 용정시는 소학교 58.1%, 중학교 55.4%, 고등학교 49.8%이고, 도문시는 중·소학교가 도합 50.7%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sup>54)</sup> 또 다른 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모두 출국한 가정의 학생이 전체학생의 1/3이고 1/3은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이 돈을 벌기 위해 출국한 상태에 있다. 한편 가족과 떨어져

53) 길림신문(심영옥 한정일 기자) 2005. 12. 10일자 기사 : 조선족 사회 10대 문제.

54) 흑룡강신문 2003. 12. 8일자 기사 :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편부모자녀 54%.

혼자 생활하는 학생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 총 28%에 달한다. 그리고 이 학교 교사들은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의 성향을 평하고 있는데, 대체로 반항적이고 일탈행위를 많이 하며, 끈기가 없고 고집이 세 통제가 어려우며, 성적이 나쁘고 자퇴율이 높다고 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55)</sup>

이상의 몇 가지 자료만 보아도 조선족 미성년 자녀들이 도시화와 부모의 취업 이동 등으로 인해 가족분산을 겪으면서, 부모들은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자책감으로 돈으로 보상하려는 생각과 학생들은 부모의 감시를 덜 받는 환경 때문에 조선족 학생들의 과소비 생활태도와 학업에 열중하지 않는 현상 등 심각한 교육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예로 든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리라 짐작할 수 있다.

민족교육의 상실은 곧 타민족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 한때 세계최대의 영토를 지배했던 청나라 만주족이 불과 100년도 못 되어 나라도 언어도 문자도 모두 상실하고 서서히 한족에게 동화된 사례가 있다. 지금 많은 조선족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중국에서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라나는 세대의 성공적인 장래 보장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조선족자치주 연변에 있는 조선족 학교에서는 앞으로 민족문화, 민족의 풍속 등 민족의 특색이 담긴 교육이 전면 추진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발표되었다. 2006년 12월 1일 연길시 연북소학교에서는 연변자치주교육국이 주최한 전 자치주 조선족 중·소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민족문화 교육 현지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강조된 점은 앞으로 조선족학교는 민족문화의 특색을 살리면서 학생들에게 양질을 교육을 제공하며, 민족적 특색이 선명한 민족인재 양성의 요람지로 거듭난다는 방침을 천명하였다.<sup>56)</sup>

민족교육 중 특히 조선족 청소년들의 의식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과 출판 현황은 조선족에게는 열악한 편은 아니다.

55) 이 연구(권태환, 2005: 111)는 흑룡강성 M 조선족 중학교의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것이다.

56) 온바오 연변(2006). 연변 조선족학교, 민족특색교육 전면 추진.  
<http://www.onbao.com>(2007. 8. 4).

일찍이 1945년 8월 18일, 연길에서 민영 조선문 신문 ‘한민일보’가 창간되고 ‘인민일보’(조선문판) 등의 신문들이 발행된 이후, 2006년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신문 출판사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도합 2,300여종의 도서 출판, 그중 조선문 도서가 700여종에 달하고 신문 11종, 간행물은 21종이 발행되고 있다. 이 언론매체들은 조선족의 교육은 물론 각종 대외홍보와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sup>57)</sup>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중국 동북3성에는 이른바 ‘조선족의 4대신문’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변에는 ‘연변일보’, 연변을 제외한 길림성에는 ‘길림신문’, 흑룡강성에는 ‘흑룡강신문’, 요녕성에는 ‘요녕조선문보’를 말한다. 특히 연변일보([www.iybrb.com](http://www.iybrb.com))는 조선족 신문 가운데 가장 일찍 창간(1948년)되었으며, 조선족의 유일한 당 기관지로서 기자들도 공무원이자 당원이고 공산당의 강령과 정책에 대한 보도를 중시하면서 조선족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북한어법에 가까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있다.

길림신문([www.jlxcwb.com.cn](http://www.jlxcwb.com.cn))은 1985년 4월 1일에 창간됐다. 길림성내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제외하고 주로 길림성 지역의 조선족 산재지구에는 조선족 독자들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길림신문은 1995년 본사를 창춘으로 옮기고 연길에 지사를 두었다. 길림신문은 연변일보 보다 비교적 자유스럽고 독립적인 보도를 통해 민족적 특색을 살려 조선족의 소식을 가장 크게 취급하고 있다. 길림신문은 2005년도에 전통 있는 조선족 문예지인 장춘의 장백산잡지사와 합병을 함으로써 조선족의 이익과 지위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인터넷신문도 제작하고 있다.

흑룡강신문([www.hljxinwen.cn](http://www.hljxinwen.cn))은 1961년 하얼빈에서 창간되었으며 길림신문과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특색을 중요시한다. 흑룡강성내의 소식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남북관계 소식을 중요시하는 한편 중국내 조선족과 해외의 한민족까지 독자층을 넓히고 있다. ‘재중국 민족언론의 리더’라는 기치를 걸고 조선족 신문 중 인터넷 신문을 가장 먼저 제작하는 등 4대신문 가운데 앞서

57) SCK미디어(2007). 연변, 지난해 조선문도서 출판 700종.  
<http://yanbianforum.com>(2007. 8. 21).

나가는 신문이라 할 수 있다. 연변일보가 북한어법을 사용하는 데 비해 흑룡강신문은 가능한 한국의 한글 맞춤법으로 많이 사용해 읽기가 편하다. 특별히 2005년 ‘중국 속 한겨레 사회를 찾아’라는 시리즈는 중국내 한국인들과 조선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중국 연해 지역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조선족 집중촌과 다운타운 등을 직접 탐방해 보도함으로써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조선족 정체성을 도시 주변의 집중촌을 통해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요녕조선문보는 요녕성 심양시에 있고 1958년 창간되었으며 당시 이름은 요녕농민보였다. 요녕일보그룹 산하의 자매지로 요녕성에서 유일한 소수민족신문이며 요녕성내 24만 명 조선족의 대변지이다. 앞에 언급한 다른 3대신문이 일간인데 비해 주 2간으로 부수는 많지 않은 1만 여부 발행되고 있으며 앞의 조선족 신문들에 비해 모든 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4대신문 말고도 ‘중국조선족소년보’ 같은 조선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과 ‘조선족중학생신문’, 연변의 ‘종합신문’ 등이 있다. 특히 1985년에 창간한 ‘중국조선족소년보’는 동북3성에서 연합으로 지원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이 신문은 전국의 조선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발간하며 한국의 여러 단체와도 손을 잡고 장학사업을 펼치거나 줄어들고 있는 조선족 학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요컨대, 조선족의 신문들은 민족교육과 함께 조선족의 정체성 확립과 장래 조선족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2일에 연변뉴스사이트([www.ybnews.cn](http://www.ybnews.cn))가 1년여의 준비 끝에 정식 개통되었다. 이 사이트는 연변자치주 당위원회 선전부에서 주관하고 연변조선간신문에서 주최하며 지역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연변을 대외에 홍보하며 지역별 교류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잡지출판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어 1945년 말, 연길시 청년회에서 월간잡지 “이스크라”를 간행하였고 뒤이어 또 번역문을 주로 실는 종합성간행물 “신건설”을 출판하였다. 그 후 1949년에는 동북조선인민보사에서 종합잡지 “문화”, 농민잡지 “농민의 기쁨”, 소년잡지 “소년아동”을 간행하였고 연변교육

출판사에서는 교육잡지 “교육통신”을 간행하는 등 잡지 출판은 타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

그러나 최근 조선족 해체 위기가 오면서 한국어 출판물도 위기를 겪고 있다. 연변작가협회가 출판하는 유명한 순문학 월간지 ‘연변문학’은 1982~85년 8만부까지 팔렸으나 지금은 400부 정도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조선말과 글을 쓰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언론과 출판 등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문화시장도 고사(枯死)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조선족자치주는 ‘책을 출판하기 힘들고’, ‘책을 보기 힘들’ 등 민족출판사업이 봉착한 문제를 논의하고 발전을 다짐하면서, 특히 연변인민출판사와 연변교육출판사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출판사업 건설을 다짐하기도 했다.<sup>58)</sup>

연변의 방송사업은 비교적 일찍 발전하였다. 1937년 4월, 위만주국은 연길에 방송국을 세웠다. 그 후 1946년 8월 17일, 길림성정부가 연길에 옮겨오면서 방송국명칭은 ‘연길신화방송국’으로 개명한 후 1948년 11월 1일 ‘연길인민방송국’이 세워졌다. 그 후 1951년 4월 ‘연길인민방송국’을 ‘연변인민방송국’으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방송에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방송을 하고 있다.<sup>59)</sup> 특히 현재 중국의 동북지역에서는 조선족들이 한국의 방송과 TV까지 시청할 수 있으며 사극과 시대물 및 뉴스 등을 가감없이 그대로 들을 수 있어 한국과 거리감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언론매체는 모국의 소식과 문화를 이해시킬 뿐 아니라 ‘한류’를 일으키는 수단 하나가 되고 있다.

조선족은 또한 수준 높은 우수한 전통문화예술을 갖고 있다. 특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문화교육을 중시하여, 집거지인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노래와 춤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명절 혹은 행사가 있을 경우, 남녀노소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조선족 가곡의 선율은 유창하고 구성지며 명량한 특징을 갖고 있다. 무예는 부드럽고 우아한 자세를 보이며 격양되면서

58) 연변인민방송 2007. 1. 8일자 방송기사 : 민족문화사업이 고도의 중시를 받았다.

59) 연변일보(김철호 기자) 2005. 11. 25일자 기사 : 우리 력사 바로 알고 삼시다(90)-교육 문화 예술의 주인으로(2).

도 심오하고 예의가 스며있고 소박하며 시원시원한 감을 주어 민족특색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씨름, 축구, 그네, 널판뛰기, 줄다리기, 육상경기 등은 조선족 전통 체육오락종목이다. 그중 축구는 청소년 중심으로 가장 보편화 되어 있어 연변은 ‘축구의 고향’으로도 불리기까지 한다.

특히 연변가무단은 조선족으로 구성된 역사가 오래된 가극, 신창극 등으로 유명하다. 물동이춤, 부채춤, 장고춤 등은 모두 즐기고 있는 전통적 가무종목이다. 1951년부터 연변가무단에서는 창작일군들을 각 현에 내려 보내 조선족 민간무용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sup>60)</sup>

이를 종합해 보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그야말로 ‘교육의 고향’, ‘축구의 고향’, ‘가무의 고향’이란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중국의 소수민족자치주 30개 중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sup>61)</sup>

#### 4.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본 조선족 학생의 실상

조선족 청소년 혹은 조선족 학생들에 대한 연구자료는 매우 희귀하다. 더욱이 설문조사는 현지의 상황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조선족청소년 관련 조사자료를 구하기는 실로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조선족 언론기관들이 조선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몇몇 자료가 소개되어 다행히 조선족 청소년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여기에 재구성하여 요약 소개하면서 일부 조선족 청소년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완함으로써 본 조사연구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sup>62)</sup> 물론 조선족 청소년의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일부 표본의 조사자료라는 한계

60) 연변일보(김철호 기자) 2005. 12. 2일자 기사 : 우리 력사 바로 알고 삼시다(91)-교육 문화 예술의 주인으로(3).

61)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2007). 연변조선족자치주 개황-교육 예술 문화. <http://www.yanbian.gov.cn>(2007. 8. 26).

62) 설문조사의 발표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의 문법 혹은 용어와 아주 생소한 말만을 우리말 표기로 설명하며, 여러 설문결과의 서술방식은 분석이 용이하도록 주제별로 재구성하였다.

는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에 유용하리라 본다.

## 1) 조선족 대학생의 강점과 문제점

### (1) 조선족 대학생의 강점

① 첫째 강점은 “언어의 우세”이며, 둘째 강점은 “빠른 센스(새 사물 잘 접수)”이다.

‘조선족 대학생의 우세(강점)와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 질문내용에 대한 조사<sup>63)</sup>에서 설문응답자들에게 “조선족 대학생들의 우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름대로의 답을 적어보게 했다. 그 결과 “어려움을 잘 견딘다”, “문체활동을 즐긴다”, “컴퓨터를 잘 한다”, “반응이 민첩하다”, “총명하다”, “개방적이다”, “새 사물을 잘 접수한다(빠른 센스)”, “언어 우세가 있다”, “학습기초가 좋다”, “선생님을 존중한다”, “서로 단결한다”, “문명하다” 등등으로 무려 19가지 우세가 나타났다.

그중 “언어적인 우세가 있다”가 1위, “새 사물을 잘 접수한다”가 2위, “학습에 노력한다”, “총명하다”, “취직기회 많다” 등 세 가지가 공동3위에 올랐다. 역시 조선족의 전통적인 우세로 간주되던 ‘언어 우세’와 ‘빠른 센스’가 1, 2위를 점해서 정상적인 결과인 듯 했다.

하지만 부수적으로 새로운 문제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 1위인 ‘언어적인 우세’는 13명이 선택해 투표자 총수의 20%밖에 점하지 못하고, 2위인 ‘접수 능력’도 겨우 10명이 선택하여 응답자 총수의 16%에밖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바 우세는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득표수가 몇 개 주요한

---

63) 본 조사는 2005년 11월 19일 장춘에서 진행된 전국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제5차 이사회 및 제1차 조선족여성과학자학술회의 기간에 조선족 신문인 길림신문은 ‘조선족교육의 현황’이란 주제의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그중 ‘조선족대학생의 우세(강점)와 문제점’이라는 두가지 질문내용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길림신문 조사의 설문응답자는 64명, 대부분 전국의 여러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 박사, 전문가들과 학자들이다. 길림신문(심영옥 최승호 기자) 2006. 3. 24일자 기사 : 조선족 교육의 현황: 조선족대학생의 우세와 문제점-설문조사.

분야로 집중되지 못한 것은 현재 우리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우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절대적인 우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된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우세라던 조선족 대학생의 ‘언어 우세’마저도 현재 조선족 고급 두뇌는 별로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자에 전국적으로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면서 한국어에 정통한 타민족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우리의 언어적인 우세는 더는 취업경쟁과 생존경쟁에서 절대적인 우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어의 우세는 이제 진정한 우세가 아니라는 점이 또 다른 조사분석<sup>64)</sup>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북경에서 조선족이 대학교수로 취직하는 사람이 특이하게 많았는데 그것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즉 중국내 대학들은 몇 년 사이에 한국어학부와 한국 관련 연구기관들을 많이 설치하였기에 자연 그쪽으로 많이 취직이 된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39개 대학에서 한국어학부를 설치하였으며, 북경에만도 7개 대학에서 한국어학부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조선족 대학생들의 장차 취업 전망에 대해 재경 지성인들 중에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조선족 대학생들은 단지 언어적 우세(2개국어 가능)만으로도 취업경쟁에서 많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첫째는 한국인들의 대거 중국 진출이다. 한 대학교수는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은 20~30만 명 정도이지만 2010년쯤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중국어를 익힌다고 할 때 조선족 대학생들의 대 한국인 중국어 우세가 없어진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를 아는 타민족 대학생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 39개소 대학에서 설치한 한국어학부에 한 학교에 학생이 90명이라 쳐도 3,500명이 넘는다. 이들이 한국어를 익힌다고 할 때 조선족 대학생의 대 타민족 한국어 우세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조선족 젊은이들은 밥그릇 싸움에서 밀리고 만다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64) 이 자료는 2005년 4월 28일부터 8회 연계하는 요녕조선문보의 특집기획으로 여러 기자들이 학생들을 탐방조사한 것이다. 요녕조선문보(림금산 윤청 문운룡 기자) 2006. 4. 19 - 6. 9일자 기사 : 조선족대학생의 어제, 오늘과 래일(1-8).

다음으로 “새로운 사물에 대한 접수능력이 강하다(빠른 센스)”는 우세에 대해서도 고급 지식인들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개방적이다”, “컴퓨터 잘한다”는 역시 “사물에 대한 강한 접수 능력”에 포함되어 조선족이 센스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런 우세에 대한 득표수를 다 합해도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즉 빠른 센스 역시 강력한 경쟁력 있는 우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족 청소년들의 언어적 우세는 다른 분야 특히 취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출하지 못한 조선족 청소년들은 도시에서 취직을 못하는 상황에서 마침 청도 등 중국 연해지역에 1990년대 초 전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과 그 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취업은 비교우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우세 때문이었다. 이처럼 중국 연해지역은 이러한 고졸 취업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조선족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증견 간부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도 중졸 혹은 고졸의 학력을 가진 20대 전후 청년들이 여러 연결망을 이용하여 탈출과 희망을 꿈꾸며 연해지역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연해지역도시에서 높은 유동성을 보이는 소위 ‘문제집단’으로도 분류되고 있다. 이들 자신이 앞날에 대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는 가는 조선족사회의 미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박광성, 2006 : 52)

② 기타 “학습기초가 좋다”, “진실한 성격”, “예절바르다” 등이다.

그밖에 “학습기초가 좋다”는 우세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래도 우리 민족의 기초교육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성격”, “문체활동을 즐긴다”, “문명하다”, “예절바르다”, “서로 단결한다” 등등 우세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우세들을 제기한 응답자 수가 30%이상을 점했다. 이는 조선족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품과 민족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다행스럽

다고 지적하고 있다.

## (2) 조선족 대학생의 문제점

① 첫째 문제는 “중국어 표달능력 저조”이며, 둘째 문제는 “언어 센스(언어 접수능력)가 부족”한 것이다.

“조선족 대학생들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어 표달(表達=표현) 능력이 차(差)하다(떨어진다)”와 “언어 접수능력이 차하다”가 문제점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조선족 대학생들이 한국어는 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반면 나라의 주체언어인 중국어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족 대학생이 갖고 있는 언어 우세가 진정한 우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② 그릇된 생활방식과 습관의 문제

설문에서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적어보라”는 응답 결과에서는 놀랍게도 무려 총 23개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그야말로 ‘문제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16표로 총 응답자중 25%를 점한 문제가 바로 “그릇된 생활방식 또는 습관에 젖어 있다”, “과도한 음주, 흡연을 하고 있다”가 수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학습에 흥취(취미) 없다”와 “배움에서 진취심이 없다”가 각각 13표로 총 응답자중의 20%를 점하며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학술을 경시한다”, “석사, 박사공부를 하려는 욕망이 있는 학생이 적다”, “산만하다”가 각각 10표로 총 응답자중의 16%를 점하며 공동 3위에 머물렀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 외에 제기된 “놀고먹기를 좋아 한다”, “생활이 사치하다”, “게으르다” 등 생활방식과 습관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까지 포함시켜 본다면 그릇된 생활방식과 습관은 총 투표수의 40% 이상을 점한다. 이러한 불량한 생활방식과 습관은 단지 조선족 대학생들 문제가 아닌

조선족 기성세대들도 지금 크게 앓고 있는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 조선족 기성세대가 앓고 있는 문제들이 조선족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

공동 2위에 오른 “학습에 흥취 없다”와 “배움에 진취심이 없다”, 3위에 오른 “돈벌이에만 급급해 하고 학술을 경시한다”, “석사, 박사공부를 하려는 욕망이 있는 학생이 적다”는 문제와 “금전만능사상”, “아르바이트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들의 득표수를 합해보면 총 응답자중의 40% 이상의 조선족 대학생들이 ‘금전만능, 학문경시’사상에 젖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사결과<sup>65)</sup>에 의하면 조선족 대학생들의 ‘과소비’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한 달 평균소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소비차가 엄청나게 크고 양극화가 선명했다. 설문을 받은 대학생 중 10%는 300~500위안<sup>66)</sup>으로서 “빳빳이 살아간다”고 대답했고 37%의 대학생이 500~1000위안으로서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가 하면 11%의 대학생은 한 달에 1000~2000위안 소비함으로써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극소수의 일부 대학생들은 “한 달 소비에 상한선이 없다”고 대답해 말 그대로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대학생 소비는 주로 생활소비와 학습자료를 구매하는 두 가지 지출로 나눌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보면 조선족 대학생 생활소비중에서 ‘먹는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먹는 지출’은 한 달에 평균 300위안인데 이는 식당놀이(모여 먹는 회식)의 지출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모여 놀기 좋아하는 조선족 대학생들은 거의 달마다 한 두 번씩 모여 회식을 하며 노는데 ‘매번 회식에 1인당 평균 50위안’으로 조사되었다. 또 눈들이 높아 보통식당은 창피해 회피하고 적어도 중급식당을 선호하며 식사 후 노래방은 필수종목이고 이어 3차까지 진행한다. 설문조사에서 보면 ‘식당놀이’는 연변지역의 조선족 대학생들이 빈번한 편이고 이 방면에 지출되는 돈

65) 길림신문에서 2006년 3월 11일 장춘대학과 연변과학기술대학의 60명 학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길림신문(장춘영 기자) 2006. 3. 11일자 기사 : 조선족대학생 현상(1).

66) 이때의 중국 화폐 위안(元)과 한국 화폐(원)의 가치 비교는 1:140 정도이다. 그러므로 500위안(元)이라면 우리 화폐로는 60,000원 정도이다.

도 기타 지역에 있는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왔다.

셋째, 조사 중 거의 90%의 조선족 대학생이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대학생은 심지어 원래 핸드폰을 버리고 카메라가 달린 최신식의 제2세대 핸드폰으로 갱신하였다. 핸드폰 소비는 한 달에 평균 50~70위안이다. 조사된 조선족 대학생이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핸드폰, 디지털카메라는 거의 모두 외국의 유명브랜드가 일색을 이루고 있었다. 유행을 따르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빌려가며 심지어는 돈을 훔쳐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현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65%의 대학생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MP3는 거의 95%의 학생이 가지고 있다.

넷째, 설문조사에서 보면 연애 중에 있는 대학생은 매달 다른 학생에 비해 평균 200~300위안 지출이 더 나간다. 연애지출은 주로 식사, 시내구경, 간식, 오락활동에 많이 쓰는데 그 중 선물 소비는 연애 소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성탄절,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각자의 생일날에는 모두 선물을 주고받는데 적으면 몇 십 위안 많으면 몇 백 위안 심지어 몇 천 위안까지도 쓴다. 대학생들의 관념상 설 명절이나 보름보다도 서양의 성탄절 그리고 발렌타인데이가 제일 중요한 명절로 되고 있고 소비도 이 날에 집중된다.

그러면 조선족 대학생들의 과소비 후유증과 그 해결책에 대한 조사결과는 우선 설문조사 중에서 조선족 대학생들은 자기들의 소비가 과소비인 점과 그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대학생 본인이 가정경제 부담을 과중시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편 대학생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관건 시기에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중 심각한 문제는 연변교육학원 장동경 교수가 “과소비는 조선족대학생들의 경쟁력과 생존력이 저하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가정조건이 괜찮은 대학생은 부모들의 지나친 사랑으로 자기생존 발전능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학생들의 과소비와 호화소비의 비이성적인 태도방식이 생성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족 대학생은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한국으로 취업하러 나간 상황이고 부모들은 자식 곁에서 자식을 돌보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돈으로 보상하려는 생각이 우리 조선족 대학생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성장에 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길림대학 김중손 교수는 “대학생 과소비는 근원으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놓고 있다. “조선족 대학생들의 과소비현상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 가정뿐만 아니라 전 사회각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 대학생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원으로부터 찾아보아야 한다. 우리 조선족 대학생들을 볼 때 대학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 연구생(대학원생을 말하며 이하 대학원생으로 표기, 여기서는 뒤와 구분하여 석사과정 학생임), 박사생중 조선족의 비율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적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조선족 대학생이 학교에 와서 중점을 학습에 두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길림대학의 조선족 본과생을 예로 볼때, 진취심이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요구가 낮으며 향락을 중시하고 사치풍이 심하다. 이는 사회에 부는 사치와 낭비풍조의 영향과도 관계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외부 요인보다 학생들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을 돌려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학습에 관점을 돌리고 분발, 진취의 정신과 근검과 소박한 정신을 고양시켜야 한다.”

또한 길림대학 경제학원 4급 보도원 위연령 교원은 “소비 및 재산 관리방식에 대한 인도가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생들은 소비를 자신과 타인의 차별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기제로 삼고 있으며 개성추구와 유행추적, 충동적 소비, 향수적 소비 등 특징을 가진 소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대학생들 상대로 한 대학생 소비 인도 및 재산관리방식 좌담회와 같은 전문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재경(북경) 조선족 대학생들을 탐방 조사한 결과<sup>67)</sup>도 앞의 과소비 실태와 유사하다. 대학생들의 매달 ‘용돈’사정을 조사한 바로는 재경 대학생들 중에서 매달 용돈 500위안은 빈곤선, 매달 1,500위안 내지 2,000위안은 부요한 수준으로 통하고 있었다. 실제로 취재팀이 만난 학생들의 매달 용돈 수준은 700위안에서 1,200위안 사이였다. 용돈의 사용처는 일상생활용품 구매 외에

67) 요녕조선문보 2005. 4. 19일자 기사 : 조선족대학생들의 어제, 오늘과 래일(1)-상경 조선족대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대체로 참고서를 사든가 파티에 이용되었다. 극히 개별적인 학생이 대학입학 반 년 내에 1만 위안을 낭비했다는 일례도 있긴 하였지만 “조선족 대학생들, 공부는 안하고 술이나 피마시고 가라오케나 드나든다”는 말은 이미 옛말, 살아남기를 포기한 상태라면 몰라도 그들에게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취재팀이 학생들을 만났던 시간은 전부 저녁식사 시간을 전후한 1, 2시간, 얘기가 끝나면 그 길로 곧장 교실로 달려갔다. 저녁자습이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저녁에도 정식 교수시간이 배치되어 있었다. 참으로 눈 코 뜰 새 없는 학교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물론 조선족 학생들이 타민족 학생들보다 파티기회도 많고 체질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취재팀이 만난 학생들(남녀 포함)도 맥주를 곧잘 마셨다. 그러나 과거에는 파티라면 일단 술이 위주였다면 지금은 파티장이 정보교류의 장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모임을 빙자해서 먹고 노는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술을 ‘미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매달 1,000위안 정도의 생활비는 어디에서 오는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에서 보내주는 돈을 쓴다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집에서 주는 돈에 스스로 벌어서 보태 쓴다(아르바이트)는 학생도 많았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활 1년 이상인 학생은 거의가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었다. 아르바이트로 종사하는 업종은 중한, 한중, 중일, 일중 통역 및 번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정교사, 소수이긴 하지만 어느 회사를 도와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동기는 가정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사회경험을 쌓고 앞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라고 답하였다. 일감 선택은 스스로가 찾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수는 학교 ‘동족회’에서 알선하거나 선배가 후배에게 알선해주는 등 체계가 있었다. 아르바이트로 해서 학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물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 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 ③ 학문경시, 이중언어 교육과 민족교육의 문제

그외 별도로 진행한 “현재 조선족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조선족 대학생들이 장원(원대)한 포부가 없이 일시된 많은 취직에만 골몰하는 문제”가 53표(84%)가 나와 1위, 2위는 “조선족 대학생들이 학문을 경시하는 문제”가 36표(57%) 등으로 나왔다.

여기서 조선족 대학생들에게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문경시와 금전만능’사상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대학생은 바로 학문을 닦고 인성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조선족 대학생들이 ‘학문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참으로 조선족의 미래가 걱정되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어 표달 능력이 차하다”와 “언어 접수능력이 차하다”는 문제는 현시대에 필요한 ‘경쟁력’과 ‘적응력’인 언어에서의 열세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민족교육이 탐구하고 있는 이중 언어 교육의 절박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족교육과 관련한 길림신문의 취재기사에는 역시 ‘민족교육’은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민족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민족감정과 민족자부심 부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조선족 기초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조선족 기성세대가 새 세대에게 꼭 제대로 남겨주어야 할 과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68)</sup>

## 2) 북경 조선족 대학생의 현황과 학업 성취도

### (1) 조선족 대학생의 규모와 학업 실태

조선족 대학생의 고유한 교육열 전통과 높은 대학 진학률은 중국 전역에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소수민족 가운데 교육열과 그 성취도가 가장 높은 민족임이 틀림없다. 재경(북경) 대학에 진학한 조선족 대학생들의 통계와 그 학업실태를 조사한 자료<sup>69)</sup>는 비록 북경에 한정됐지만 이른바 최고의 일류대학들이 모여

68) 길림신문(심영옥 최승호 기자) 2006. 3. 24일자 기사 : 조선족대학생들의 우세와 문제점.

있는 중국 수도권의 조선족 대학생들의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에 재학하고 있는 조선족 대학생들은 장차 조선족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때 본 조사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4월 현재 북경의 여러 대학들에 재학 중인 조선족 대학생수는 중국조선족 대학생들과 조선족 젊은이들이 온라인상으로 결성한 민간공인단체-중국조선족학생센터(KSC)<sup>70)</sup>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일부 상황을 알 수 있다.

현재 북경대학, 청화대학을 포함한 재경 15개 중점대학에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 학년급의 조선족 학생수는 총 926명이다.<sup>71)</sup> 그중 졸업학년(2004년)학생수는 135명이고 새로 입학한 학생수는 165명,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대학원과정 수료중인 대학생은 10개 중점대학에 총 52명이었다.

재교생수는 중앙민족대학이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경대학이 111명으로 두 번째, 청화대학이 83명으로 세번째를 이어 북경립업대학(75), 북경리공대학(67), 북경교통대학(66), 북경사범대학(51)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경우 중앙민족대학(15명), 북경공업대학(8명), 북경중의약대학(7명), 북경인민대학, 북경항공항천대학(각각 5명), 북경대학(4명), 청화대학(3명)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녕적(籍) 학생수의 경우 민족대학에서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

69) 요녕조선문보 2005. 4. 22일자 기사 : 조선족대학생들의 어제, 오늘과 래일(2)-조선족학생들의 “신경중추”-KBC.

70) KSC는 중국조선족학생센터의 영문(Korean Student Center) 약칭으로 2000년 11월 19일 설립되었다. KSC는 중국조선족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온라인상으로 결성한 민간공익성단체로서 2001년 12월부터 중국조선족과학기술사업자협회에 귀속되어 이 협회 청년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KSC는 설립된 이래 시중 뚜렷한 공익성을 견지하며 민족진흥 등 방면에서 일련의 유익한 일들을 해왔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도 조선족대학생 축구시합도 그중 하나였다. 북경대학, 청화대학, 인민대학 등 10여개 대학들 중에서 1명씩 선출하여 운영진을 두었고 한편 KSC를 총괄하는 운영진외에 각 학교마다 또 책임자를 두고 수시로 연계를 취하며 활동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다.

71) 북경시의 인구통계는 엄격하기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 하에서, 북경시의 조선족인구는 1982년의 3,905명에서 1990년에는 7,71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조선족대학생과 이들에 의한 직장인 증가로 판단하고 있다(박광성, 2006: 44).

학생 300명중(최근 년간) 요녕학생은 50명 정도로 1/6을 차지하였고 칭화대학에서는 총 87명중 요녕학생은 10명으로 약 1/9을 차지하여 3개성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족 대학생의 인구당 비례는 매우 낙관적이다. 중국의 최고학부 북경대학과 칭화대학의 현재 재학생 총수는 약 15,000명이다. 이 두 학교의 조선족 학생을 평균 200명으로 볼 때, 한족 학생(타민족 포함)은 14,800명으로 전체 인구(약 13억 명) 약 88,000명당 1명꼴로 약 0.001%를 차지하고, 조선족 학생은 조선족 인구(200만 명) 약 10,000명당 1명으로 0.01%를 차지하여 인구당 대학 입학률은 타민족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다.

재경 조선족 대학생들의 생활상을 취재하기 위해 만난 대학생들은 신입생이나 선배나 하나같이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그들은 취재팀의 질문에 전혀 당황하거나 수줍음이 없이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였고 자신의 관점이 명확했으며 사유나 표달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였다.

우선 재경 조선족 대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완벽한 조직기구가 있어 학업에 시간이 쫓기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조선족학생센터’였다. 조선족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온라 인상으로 결성한 이 민간공익단체(재학중인 학생들이 운영)는 중국조선족과학기술사업자협회에 귀속되어 있는데 현재 15,000여명의 회원을 확보(전국의 조선족 대학생, 중·소학교생, 사회청년들은 누구나 회원가입 가능)하고 있고 명실공히 재경 조선족 대학생들의 활동중심이 되어 있다.

이 센터가 재경 조선족 대학생들의 ‘중앙기구’라면 그 산하에 대학들에는 ‘동족회’가 있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곤 한다. 재경 대학들 중 이런 동족회를 결성하기는 조선족이 유일하여 기타 민족의 학생들이 조선족은 단합이 아주 잘된다고 부러워하고 있다.

조선족 대학생들은 4년간의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 취재팀은 이미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즉 대학생활은 ‘4부곡’이었다. 다시 말하면 1학년에서는 갈팡질팡, 2학년에서는 방황, 3학년에서는 목표형성, 4학년에서는 성숙기로 요약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4부곡’에

공감을 표시했다. 취재팀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대학 1, 2학년 때 마음을 굳게 잡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지내다가 졸업이 임박해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고 후회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대학 1, 2학년 때 흥청망청하다가 학업이 딸려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소수이지만 분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팡질팡하고 방황하는 것은 어차피 거쳐야 할 고비이지만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야 한다면서 그러자면 고교시절부터 독립생활 능력, 자아판단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다.

## (2) 조선족 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

조선족 대학생들의 졸업성향은 어떠한지 취재팀이 재학중인 대학생 20여 명을 상대로 졸업후 취업, 대학원 입시, 외국유학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거의 80%가 대학원을 지망했고 취직과 외국유학은 각각 10% 정도 차지하였다. 중앙민족대학의 유관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불과 3~4년 전만 해도 거의 70%가 압도적으로 취직을 지망했고 20%정도가 대학원 지망, 10%정도가 외국유학을 지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도가 바뀌어 취직과 대학원 지망자가 반반을 차지한다면서 이는 바람직한 구도변화라고 덧붙였다.

이런 구도변화의 원인을 따져보면 역시 시장경제원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북경 모모 대학을 졸업한 조선족이라면 취업분야도 넓었고 취업기회도 많았다. 그것은 조선족 학생이라면 보통 4개 국어(중, 한, 일, 영)를 구사할 수 있기에 한국 관련 업체, 일본관련 업체의 취직에서 유리했다. 그러나 불과 몇 해가 지난 지금 대학졸업증만으로는 취업기회도 적어졌지만 설사 취업을 한다해도 대학원 졸업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그래서 대학원 지망자가 늘어나고 취직했다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단 진정 학문을 하기 위한 대학원 지망자는 너무 적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취업성향은 어떠한지 취재팀이 이미 졸업하여 취직한 공직자 10여명을 통해 조사한 결과는, 기업으로의 취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

학교수, 기관단체, 언론기관 순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적인 표현일 뿐 실제 지방 1순위는 안정적인 국가기관인데 그쪽은 취업기회가 너무 적어 아예 희망을 걸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북경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취직하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대답이었다.

특히 요녕성 학생들의 상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요녕성 학생들은 중국어에서는 본 민족에 못 미치고 우리말에서는 길림, 흑룡강성에 못 미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실제로 길림, 흑룡강성에서 온 학생들과는 우리말로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되었지만 요녕성에서 간 학생들은 중국어에 더 익숙해 있었다. 그렇다고 연변을 제외한 길림, 흑룡강 학생들보다 중국어에서 별로 우세인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도 시인하였다. 그리고 말하는 것에서는 한족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일단 문장력에 들어가면 그 차이가 곧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선족 대학생들의 우세가 언어였다면 차이점도 역시 언어에서 나타났다. 즉 중국어 능력이었다. 모 대학교 교수의 소개에 의하면 극소수이긴 하겠지만 일부 조선족 대학생은 숙제도 중국어로 하지 못해 우리글로 쓴 다음 제3자를 통해 번역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에서는 내부적으로 자기 민족언어로 대학입시를 친 학생은 받지 말도록 한다고 한다(물론 이는 불법임). 비록 그 학교의 조치는 황당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리고 조선족 대학생의 경우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자기과시에 너무 인색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다. 그 원인은 자신의 언어 표달 능력에 자신감이 없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과시에 익숙지 않다는 점이다. 고교시절까지 내내 진학과 대학입시를 위해 수동적인 위치에서 학업에만 매달리다보니 자아를 인식할 겨를도 없고 발표할 기회도 없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모교라 함은 고교를 일컫는 말이요, 민족교육이라 함은 사실상 초중고교 교육을 말한다. 취재팀은 대학생들이 모교에 대한 바램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들은 비록 요녕적 학생들을 위

주로 조사한 것이지만 조선족 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① 입시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 각자 적성에 맞는 서클활동을 많이 조직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② 입시과목이 아닌 기타 과목에 대한 수업을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즉 교양지식면을 넓혀주길 바라는 것이다.
- ③ 외국어 교수에서 가능한 한 영어, 일어를 모두 설치하되 영어반, 일어반이라 묶지 말고 학생들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④ 말하기 훈련을 강화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학생 스스로 출로를 찾아야 하므로 무엇보다 말로써 자신의 가치를 홍보해야 하는데 조선족 학생들은 이 점에서 많이 뒤처진다는 게 그 이유다.<sup>72)</sup>

### 3) 조선족 교육에 대한 과제

이 조사내용은 요녕조선문보가 2005년 6월 조선족 대학생 특별취재의 결론 부분으로 재경(북경) 조선족 교수들이 “조선족 사회와 조선족 교육”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그 문제점 위주로 취합된 자료이다. 이 좌담회 토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시장경제시대에 맞는 민족 생존교육이 돼야 한다.

지금 동북3성을 볼 때, 농촌에서 학교가 무더기로 문을 닫고 동네가 유명 무실해 지는 현상을 두고 조선족 사회가 해체된다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조선족 사회가 아직 농경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교수들은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농경문화에서 도시 문화에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에 처해있다면 이 이러한 과도기에 심양(沈陽)의 ‘서탑코리아타운’ 조성과 ‘만용조선족중심촌’ 건설 같은 새로운 집거지 조성은 바람직하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옛날 처럼 울타리만 지키며 우리말과 습관을 지키는 것이 민족의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민족의 진로를 두고 고심해야 할 때이며 조선족의

72) 요녕조선문보(림금산 기자) 2005. 6. 3일자 기사 : 조선족대학생의 어제, 오늘과 래일(끝)-조선족교육에 생존교육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생존능력을 키우는데 진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경제 속에서 조선족이 살아남자면 민족의 선진성을 극대화해야 하고, 도시문화권속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남을 때만이 조선족은 진정 생존이 가능하다고 교수들은 강조하고 있다.

좌담회에서 교수들은 사회가 바뀌고 우리 민족의 생존구도가 바뀐 만큼 우리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입시교육으로부터 생존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소학교 단계에서부터 대학입시까지 입시공부에만 매달려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은 빛을 볼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 교육이 시장경제시대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 시대에 순응하려면 생존교육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 교수들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조선족 대학생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그런대로 언어의 우세를 가지고 직업을 찾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야말로 실력으로 한족 그리고 모국의 한국인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문화엘리트도 양성해야겠지만 경제엘리트양성에 진력해야 한다고 교수들은 강조하고 있다.

## (2) 언어적 우세를 살려야 한다.

좌담에서 대학교수들은 언어에 대해 많은 논의 시간을 가졌는데, 즉 조선족 학교에서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 교수를 각각 어떤 위치에 놓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었다. 교수들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혼용을 주장하나 교수들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이것이 앞으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족어도 중요하지만 현지의 중국어를 잘해야 하고 일본어도 바람직하지만 영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3) 교육을 살리려면 교원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 교육을 살리려면 우선 교원 관리와 대우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우려의 첫째는 조선족 중학교 교원들은 대부분 당지나 외지 사범학교 졸

업생들로 충당된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사범학교에 가는 학생자체가 학급에서는 중하등생이 대부분이고 소위 우수생들은 사범학교를 외면하고 있다. 또 사범 생중에서도 교직을 떠나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우려는 정부차원에서 아직은 중·소학교 교원에 대한 대우가 그리 높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 교원들이 경제적 이익에 끌려 중도하차하여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교원 유실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셋째 우려는 이런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금 조선족 교원들의 사기는 많이 저하돼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원들의 자질이 떨어지고 이것은 그대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발표자료에 의하면, 연변대학에서 실시한 취업박람회에서 외자기업 부스에는 인원이 넘치지만 교사를 모집하는 부스에는 한산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초봉을 비교하면 교사는 월 1,500위안 정도이며 외자기업 직원은 2,000위안 정도로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교사를 회피하는 현상은 실리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성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20~30대 교사를 매우 부족하게 만들어 결국 조선족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sup>73)</sup>

요컨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은 우선은 정부에서 교육에 대한 자금 투자를 늘리고 교원에 대한 대우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은 학교자체가 교원들의 종합자질 제고에 힘을 모으고 경쟁기제를 도입하여 우승렬태(優勝劣汰)하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일정 범위 내에서 타민족의 우수한 교원들을 영입하여 새로운 교수환경을 마련해보는 것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조선족 자신들이 민족의 사명감을 안고 우리 교육을 도시문화환경에 적응시키도록 변화를 꾀하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좌담참가자들의 바람이었다.<sup>74)</sup>

73) 온bao 연변(2006). 조선족 교육 붕괴 위기, 대학생 “선생질 NO”.  
<http://www.onbao.com>(2007. 7. 12).

74) 요녕조선문보(림금산 기자) 2005. 6. 3일자 기사 : 조선족대학생의 어제, 오늘과 래일(끝)-조선족교육에 생존교육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 Ⅲ.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사항
2.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양상
3.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 Ⅲ.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사항

<표 III-1>은 조사대상자의 신분 및 성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고등학생이 480명으로서 전체조사대상자 중에 59.3%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생이 40.7%를 나타내고 있어서 고등학생의 분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성별로는 남학생이 36.6%를 나타내고 있고 여학생이 63.4%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신분 및 성별 분포

신분	빈도	%	성별	빈도	%
고등학생	480	59.3	남학생	296	36.6
대학생	330	40.7	여학생	512	63.4
합계	810	100.0	합계	808	100.0

<표 III-2>는 조사대상자의 현거주지 및 출생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본 조사는 중국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5개 지역을 선정하였는데 이 지역은 중국의 조선족자치주로 선정된 연변지역, 북경, 산둥성, 요녕성 및 기타지역으로 분류되었는데 기타지역에는 흑룡강성과 상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자의 현 거주지 분포는 연변지역이 39.1%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요녕성(25.8%), 기타지역(18.1%), 북경(10.0%) 및 산둥성(6.9%)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 조사대상자들의 출생지는 현 거주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출생지 분포는 연변지역이 55.7%로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요녕성(23.5%) 및 흑룡강성(19.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출생지분포는 대부분의 중국 조선족들이 동북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 정착하였다

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I-2> 조사대상자의 현거주지 및 출생지 분포

현 거주지	빈도	%	출생지	빈도	%
연변자치주	317	39.1	연변자치주	443	55.7
북경	81	10.0	요녕성	187	23.5
산둥성	56	6.9	흑룡강성	154	19.4
요녕성	209	25.8	기타지역	11	1.4
기타지역	147	18.1	합계	795	100.0
합계	810	100.0			

<표 III-3>은 조사대상자가 현재 중국에 온지 몇대 째인가와 가족 중에서 최초로 중국에 이주해 온 사람이 누구인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현재 중국에 온지 몇 대 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30.5%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세대 째(29.3%), 4세대 째(28.8%)로서 나타나서 현재 중국 조선족의 대부분이 3세대 째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중에서 최초로 중국에 이주해 온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모르겠다는 응답이 42.4%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증조할아버지(29.4%) 및 할아버지(24.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 조사대상자의 세대와 최초중국이주자의 분포

세대	빈도	%	최초중국이주자	빈도	%
1-2 세대	79	11.4	증조할아버지	232	29.4
3 세대	204	29.3	할아버지	193	24.4
4 세대 이전	201	28.8	기타	30	3.8
모르겠음	212	30.5	모르겠음	335	42.4
합계	686	100.0	합계	790	100.0

<표 III-4>는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민족배경과 가족 중에서 최초로 중국에 이주한 사람의 고향과 이들이 최초로 이주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본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부모의 대부분(96.3%)이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족 중에서 최초로 중국에 이주한 사람의 고향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모르겠다는 응답이 58.0%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향을 안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에는 남한과 북한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중에서 최초로 이주한 지역이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연변자치주를 포함한 길림성이 역시 55.7%로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요녕성(19.7%) 및 흑룡강성(18.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4〉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민족배경과 최초중국이주자의 고향과 최초이주지역의 분포

부모민족배경	빈도	%	고향	빈도	%	최초이주지역	빈도	%
부만 조선족	19	2.4	남한	169	22.0	길림성 (연변자치주)	425	55.7
모만 조선족	10	1.3	북한	154	20.0	요녕성	150	19.7
부모 조선족	759	96.3	모르겠음	446	58.0	흑룡강성	143	18.7
합계	788	100.0	합계	769	100.0	기타지역	45	5.9

## 2.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양상

다음은 조선족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생활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표 III-5>은 조선족 청소년이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가에 관한 거주관계를 소개하고 또한 이들의 종교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와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응답이 33.9%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혼자서 거주한다는 응답이 24.8%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어머니와 같이(12.3%), 아버지와 같이(9.1%), 영제자매가 같이(3.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77.9%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에는 기독교가 전체응답자의 8.4%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불교(2.6%), 천주교(2.2%), 유교(0.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슬람교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조선족 청소년의 거주관계와 종교 분포

거주관계	빈도	%	종교	빈도	%
혼자	198	24.8	기독교	64	8.4
부모	271	33.9	불교	20	2.6
부와같이	73	9.1	천주교	17	2.2
모와같이	98	12.3	유교	4	.5
형제자매	27	3.4	이슬람교	1	.1
기타	132	16.5	무종교	592	77.9
합계	799	100.0	기타	62	8.2

<표 III-6>는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학력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아버지의 학력을 보면 27.4%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22.9%에 이르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30.9%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학 졸업 이상은 15.5%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를 보면, 어머니의 경우만 보더라도 70% 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의 매우 높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조선족이 중국내에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6>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학력 분포

학교	부의 학력		모의 학력	
	빈도	%	빈도	%
초등학교	23	2.9	30	3.8
중학교	195	24.5	215	27.1
고등학교	363	45.7	390	49.2
대학중퇴	17	2.1	11	1.4
대학졸업	165	20.8	118	14.9
대학원	13	1.6	5	.6
기타	19	2.4	24	3.0
합계	795	100.0	793	100.0

<표 III-7>는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직업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본인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한 응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응답자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생산 및 관련산업종사자가 1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자영업(15.9%), 전문직(15.0%), 농업 및 임업(10.7%), 사무직(9.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가정주부가 18.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전문직(15.8%), 생산 및 관련산업종사자(11.2%), 자영업(10.6) 및 서비스직(9.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앞으로 본인은 어떠한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의 현 직업의 경우와 달리 무려 42.4%의 응답자가 전문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무직(24.6%), 고위관리직(19.5%), 자영업(3.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이나 생산 및 관련산업종사자를 희망하고 있는 응답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7>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직업 및 본인의 희망직업 분포

직업	부의 직업		모의 직업		본인의 희망직업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문직	118	15.0	124	15.8	338	42.4
고위관리직	42	5.3	14	1.8	156	19.5
사무직	77	9.8	41	5.2	196	24.6
자영업	125	15.9	83	10.6	25	3.1
판매종사자	39	5.0	46	5.9	12	1.5
서비스직종사자	32	4.1	72	9.2	15	1.9
농업, 어업, 임업	84	10.7	58	7.4	0	.0
생산 및 관련종사자	128	16.3	88	11.2	3	.4
가정주부	2	.3	143	18.2	3	.4
무직	64	8.1	50	6.4	2	.3
기타	75	9.5	66	8.4	48	6.0
합계	786	100.0	785	100.0	798	100.0

<표 III-8>은 조선족 청소년 가족의 가족수입 수준을 보여주고 또한 이 수입이 이웃 및 나라 전체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다수인 75.0%는 그저 그렇다 라고 답하고 있으며 넉넉하다는 응답과 부족하다는 응답의 분포가 비교적 균형적인 정상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들의 소득수준을 이웃과 비교해보면, 소득수준의 분포와 유사한 형태의 정상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나 나라 전체와 비교해 볼 때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8> 조선족 청소년 가족의 가족수입수준 분포와 수입수준 비교

항목	빈도	%	항목	이웃비교수입		나라비교수준	
				빈도	%	빈도	%
매우 부족함	17	2.1	매우 낮은 편이다	14	1.7	25	3.1
약간 부족함	82	10.1	비교적 낮은 편이다	99	12.2	176	21.8
그저 그렇다	607	75.0	보통이다	595	73.5	534	66.2
약간 넉넉함	97	12.0	비교적 높은 편이다	99	12.2	69	8.6
매우 넉넉함	6	.7	매우 높은 편이다	3	.4	3	.4
합계	809	100.0	합계	810	100.0	807	100.0

앞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의 이민 역사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선조에 대해서 잘 모를 정도로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동화되기가 쉬워진다.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어느 정도 중국사회에 동화되고 있을까? 중국사회에 동화되고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족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에 관한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III-9>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절대다수인 95.8%가 조선족 초등학교(소학교)를 다녔고 94.6%가 조선족 중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9〉 조사대상자의 소(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분포

소(초등)학교	빈도	%	중학교	빈도	%
조선족학교	768	95.8	조선족학교	759	94.6
한족학교	28	3.5	한족학교	42	5.2
기타	6	0.7	기타	1	0.1
합계	802	100.0	합계	802	100.0

조선족 청소년들이 중국사회에 동화되고 있는 또 다른 지표는 이들이 평상시 주로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이들이 어떤 민족의 친구들과 사귀는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들은 국적상 중국인이어서 당연히 중국어를 일상 언어로 쓸 것으로 여겨졌으나 <표 III-10>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27.5%만이 중국어를 일상 언어로 쓰고 있고 다수인 67.4%는 한국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민족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절대 다수인 94.4%가 조선족이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조선족으로서의 결집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0〉 조사대상자의 일상언어

일상언어	빈도	%
중국어	218	27.5
한국어	535	67.4
기타	41	5.2
합계	794	100.0

<표 III-11>은 조선족 청소년의 민족지향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민족지향은 가장 친한 친구와 이성 친구가 어느 민족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한 결혼상대로 어느 민족의 배우자를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살펴보고 있다. 먼저,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민족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절대 다수인 94.4%가 조선족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 이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응답자 가운데 62.1%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응답자의 이성 친구 가운데 85.8%는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74.9%는 앞으로 결혼상대로 조선족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세 경우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조선족 청소년들의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적인 결집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조선족 청소년의 민족지향 분포 (%)

민족	친한친구 민족	이성친구 민족	결혼상대 민족
조선족	94.4	85.8	74.9
기타중국인	4.3	10.8	7.9
한국인	.1	.4	2.0
기타	1.1	3.1	15.2
합계	100.0	100.0	100.0

### 3.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표 III-12>는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거의 반수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응답자의 15.0%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만족하다는 응답률이 34.7%인데 반하여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률은 15.8%이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8%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하여 질문해 본 결과 전체응답자의 평균만족도 점수는 79.9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2>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항목	빈도	%
전혀 만족 못함	23	2.8
만족 못함	128	15.8
보통	256	31.6
만족함	281	34.7
매우 만족함	121	15.0
합계	809	100.0

<표 III-13>은 응답자가 답한 생활만족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가족수입수준 변수와 출생지역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조선족 청소년들에게는 나이, 학생신분, 성별, 종교 유무, 주거형태, 이성친구 유무, 현재 주거지역 등이 생활만족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3> 생활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P
가족수입수준	4.639	.000
나이	-.332	.473
남학생(여학생=0)	-.302	.777
대학생(고등학생=0)	-2.757	.248
유종교(종교 없음=0)	-.944	.432
독거(가족과 같이=0)	.149	.907
이성친구 있음(없음=0)	-.760	.468
현거주지역 연변(기타지역=0)	-1.330	.307
연변출생(기타지역=0)	5.391	.000
(상수)	71.752	.000



## IV.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인식

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일반적 인식
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
3. 한국에 대한 인식에 관한 교차분석



## IV.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인식

### 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일반적 인식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북3성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조선족들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비교적 많은 교류가 있었으며 한국과는 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으면서 한국과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조선족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앞으로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표 IV-1>은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느낌과 인상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응답자의 72.8%가 한국에 대해서 느낌이 좋다고 답하고 있고 22.0%는 매우 좋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8.0%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이 능력이 있고, 활동적이며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의 74.0%가 한국이 능력이 있다고 답하고 있고 22.9%는 매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1%에 지나지 않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81.0%가 한국이 활동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40.4%는 매우 활동적이라고 답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 활동적이지 않다는 응답률은 4.7%에 지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밀도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8.8%가 한국은 친밀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1.1%는 매우 친밀하다고 답하고 있다. 친밀도에 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빈도, %)

항목	한국 느낌 좋음	한국 능력 있음	한국은 활동적임	한국은 친밀함
매우 그렇다	174(22.0)	180(22.9)	317(40.4)	244(31.1)
약간 그렇다	401(50.8)	401(51.1)	319(40.6)	296(37.7)
어느 쪽도 아니다	152(19.2)	141(18.0)	112(14.3)	153(19.5)
별로 그렇지 않다	48 (6.1)	53 (6.8)	27 (3.4)	66 (8.4)
전혀 그렇지 않다	15 (1.9)	10 (1.3)	10 (1.3)	26 (3.3)
합계	790(100.0)	785(100.0)	785(100.0)	785(100.0)

## 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

다음은 조사대상자들인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며 그 외에도 한국관련 지식, 한민족 문화 이해정도, 한국어가 유리한지 여부 및 한민족배경 도움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표 IV-2>는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뉴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뉴스에 대해서는 29.6%가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응답은 6.6%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응답자의 19.8%는 한국뉴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10.0%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표 IV-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 관심

항목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81	10.0
별로 그렇지 않다	160	19.8
보통이다	322	39.8
대체로 그렇다	193	23.0
매우 그렇다	53	6.6
합계	809	100.0

<표 IV-3>은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일 전반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족 청소년은 한국일 전반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24.6%는 한국일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27.1%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하고 있어서 과반수가 한국일에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일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표 IV-3>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일 관심

항목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98	24.6
별로 그렇지 않다	218	27.1
보통이다	218	27.1
대체로 그렇다	132	16.4
매우 그렇다	38	4.7
합계	804	100.0

<표 IV-4>는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과 관련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응답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은 한국과 관련된 지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응답자의 15.3%는 한국과 관련된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고 있고 26.4%는 한국과 관련된 지식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24.9%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IV-4>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지식

항목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23	15.3
별로 그렇지 않다	213	26.4
보통이다	269	33.4
대체로 그렇다	138	17.1
매우 그렇다	63	7.8
합계	806	100.0

<표 IV-5>는 조선족 청소년이 어느 정도 한민족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7.9%는 한민족문화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24.0%는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하여 응답자의 31.9%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한민족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응답자의 23.2%는 한민족문화를 별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표 IV-5>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문화 이해

항목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37	4.6
별로 그렇지 않다	150	18.6
보통이다	362	44.9
대체로 그렇다	194	24.0
매우 그렇다	64	7.9
합계	807	100.0

위의 <표 IV-2>에서부터 <표 IV-5>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그리 높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오랜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 그 후손들인 청소년들이 선조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관심을 가질 기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도 한국어가 본인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나 한민족배경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표 V-6>을 보면, 전체응답자의 60.3%가 한국어가 유리하다고 답하고 있는데 24.5%의 응답자는 한국어가 본인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답하고 있다. 한국어가 유리하지 않다는 응답은 13.6%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IV-6〉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어 유리 여부

항목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46	5.7
별로 그렇지 않다	64	7.9
보통이다	210	26.0
대체로 그렇다	289	35.8
매우 그렇다	198	24.5
합계	807	100.0

〈표 IV-7〉은 조선족 청소년에게 한민족배경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들은 한국어가 본인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한민족배경이 본인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응답자의 40.6%는 한민족배경이 대체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고 15.0%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한민족배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7%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IV-7〉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배경 도움

항목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29	3.6
별로 그렇지 않다	73	9.1
보통이다	256	31.8
대체로 그렇다	327	40.6
매우 그렇다	121	15.0
합계	806	100.0

### 3. 한국에 대한 인식에 관한 교차분석

앞에서 보면,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인상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에 대한 인식은 변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 IV-8>은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신분, 성별, 현 거주지 및 출생지에 따른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분에 따른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고등학생들보다는 대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과 인상에 대해서는 대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의 경우가 더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한국을 잘 모르고 관심이 적은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더 호의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다른 변수에 비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한국뉴스와 한국 일에 대한 관심 및 한국어가 유리하다는 인식은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8>을 보면, 현 거주지나 출생지 등 지역변수가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현 거주지에 따른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관련 지식이나 한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가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어가 유리하다는 입장과 한국에 대한 제반 느낌이나 인상은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은 조선족 청소년의 출생지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게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뉴스나 한국 일에 대한 관심, 한국관련 지식이나 한민족문화의 이해도 등에 있어서는 출생지가 연변인 청소년의 경우가 기타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가 유리하다는 입장과 한국에 대한 제반 느낌이나 인상은 기타지역에서 출생한 청소년의 경우가 연변에서 출생한 청소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8>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

(\*:  $p \leq 0.05$ , \*\*:  $p \leq 0.01$ )

항목	신분	성별	현 거주지	출생지
한국뉴스관심	** (+)	* (+)		** (-)
한국일 관심	** (+)	* (+)		** (-)
한국관련 지식	** (+)		* (-)	** (-)
한민족 문화 이해	** (+)		** (-)	** (-)
한국어 유리여부	** (+)	* (+)	** (+)	** (+)
한민족배경 유리				** (+)
한국 느낌 좋음	** (-)		** (+)	** (+)
한국 능력 있음		* (-)	** (+)	** (+)
한국은 활동적임	* (-)		* (+)	** (+)
한국은 친밀함	** (-)		** (+)	** (+)

신분: 고등학생 vs 대학생

성별: 남학생 vs 여학생

현 거주지: 연변자치주 vs 기타지역

출생지: 연변자치주 vs 기타지역



## V.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

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인상
2.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교차분석
3.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일원 자부심 정도



## V.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

### 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인상

앞에서는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에 알아보려고 한다. <표 V-1>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과 인상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적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인 52.1%가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응답률은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이 좋다는 응답률(72.8%)에 비해서는 무려 20%가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60.4%가 한국인이 능력이 있다고 답하고 있고, 77.7%가 활동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62.3%가 한국은 친밀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응답률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감정에 대한 응답률보다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V-1> 조사대상자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 (빈도, %)

항목	한국사람 느낌 좋음	한국인 능력 있음	한국인 활동적임	한국인은 친밀함
매우 그렇다	108(13.6)	115(14.6)	278(35.2)	217(27.5)
약간 그렇다	306(38.5)	361(45.8)	336(42.5)	275(34.8)
어느 쪽도 아니다	182(22.9)	233(29.5)	132(16.7)	179(22.7)
별로 그렇지 않다	130(16.4)	62 (7.9)	32 (4.1)	81(10.3)
전혀 그렇지 않다	68 (8.6)	18 (2.3)	12 (1.5)	38 (4.8)
합계	794(100.0)	789(100.0)	790(100.0)	785(100.0)

<표 V-2>은 조선족 청소년이 겪은 한국유학생에 대한 인상과 유학생을 통해 느끼게 된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 표를 보면, 조선족 청소년들의 한국유학생에 대한 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12.7%가 한국유학생에 대한 인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21.1%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는 응답이 33.8%인데 반하여 좋다는 응답은 16.6%에 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유학생을 통해 느끼게 된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36.0%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33.5%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는 응답이 69.5%인데 반하여 좋다는 응답은 5.1%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나 한국인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에 와 있는 한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인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 V-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유학생인상과 유학생을 통한 한국인상

항목	한국유학생인상		유학생을 통한 한국인상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01	12.7	287	36.0
별로 그렇지 않다	168	21.1	267	33.5
보통이다	395	49.6	202	25.3
대체로 그렇다	104	13.0	32	4.0
매우 그렇다	29	3.6	9	1.1
합계	797	100.0	797	100.0

<표 V-3>은 조사대상자가 한민족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기가 한민족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가 한민족 후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률이 65.2%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

면에, 자기가 한민족 후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은 9.4%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V-3>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후손긍지

항목	한민족후손긍지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34	4.2
별로 그렇지 않다	42	5.2
보통이다	205	25.4
대체로 그렇다	239	29.7
매우 그렇다	286	35.5
합계	806	100.0

## 2.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교차분석

앞에서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비교적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감도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이 한민족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인에 대한 태도 역시 변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4>는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신분, 성별, 현 거주지 및 출생지에 따른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를 보면, 신분이나 성별 변수는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한국인에 대한 느낌이 좋으며,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4>를 보면, 현 거주지와 출생지 등의 지역변수는 한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에 대한 느낌과 한국인의 능력이

나 성품에 대한 감정이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가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일관성이 있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자기가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에 대해서는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가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출생지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아주 일관성이 있게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4> 한국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

(\*:  $p \leq 0.05$ , \*\*:  $p \leq 0.01$ )

항목	신분	성별	현 거주지	출생지
한국사람 느낌 좋음	* (-)		** (+)	** (+)
한국인 능력 있음			** (+)	** (+)
한국인 활동적임			** (+)	** (+)
한국인은 친밀함			** (+)	** (+)
한민족 후손 긍지			** (-)	** (-)
한민족 일원 자부심	* (-)		** (-)	** (-)

신분: 고등학생 vs 대학생

성별: 남학생 vs 여학생

현 거주지: 연변자치주 vs 기타지역

출생지: 연변자치주 vs 기타지역

### 3.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일원 자부심 정도

여기에서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한국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서 한민족일원 자부심 정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V-5>는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데 대한 일반적인 자부심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31.5%는 본인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데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30.2%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61.7%의 응답자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데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은 11.5%로 나타나고 있다.

<표 V-5>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일원 자부심

항목	한민족일원 자부심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35	4.4
별로 그렇지 않다	57	7.1
보통이다	216	26.9
대체로 그렇다	243	30.2
매우 그렇다	253	31.5
합계	804	100.0

다음에는 한민족의 일원이라는데 대해서 갖는 자부심을 몇 개의 독립변수와 교차분석을 해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표 V-6>은 성별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성별과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듯이 보인다.

<표 V-6> 성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성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성	13	25	75	92	90	295
	4.4%	8.5%	25.4%	31.2%	30.5%	100.0%
여성	22	32	141	149	163	507
	4.3%	6.3%	27.8%	29.4%	32.1%	100.0%
전체	35	57	216	241	253	802
	4.4%	7.7%	26.4%	30.0%	31.5%	100.0%

$\chi^2 = 2.0, p = .739$

<표 V-7>은 학생신분별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인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생 응답자의 70.3%가 긍정적인 답을 하는데 비해 고등학생 응답자의 57.5%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신분과 한민족일원 자부심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7> 학생신분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학생신분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등학생	25	39	138	130	143	475
	5.3%	8.2%	29.1%	27.4%	30.1%	100.0%
대학생	10	13	66	106	104	299
	3.3%	4.3%	22.1%	35.5%	34.8%	100.0%
전체	35	52	204	236	247	774
	4.5%	6.7%	26.4%	30.5%	31.9%	100.0%

$\chi^2 = 14.2, p = .007$

<표 V-8>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거주지역을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본인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변지역 응답자의 74.2%가 긍정적인 답을 하는데 비해 기타지역 응답자의 53.7%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연변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거주지역과 한민족일원 자부심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8> 현거주지역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거주지역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지역	29	42	156	136	127	490
	5.9%	8.6%	31.8%	27.8%	25.9%	100.0%
연변지역	6	15	60	107	126	314
	1.9%	4.8%	19.1%	34.1%	40.1%	100.0%
전체	35	57	216	243	253	804
	4.4%	7.1%	26.9%	30.2%	31.5%	100.0%

$\chi^2 = 37.3, p = .000$

<표 V-9>는 응답자의 출생지역별로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현거주지역을 조선족자치주인 연변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본인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변지역 출생자의 71.2%가 긍정적인 답을 하는데 비해 기타지역 출생자의 50.2%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연변지역 출생자가 기타지역 출생자보다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지역과 한민족일원 자부심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9> 출생지역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출생지역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지역	23	32	116	86	86	343
	6.7%	9.3%	33.8%	25.1%	25.1%	100.0%
연변지역	10	21	96	154	160	441
	2.3%	4.8%	21.8%	34.9%	36.3%	100.0%
전체	33	53	212	240	246	784
	4.2%	6.8%	27.0%	30.6%	31.4%	100.0%

$\chi^2 = 39.2, p = .000$

<표 VI-10>은 한국방문계획별로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방문을 할 계획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한민족일원 자부심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인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의 71.9%가 긍정적인 답을 하는데 비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의 56.4%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보다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방문계획과 한민족일원 자부심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0> 한국방문계획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방문계획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방문계획 없음	30	42	158	159	139	528
	5.7%	8.0%	29.9%	30.1%	26.3%	100.0%
방문계획 있음	5	14	58	84	113	274
	1.8%	5.1%	21.2%	30.7%	41.2%	100.0%
전체	35	56	216	243	252	802
	4.4%	7.0%	26.9%	30.3%	31.4%	100.0%

$\chi^2 = 26.2, p = .000$

<표 V-11>은 한국방문경험별로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방문을 한 경험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한민족일원 자부심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만약에,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유익했든가 인상이 좋았다고 하면, 그들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이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예상과 달리 한국방문경험과 한민족일원 자부심

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1> 한국방문경험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한국방문경험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방문경험 없음	29	51	202	221	230	733
	4.0%	7.0%	27.6%	30.2%	31.4%	100.0%
방문경험 있음	6	5	14	21	22	68
	8.8%	7.4%	20.6%	30.9%	32.4%	100.0%
전체	35	56	216	242	252	801
	4.4%	7.0%	27.0%	30.2%	31.5%	100.0%

$\chi^2 = 4.5, p = .338$

<표 V-12>는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에 대한 갖고 있는 느낌별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에,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에 대한 느낌이 좋다고 하면, 그들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에서 이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한국에 대한 느낌 여부와 한민족일원 자부심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2> 한국에 대한 느낌별 한민족일원 자부심

한국에 대한 느낌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느낌 나쁨	14	17	64	57	62	214
	6.5%	7.9%	29.9%	26.6%	29.0%	100.0%
느낌 좋음	20	39	148	182	182	571
	3.5%	6.8%	25.9%	31.9%	31.9%	100.0%
전체	34	56	212	239	244	785
	4.3%	7.1%	27.0%	30.4%	31.1%	100.0%

$\chi^2 = 6.3, p = .176$

<표 V-13>은 조선족 청소년 부모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에 따른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부모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자녀도 자기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그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본인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70.6%가 긍정적인 답을 하는데 비해 부모가 한국어를 적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47.6%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부모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부모가 한국어를 적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보다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와 한민족일원 자부심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3>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른 한민족일원 자부심

한국어 사용여부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적게 사용함	25	35	99	85	59	303
	8.3%	11.6%	32.7%	28.1%	19.5%	100.0%
많이 사용함	10	21	116	158	194	499
	2.0%	4.2%	23.2%	31.7%	38.9%	100.0%
전체	35	56	215	243	253	802
	4.4%	7.0%	26.8%	30.3%	31.5%	100.0%

$$x^2 = 61.0, p = .000$$

<표 V-14>는 부모의 한국어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만약에, 조선족 청소년의 부모가 한국어에 대한 인상이 좋다고 하면, 그 자녀들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에서 이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인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

모가 한국에 대해서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72.8%가 긍정적인 답을 하는데 비해 부모가 한국에 대해서 인상이 나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43.0%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부모가 한국에 대해서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부모가 한국에 대해서 인상이 나쁘다고 응답한 응답자보다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와 한민족일원 자부심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앞의 <표 V-10>에서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느낌과 한민족일원 자부심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 일원 자부심에는 본인의 느낌보다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표 V-14>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민족일원 자부심

한국에 대한 인상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상 나쁨	25	39	107	70	59	300
	8.3%	13.0%	35.7%	23.3%	19.7%	100.0%
인상 좋음	9	18	109	171	192	499
	1.8%	3.6%	21.8%	34.3%	38.5%	100.0%
전체	34	57	216	241	251	799
	4.3%	7.1%	27.0%	30.2%	31.4%	100.0%

$\chi^2 = 83.7, p = .000$

<표 V-15>은 조선족 청소년에게 한민족이 도움이 되는가 여부에 따른 한민족일원 자부심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인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민족이 도움이 된다고 한 응답자의 77.0%가 긍정적인 답을 하는데 비해 한민족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한 응답한 응답자의 42.7%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민족이 도움이 된다고 한 응답자가 한민족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한 응답자보다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와 한민족일원 자부심과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5> 한민족이 도움이 되는가 여부에 따른 한민족일원 자부심

한민족 도움여부	한민족일원 자부심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도움이 안됨	25	42	137	96	56	356
	7.0%	11.8%	38.5%	27.0%	15.7%	100.0%
도움이 됨	9	15	79	147	197	447
	2.0%	3.4%	17.7%	32.9%	44.1%	100.0%
전체	34	57	216	243	253	803
	4.2%	7.1%	26.9%	30.3%	31.5%	100.0%

$\chi^2 = 116.4, p = .000$

<표 V-16>는 한민족일원 자부심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한민족일원 자부심과 교차분석을 했던 모든 변수에다 응답자의 나이와 가족수입수준을 합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한민족일원 자부심에 대한 결정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유의확률을 0.05로 기준했을 때는 한민족 도움, 부모의 한국인상, 출생지역(연변) 등의 변수가 한민족일원 자부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유의확률을 0.1로 잡아 볼 때는 한국방문 계획, 현거주지역(연변), 한국느낌 등의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6> 한민족일원 자부심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독립변수	B	유의확률
나이	-.048	.542
가족수입수준	.128	.407
남학생(여학생=0)	.098	.600
대학생(고교생=0)	.293	.468
현거주지역 연변(기타=0)	.428	.072
연변출생(기타=0)	.542	.035
부모 한국어 잘 씀(잘 안 씀=0)	.196	.344
부모 한국인상 좋음(좋지 않음=0)	.674	.001
방문계획(없음=0)	.375	.058
한국직업희망(별도=0)	.160	.497
방문경험 있음(없음=0)	-.042	.902
한국 느낌 좋음(좋지 않음=0)	.402	.079
한국사람 느낌 좋음(좋지 않음=0)	.090	.661
한민족 도움 됨(도움 안됨=0)	1.353	.000
상수	-1.271	.392

$\chi^2 = 160.4, p = .000$



## VI.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활동

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이해 노력 정도
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활동 참여도
3.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 청취 상황
4.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 VI.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활동

### 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이해 노력 정도

이 장에서는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VI-1>은 조선족 청소년이 어느 정도 한민족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한민족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응답자의 19.0%는 한민족역사를 이해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고 28.0%는 대체로 노력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47.0%의 응답자가 한민족역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면에, 한민족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응답은 18.1%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VI-1> 조선족 청소년의 한민족역사 이해 노력

항목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30	3.7
별로 그렇지 않다	116	14.4
보통이다	274	34.0
대체로 그렇다	225	28.0
매우 그렇다	160	19.0
합계	805	100.0

<표 VI-2>는 조선족 청소년부모가 얼마나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에게 어느 정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응답자의 39.9%는 부모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22.1%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15.4%는 별로 사용하지 않으며 7.4%는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한편, 응답자 부모의

21.1%는 자녀에게 한국어를 많이 가르치고 있고 25.2%는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나, 응답자 부모의 16.8%는 자녀에게 한국어를 별로 가르치지 않고 17.3%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표 VI-2>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한국어 사용 및 교육

항목	한국어 사용		한국어 교육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60	7.4	139	17.3
별로 그렇지 않다	124	15.4	135	16.8
보통이다	123	15.2	203	25.2
대체로 그렇다	178	22.1	158	19.6
매우 그렇다	322	39.9	170	21.1
합계	807	100.0	805	100.0

<표 VI-3>은 조선족 청소년이 어느 정도로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53.3%는 매우 자주 한국어로 말하고 있고 25.9%는 대체로 한국어로 말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에 전혀 한국어로 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표 VI-3>을 보면,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어 쓰기는 한국어 말하기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63.9%는 매우 자주 한국어 쓰기를 하고 있고 22.9%는 대체로 한국어 쓰기를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어 쓰기를 전혀 않는다는 응답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표 VI-3>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어 말하기와 쓰기

항목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쓰기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20	2.5	13	1.6
별로 그렇지 않다	35	4.3	23	2.8
보통이다	112	13.9	71	8.8
대체로 그렇다	209	25.9	185	22.9
매우 그렇다	430	53.3	517	63.9
합계	806	100.0	809	100.0

## 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활동 참여도

<표 VI-4>은 조선족 청소년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와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34.0%는 한국방문계획이 있는 반면에 42.5%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32.3%는 한국방문을 매우 희망하고 있고 31.8%는 대체로 희망하고 있어서 한국방문을 희망하는 비율이 64.1%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방문을 희망하지 않는 응답자는 11.0%에 불과하다.

<표 VI-4>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방문계획과 한국방문희망

항목	한국방문계획		한국방문희망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28	15.9	37	4.6
별로 그렇지 않다	215	26.6	51	6.4
보통이다	189	23.4	200	24.9
대체로 그렇다	173	21.4	255	31.8
매우 그렇다	102	12.6	259	32.3
합계	807	100.0	802	100.0

<표 VI-5>는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가와 한국으로 연수를 갈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이다. 응답자의 21.0%는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는 반면에 38.5%의 응답자는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연수계획에 관한 응답도 이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23.9%는 한국으로 연수를 갈 계획이 있는 반면에 45.7%의 응답자는 한국으로 연수를 갈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5>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관련 직업희망과 한국연수계획

항목	한국관련 직업희망		한국연수계획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02	12.7	162	20.1
별로 그렇지 않다	207	25.8	206	25.6
보통이다	324	40.4	244	30.3
대체로 그렇다	105	13.1	126	15.7
매우 그렇다	63	7.9	66	8.2
합계	801	100.0	804	100.0

<표 VI-6>은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한국유학 프로그램이나 한국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응답자의 25.7%는 한국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31.7%는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한편, 한국취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응답자의 29.1%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30.7%는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이해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내외에 머무르고 있다.

<표 VI-6>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유학 프로그램이해와 한국취업 프로그램 이해

항목	한국유학 프로그램 이해		한국취업 프로그램 이해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206	25.7	233	29.1
별로 그렇지 않다	254	31.7	246	30.7
보통이다	245	30.6	245	30.5
대체로 그렇다	76	9.5	59	7.4
매우 그렇다	20	2.5	19	2.4
합계	801	100.0	802	100.0

<표 VI-7>은 조선족 청소년이 한인조직체와 한인단체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관련 단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인조직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20.7%이고 한인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12.3%에 그치고 있다. 응답자의 46.7%는 한인조직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한인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 비율은 55.3%에 이르고 있다.

<표 VI-7> 조선족 청소년의 한인조직체 참여와 한인단체 활동

항목	한인조직체 참여		한인단체 활동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40	17.4	195	24.4
별로 그렇지 않다	236	29.3	247	30.9
보통이다	263	32.6	259	32.4
대체로 그렇다	111	13.8	82	10.3
매우 그렇다	56	6.9	16	2.0
합계	806	100.0	799	100.0

<표 VI-8>은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인과 어느 정도 연락을 하고 지내며 한국청소년과 어느 정도 교류증대를 희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현재 한국인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응답자의 63.1%는 한국인과 연락이 없으며 12.7%만이 한국인과 교류를 하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많은 조선족 청소년들은 앞으로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증대를 희망하고 있다. 응답자의 14.2%는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증대를 매우 희망하고 있으며 25.2%는 대체로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증대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에 교류증대를 원하지 않는 비율은 21.8%에 지나지 않고 있다.

<표 VI-8>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과 연락 및 한국청소년과 교류증대희망

항목	한국인과 연락		한국청소년과 교류증대희망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242	30.1	57	7.1
별로 그렇지 않다	265	33.0	118	14.7
보통이다	194	24.2	312	38.9
대체로 그렇다	79	9.8	202	25.2
매우 그렇다	23	2.9	114	14.2
합계	803	100.0	803	100.0

<표 VI-9>는 조선족 청소년이 현재 어느 정도 한국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인터넷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한국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3.3%의 응답자는 매우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6.3%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의외로 많은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45.6%는 새롭게 한국인터넷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18.8%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표 VI-9>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구축필요

항목	한국인터넷 사용		인터넷 구축필요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50	6.3	47	5.9
별로 그렇지 않다	83	10.4	103	12.9
보통이다	244	30.6	284	35.6
대체로 그렇다	235	29.4	211	26.4
매우 그렇다	186	23.3	153	19.2
합계	798	100.0	798	100.0

조선족 청소년들의 한국과 관련된 활동상황도 변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0>은 한국관련 활동에 있어서 신분, 성별, 현 거주지 및 출생지에 따른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분별로 볼 때, 한국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좀 더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특히 한국연수계획, 한국관련 직업희망, 한민족역사 이해노력, 한국어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성별로 보면, 한국유학 프로그램 이해, 한국관련 직업희망 및 한국취업 프로그램 이해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더 긍정적인 반면에 한국연수계획, 한국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더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선족 청소년들의 한국관련 활동을 현 거주지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유학 프로그램 이해와 한국관련 직업희망의 경우는 기타지역에 주거하는 청소년들이 연변지역의 청소년들보다 더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한민족 역사 이해 노력, 한국인터넷 사용, 한국어 사용의 경우는 연변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의 한국관련 활동을 출생지별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활동에 있어서 연변출신의 청소년들이 기타지역 출신의 청소년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한국연수계획, 한민족 역사 이해 노력, 한국어 사용의 경우는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0> 한국관련 활동에 있어서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미성

(\*:  $p \leq 0.05$ , \*\*:  $p \leq 0.01$ )

항목	신분	성별	현 거주지	출생지
한국연수계획	** (+)	** (+)		* (-)
한국유학 프로그램 이해		* (-)	** (+)	
한국관련 직업희망	** (+)	* (-)	** (+)	
한국취업 프로그램 이해		* (-)		
한민족 역사 이해 노력	** (+)		** (-)	** (-)
한국인터넷 사용		** (+)	* (-)	
한국어 사용	* (+)		** (-)	** (-)

신분: 고등학생 vs 대학생

성별: 남학생 vs 여학생

현 거주지: 연변자치주 vs 기타지역

출생지: 연변자치주 vs 기타지역

### 3.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 청취 상황

최근에 중국에는 소위 ‘한류(韓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한류에 대한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뉴스와 한국드라마를 얼마나 자주 청취하고 있는가에 대해 규명해보고 이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여러 가지 독립변수와의 교차분석을 시도해 보고 또한 이 변수들에 대한 결정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VI-11>은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뉴스를 얼마나 자주 청취하고 있으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한국뉴스를 접속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응답자의 7.5%는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으며 15.5%는 2, 3일에 한번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54.8%는 한국뉴스를 별로 안 듣고 있으며 9.8%는 전혀 듣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뉴스를 별로 많이 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들이 한국뉴스를 청취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는 TV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응답자의 55.1%가 이를 이용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29.3%), 신문 잡지(6.9%), 친구나 친지 등을 통해(5.8%)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1>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청취와 한국뉴스접속통로

뉴스청취	빈도	%	뉴스접속통로	빈도	%
매일 듣고 있다	60	7.5	TV	436	55.1
2,3일에 한 번 듣고 있다	125	15.5	라디오	19	2.4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있다	100	12.4	인터넷	232	29.3
별로 안 듣는다	441	54.8	신문, 잡지	55	6.9
전혀 안 듣는다	79	9.8	친구나 친지	46	5.8
합계	805	100.0	기타	4	.5

다음으로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한국뉴스 청취상황과 여러 가지 독립변수와의 교차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표 VI-12>는 성별 한국뉴스 청취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는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뉴스를 청취하는 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2> 조선족 청소년의 성별 한국뉴스 청취상황

성별	한국뉴스청취					전체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별로 안들음	전혀 안들음	
남성	20	54	28	158	34	294
	6.8%	18.4%	9.5%	53.7%	11.6%	100.0%
여성	40	71	72	282	44	509
	7.9%	13.9%	14.1%	55.4%	8.6%	100.0%
전체	60	125	100	440	78	803
	7.5%	15.6%	12.5%	54.8%	9.7%	100.0%

$x^2 = 7.5, p = .110$

<표 VI-13>은 학생신분별 한국뉴스 청취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고등학생들보다 대학생들이 한국뉴스를 더 많이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VI-13> 학생신분별 한국뉴스 청취상황

신분	한국뉴스청취					전체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별로 안들음	전혀 안들음	
고등학생	34	66	47	266	62	475
	7.2%	13.9%	9.9%	56.0%	13.1%	100.0%
대학생	22	52	47	162	17	300
	7.3%	17.3%	15.7%	54.0%	5.7%	100.0%
전체	56	118	94	428	79	775
	7.2%	15.2%	12.1%	55.2%	10.2%	100.0%

$x^2 = 16.5, p = .002$

<표 VI-14>는 조선족 청소년의 거주지역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현재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기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보다 더 자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8.3%는 한국뉴스를 매일 청취하고 있고 17.1%는 2,3일에 한 번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뉴스를 매일 청취하는 비율이 6.9%이고 2, 3일에 한 번 청취하는 비율은 14.5%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별 한국뉴스 청취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4> 거주지역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거주지역	한국뉴스청취					전체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 에 한번	별로 안들음	전혀 안들음	
기타지역	34	71	48	278	59	490
	6.9%	14.5%	9.8%	56.7%	12.0%	100.0%
연변지역	26	54	52	163	20	315
	8.3%	17.1%	16.5%	51.7%	6.3%	100.0%
전체	60	125	100	441	79	805
	7.5%	15.5%	12.4%	54.8%	9.8%	100.0%

$x^2 = 15.5, p = .004$

<표 VI-15>는 조선족 청소년의 출생지역별 한국뉴스 청취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출생지가 연변인 학생이 기타지역에서 출생한 학생보다 더 자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지가 연변인 학생 가운데 8.8%는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18.1%는 2, 3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으나, 기타지역에서 출생한 학생 가운데에는 5.8%가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12.6%는 2, 3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5> 출생지역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출생지역	한국뉴스청취					전체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별로 안들음	전혀 안들음	
기타지역	20	43	28	201	50	342
	5.8%	12.6%	8.2%	58.8%	14.6%	100.0%
연변지역	39	80	70	226	26	441
	8.8%	18.1%	15.9%	51.2%	5.9%	100.0%
전체	59	123	98	427	76	783
	7.5%	15.7%	12.5%	54.5%	9.7%	100.0%

$\chi^2 = 32.35, p = .000$

<표 VI-16>은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방문계획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에는 11.0%가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17.6%는 2, 3일에 한 번, 17.6%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 청소년 가운데에는 5.7%가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14.6%는 2, 3일에 한 번, 9.8%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6> 한국방문계획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한국방문계획	한국뉴스청취					전체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별로 안들음	전혀 안들음	
방문계획 없음	30	77	52	311	59	529
	5.7%	14.6%	9.8%	58.8%	11.2%	100.0%
방문계획 있음	30	48	48	127	20	273
	11.0%	17.6%	17.6%	46.5%	7.3%	100.0%
전체	60	125	100	438	79	802
	7.5%	15.6%	12.5%	54.6%	9.9%	100.0%

$\chi^2=24.2, p = .000$

<표 VI-17>은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방문경험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응답자 가운데 8.6%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에는 16.2%가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20.6%는 2, 3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청소년 가운데에는 6.7%가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15.1%는 2, 3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방문경험별 한국뉴스 청취 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7> 한국방문경험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한국방문경험	한국뉴스청취					전체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별로 안들음	전혀 안들음	
방문경험 없음	49	111	90	409	76	735
	6.7%	15.1%	12.2%	55.6%	10.3%	100.0%
방문경험 있음	11	14	10	31	2	68
	16.2%	20.6%	14.7%	45.6%	2.9%	100.0%
전체	60	125	100	440	78	803
	7.5%	15.6%	12.5%	54.8%	9.7%	100.0%

$x^2 = 13.7, p = .008$

<표 VI-18>은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느낌별 한국뉴스 청취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느낌이 좋을수록 한국뉴스를 더 많이 청취하고 느낌이 나쁠수록 덜 청취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나, 이 표에 의하면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느낌은 한국뉴스 청취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8> 한국어에 대한 느낌별 한국뉴스 청취 상황

한국에 대한 느낌	한국뉴스청취					전체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별로 안들음	전혀 안들음	
느낌 나쁨	13	28	28	120	26	215
	6.0%	13.0%	13.0%	55.8%	12.1%	100.0%
느낌 좋음	47	93	71	313	48	572
	8.2%	16.3%	12.4%	54.7%	8.4%	100.0%
전체	60	121	99	433	74	787
	7.6%	15.4%	12.6%	55.0%	9.4%	100.0%

$\chi^2 = 4.4, p = .356$

<표 VI-19>는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른 한국뉴스 청취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9.1%는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19.7%는 2, 3일에 한 번, 14.7%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부모가 한국어를 적게 사용하는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4.9%는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8.5%는 2, 3일에 한 번, 8.9%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른 한국뉴스 청취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19>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른 한국뉴스 청취 상황

한국어 사용여부	한국뉴스청취					전체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별로 안들음	전혀 안들음	
적게 사용함	15	26	27	189	48	305
	4.9%	8.5%	8.9%	62.0%	15.7%	100.0%
많이 사용함	45	98	73	250	31	497
	9.1%	19.7%	14.7%	50.3%	6.2%	100.0%
전체	60	124	100	439	79	802
	7.5%	15.5%	12.5%	54.7%	9.9%	100.0%

$\chi^2 = 46.8, p = .000$

<표 VI-20>은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국뉴스 청취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부모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9.2%는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18.7%는 2, 3일에 한 번, 14.9%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부모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4.7%는 매일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고 10.3%는 2, 3일에 한 번, 8.3%는 일주일에 한 번 한국뉴스를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국뉴스 청취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0>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국뉴스 청취 상황

한국에 대한 인상	한국뉴스청취					전체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별로 안들음	전혀 안들음	
인상 좋지 않음	14	31	25	182	49	301
	4.7%	10.3%	8.3%	60.5%	16.3%	100.0%
인상 좋음	46	93	74	255	30	498
	9.2%	18.7%	14.9%	51.2%	6.0%	100.0%
전체	60	124	99	437	79	799
	7.5%	15.5%	12.4%	54.7%	9.9%	100.0%

$\chi^2 = 43.1, p = .000$

<표 VI-21>은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 청취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한국뉴스 청취 상황과 교차분석을 했던 모든 변수에다 응답자의 나이와 가족수입수준을 합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한국뉴스 청취에 대한 결정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유의확률을 0.05로 기준했을 때 부모 한국어 씬, 부모 한국인상, 한국방문계획, 한국방문 경험 등의 변수가 한국뉴스 청취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1> 한국뉴스 청취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독립변수	B	유의확률
나이	-.029	.699
가족수입수준	.197	.154
남학생(여학생=0)	.026	.884
대학생(고교생=0)	.145	.705
현거주지역 연변(기타=0)	.039	.855
연변출생(기타=0)	.375	.126
부모 한국어 잘 씀(잘 안 씀=0)	.589	.005
부모 한국인상 좋음(좋지 않음=0)	.439	.032
한국방문계획 있음(없음=0)	.589	.001
한국방문경험 있음(없음=0)	.597	.042
한국느낌 좋음(좋지 않음=0)	.207	.283
상수	-2.055	.142
$\chi^2 = 65.2$ $p = .000$		

#### 4.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표 VI-22>는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드라마를 어느 정도 시청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뉴스를 청취하는 상황과 달리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56.4%는 한국드라마를 자주 시청한다고 답하고 있고 36.5%는 가끔 시청한다고 답하여 전체응답자의 92.9%가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에 지나지 않는다.

<표 VI-22>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드라마 시청

항목	빈도	%
자주 시청한다	456	56.4
가끔 시청한다	295	36.5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18	2.2
중계가 안 되어 시청할 수 없다	40	4.9
합계	809	100.0

<표 VI-23>은 조선족 청소년의 성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뉴스를 청취하는 상황은 성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타났는데 한국드라마 시청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시청률이 남성의 시청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 응답자의 63.1%는 한국드라마를 자주 시청한다고 답하고 있고 있는 반면에 남성 응답자의 경우에는 45.1%가 한국드라마를 자주 시청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I-23> 조선족 청소년의 성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성별	한국드라마 시청			전체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시청 안함	
남성	133	135	27	295
	45.1%	45.8%	9.2%	100.0%
여성	323	158	31	512
	63.1%	30.9%	6.1%	100.0%
전체	456	293	58	807
	56.5%	36.3%	7.2%	100.0%

$\chi^2 = 24.7, p = .000$

<표 VI-24>는 학생신분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앞의 <표 VII-13>에서는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 청취의 경우에는 대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자주 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드라마 시청의 경우에는 학생신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4> 학생신분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학생신분	한국드라마 시청			전체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시청 안함	
고등학생	261	183	35	479
	54.5%	38.2%	7.3%	100.0%
대학생	174	103	23	300
	58.0%	34.3%	7.7%	100.0%
전체	435	286	58	779
	55.8%	36.7%	7.4%	100.0%

$\chi^2 = 1.2, p = .551$

<표 VI-25>는 조선족 청소년의 현재 거주지역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현재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기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보다 더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62.7%는 한국드라마를 자주 시청하고 있고 기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자주 시청하는 비율이 52.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5> 거주지역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거주지역	한국드라마 시청			전체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시청 안함	
기타지역	258	187	48	493
	52.3%	37.9%	9.7%	100.0%
연변지역	198	108	10	316
	62.7%	34.2%	3.2%	100.0%
전체	456	295	58	809
	56.4%	36.5%	7.2%	100.0%

$\chi^2 = 16.0, p = .000$

<표 VI-26>은 조선족 청소년의 출생지역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출생지역이 연변인 학생이 기타지역에서 출생한 학생보다 더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변에서 출생한 학생의 60.0%는 한국드라마를 자주시청하고 있으나 기타지역에서 출생한 학생의 경우에는 자주 시청하는 비율이 51.9%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6> 출생지역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출생지역	한국드라마 시청			전체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시청 안함	
기타지역	179	131	35	345
	51.9%	38.0%	10.1%	100.0%
연변지역	265	154	23	442
	60.0%	34.8%	5.2%	100.0%
전체	444	285	58	787
	56.4%	36.2%	7.4%	100.0%

$\chi^2 = 9.2, p = .010$

<표 VI-27>은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른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가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61.1%는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가 한국어를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에는 49.2%만이 한국드라마를 자주 시청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7> 부모의 한국어 사용여부에 따른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한국어 사용여부	한국드라마 시청			전체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시청 안함	
적게 사용함	151	136	20	307
	49.2%	44.3%	6.5%	100.0%
많이 사용함	305	157	37	499
	61.1%	31.5%	7.4%	100.0%
전체	456	293	57	806
	56.6%	36.4%	7.1%	100.0%

$\chi^2 = 13.6, p = .001$

<표 VI-28>은 조선족 청소년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60.4%는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가 한국에 대한 인상이 나쁘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에는 49.5%만이 한국드라마를 자주 시청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8>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인상여부에 따른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한국에 대한 인상	한국드라마 시청			전체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시청 안함	
인상 나쁨	150	132	21	303
	49.5%	43.6%	6.9%	100.0%
인상 좋음	302	161	37	500
	60.4%	32.2%	7.4%	100.0%
전체	452	293	58	803
	56.3%	36.5%	7.2%	100.0%

$$x^2 = 10.7, p = .005$$

<표 VI-29>는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방문계획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에는 61.5%가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 청소년 가운데에는 53.9%가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29> 한국방문계획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한국방문계획	한국드라마 시청			전체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시청 안함	
방문계획 없음	286	213	32	531
	53.9%	40.1%	6.0%	100.0%
방문계획 있음	169	80	26	275
	61.5%	29.1%	9.5%	100.0%
전체	455	293	58	806
	56.5%	36.4%	7.2%	100.0%

$$x^2 = 10.9, p = .004$$

<표 VI-30>은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방문경험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에는 65.2%가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을 방문한 경험 없는 청소년 가운데에는 55.6%가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차이는 한국방문계획의 경우와는 달리 통계적으로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30> 한국방문경험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한국방문경험	한국드라마 시청			전체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시청 안함	
방문경험 없음	410	274	54	738
	55.6%	37.1%	7.3%	100.0%
방문경험 있음	45	20	4	69
	65.2%	29.0%	5.8%	100.0%
전체	455	294	58	807
	56.4%	36.4%	7.2%	100.0%

$x^2 = 2.4, p = .302$

<표 VI-31>는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느낌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 가운데 한국에 대한 느낌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58.1%는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느낌이 나쁘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에는 50.7%가 자주 한국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의 차이는 유의확률 0.05에서는 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31> 한국에 대한 느낌별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

한국에 대한 느낌	한국드라마 시청			전체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시청 안함	
느낌 나쁨	109	93	13	215
	50.7%	43.3%	6.0%	100.0%
느낌 좋음	334	197	44	575
	58.1%	34.3%	7.7%	100.0%
전체	443	290	57	790
	56.1%	36.7%	7.2%	100.0%

$x^2 = 5.5, p = .063$

<표 VI-32>는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에 대한 로지스틱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과 교차분석을 했던 모든 변수에다 응답자의 나이와 가족수입수준을 합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에 대한 결정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유의확률을 0.05로 기준했을 때 학생신분(남학생) 변수와 한국느낌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유의확률을 0.1로 기준했을 때는 현거주지역 변수와 부모 한국어 씬의 변수가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32> 한국드라마 시청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독립변수	B	유의확률
나이	.059	.414
가족수입수준	-.135	.311
남학생(여학생=0)	-.842	.000
대학생(고교생=0)	-.425	.246
현거주지역 연변(기타=0)	.379	.069
연변출생(기타=0)	.066	.776
부모 한국어 씬(잘 안 씬=0)	.338	.078
부모 한국인상 좋음(좋지 않음=0)	.128	.494
방문계획 있음(없음=0)	.153	.367
방문경험 있음(없음=0)	.404	.170
한국느낌 좋음(좋지 않음=0)	.479	.008
상수	-.904	.499
$\chi^2 = 52.1$		$p = .000$

<표 VI-33>은 앞의 <표 VI-21>과 <표 VI-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뉴스 청취와 한국드라마 시청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 중에 각 독립변수의 유의도를 비교하고 있다. 먼저, 한국뉴스 청취상황의 경우에는, 부모 한국어 씬, 부모 한국인상, 한국방문계획, 한국방문경험 등의 변수가 유의확률을 0.05로 기준했을 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의 경우에는, 유의확률을 0.05로 기준했을 때 학생

신분(남학생) 변수와 한국느낌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고, 유의확률을 0.1로 기준했을 때는 현거주지역(연변) 변수와 부모 한국어 씬의 변수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33>에서 나타난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인 유의도를 비교해 보면, 먼저 학생신분(남학생) 변수는 한국뉴스 청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한국드라마 시청에서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거주지역(연변) 변수도 한국뉴스 청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한국드라마 시청에서는 약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 한국어 씬의 변수는 한국뉴스 청취와 한국드라마 시청의 두 경우에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 한국인상 변수는 한국뉴스 청취에서는 유의미하나 한국드라마 시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방문계획 변수와 한국방문경험 변수도 한국뉴스 청취에서는 유의미하나 한국드라마 시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느낌 변수는 한국뉴스 청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한국드라마 시청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33> 한국뉴스 청취와 한국드라마 시청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유의도 비교

독립변수	한국뉴스청취	한국드라마시청
나이	.699	.414
가족수입수준	.154	.311
남학생(여학생=0)	.884	.000
대학생(고교생=0)	.705	.246
현거주지역 연변(기타=0)	.855	.069
연변출생(기타=0)	.126	.776
부모 한국어 잘 씬(잘 안 씬=0)	.005	.078
부모 한국인상 좋음(좋지 않음=0)	.032	.494
한국방문계획 있음(없음=0)	.001	.367
한국방문경험 있음(없음=0)	.042	.170
한국 느낌 좋음(좋지 않음=0)	.283	.008
상수	.142	.499

## VII. 초점집단 토론결과

1. 초점집단토론조사의 대상자 구성
2. 초점집단토론조사의 내용



## VII. 초점집단 토론결과

### 1. 초점집단토론조사의 대상자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와 토론조사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양적인 통계분석은 다수의 응답자(본 연구에서는 810명)를 대상으로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조사내용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적인 통계분석만으로는 조사대상자들의 감정이나 태도 및 심층적인 내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외에 중국내 5개 지역 즉, 길림성 연변, 북경, 요녕성 대련, 산둥성 청도, 산둥성 연태에서 조선족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5개 집단에 대한 초점집단토론조사(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토론 대상 집단은 다음과 같다: 길림성 연변자치주(대학생 집단), 북경시(대학생 집단), 산둥성 연태시(대학생 집단), 요녕성 대련시(대학 졸업 직장인 집단), 연변 훈춘시(고등학생 집단). 토론시간은 대체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진행되었다.

초점집단 토론참여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연변자치주 (연변대 역사학과 학생들)

1. 박 00 (남자, 연변대 역사학과 2학년)
2. 박 00 (남자, 연변대 역사학과 2학년)
3. 신 00 (여자, 연변대 역사학과 2학년)
4. 한 00 (여자, 연변대 역사학과 2학년)

#### 2) 북경 (어언문화대 학생들)

1. 리 0 (여자, 연변 출신, 어언대 스페인어과)

2. 현 0 (여자, 연변 출신, 어언대 영어과)
3. 최 00 (여자, 연변 출신, 어언대 일본어과)
4. 변 00 (여자, 연변 출신, 어언대 독어과)

### 3) 산둥성 (연태시 대학생들)

1. 김 0 (여자, 연변 출신, 연태대 공상관리학과)
2. 문 00 (여자, 연변 출신, 연태대 환경관리학과)
3. 도 00 (여자, 연변 출신, 산둥공상대 회계학과)
4. 전 00 (남자, 연변 출신, 연태대 전자공학과)

### 4) 요녕성 (대련시, 대학을 갓 졸업한 직장여성들)

1. 김 00 (여자, 단둥 출신, DELL 근무)
2. 김 00 (여자, 단둥 출신, GE 근무)
3. 김 00 (여자, 흑룡강 출신, HP 근무)
4. 문 00 (여자, 흑룡강 출신, 통역업무 종사)

### 5) 연변 (훈춘시, 고등학생들)

1. 유 00 (여자, 훈춘제2고중, 여고생)
2. 황 00 (여자, 훈춘제2고중, 여고생)
3. 로 00 (여자, 훈춘제2고중, 여고생)
4. 리 00 (여자, 훈춘제2고중, 여고생)

## 2. 초점집단토론조사의 토론 내용

### 1) 조선족 청소년들의 민족배경, 거주형태, 부모직업 등 배경

1-1)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가족 중에 누가 처음 중국에 왔는지 또 언제 어

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모두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 몇몇 학생은 70년 전 혹은 90년 전이라고 답하고 있고, 할아버지 혹은 증조할아버지가 청년 때 왔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응답자들은 선조들이 중국의 흑룡강성 및 길림성 등지에 처음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국의 어디에서 왔는지는 대부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어 선조들의 이주상 황과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증조할아버지는 함경북도 회룡 쪽에서 오셨고 연변으로 와서 연변에서 계속 살고 할아버지가 화룡인지 경성인지 여기에서 계속 살아요.” (연변, 남학생)

“할머니가 길림성의 장춘에서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한국 어딘지는 몰라요.” (연변, 여학생)

“할아버지 할머니가 90년 전에 오셨다는데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할머니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요녕성으로 오셨어요.” (연태, 여학생)

“70년 전에 할아버지가 흑룡강성으로 오셨고 강원도에서 오셨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연태, 남학생)

1-2) 응답자들의 부모가 모두 조선족이라고 답한 것을 볼 때 한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중국내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결속력은 매우 강하며 또 한족 등 타민족에 쉽게 동화되지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III 장에서 응답자 부모의 96.3%가 조선족이라는 결과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1-3) 응답자들의 거주상황을 보면, 현재 연변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제외하고 타지에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대학에 입학하면서 중국의 수도인 북경이나 대련 및 연태 등 연해도시에 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지에 온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한 지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기후를 찾아서 연변이나 흑룡강성을 떠나 유학을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타지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부분 부모와 떨어져 있고 일부(대련, 남학생)는 부모 모두 혹은 어머니 홀로(훈춘고, 남학생) 한국에 있다고 답하였다.

“대학교를 고를 때 연해도시를 골랐고 경제가 발전할 것이고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했으니까요.” (연태, 여학생)

“연해도시는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연변에 있기보다 중국말 잘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요.” (연태, 남학생)

“6년 전에 대학교에 오면서 아름답고, 흑룡강은 추워서 날씨가 따뜻한 곳으로 왔어요.” (대련, 여성 직장인)

1-4) 부모님의 직업은 농민이 대부분이며 일부 자영업과 공직에 근무한 적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은 외국어 강점을 기반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며 일부 학생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학생은 선생님(교수 포함)이 꿈이며, 외국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고, 관광가이드를 꿈꾸고 있는 학생도 있듯이 비교적 다양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 2) 조선족 학교 취학 여부

응답자 모두는 조선족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답하였다. III장에서 조사대상자 가운데 조선족 소(초등)학교에 다녔던 청소년의 비율은 95.8%이고, 조선족 중학교에 다녔던 청소년의 비율은 94.6%인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조선족 학교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조선족 가운데에서 중국어 실력이 떨어져 한족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은 조선족 학생끼리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중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네. 한어 수준이 중국 애들처럼 안돼요. 사자성어도 잘 안 되고 발음도 잘 안돼요. 대학 1년은 힘들고 연변에서는 새로 나온 반은 담임 선생님이 한족이고 한어는 같은 교과서를 배워요. 하지만 나중에는 한국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 와서 공부를 잘해야 하니까 중국학교로 전학하는 애들도 있어요.” (북경, 여학생)

“그래도 조선족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많이 배워요.” (북경, 여학생)

### 3) 사귀는 친구, 이성교제 여부

응답자들은 친구로서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조선족끼리 사귀고 있고 대학교 진학 후에는 한족 학생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사귀는 친구의 비율은 반반 정도에 이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어 실력이 처음에는 저조했지만 한족 친구들을 사귀면서 많이 나아졌다고 고백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었다. 이성친구도 상당수 학생들이 서슴없이 사귀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거의 조선족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다.

“중학교까지는 조선족이고 대학교 이후는 한족 친구들이 많잖아요. 조선족 친구도 있지만 한족 친구도 있어요. 지금은 반반이에요” (대련, 여성 직장인)

“저는 조선족친구와 주로 어울리고 남자친구는 조선족 친구예요. 소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 조선족과 많이 어울리고 대학에서는 다 같이 어울려요.” (연변, 여학생)

### 4) 배우자 선택에서의 조선족 선호도

장차 결혼할 때 조선족과 한족 중에서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

문에 거의 대부분 조선족 배우자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족은 문화, 음식, 생활습관이 비슷해서 배우자로 좋다고 답하였다. 일부 한족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데 부모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세대 끼리는 한족과 혼인관계를 맺을 시 중국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꺼리는 것 같다. 특별히 한족 학생들은 부엌일이나 가정일은 잘 하지만 그래도 조선족 남자가 좋다는 여학생의 대답은 한국적인 남성을 그래도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생각이 틀려요. 어렸을 때 습관이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때 한족과 조선족 친구가 있었는데 점심 먹고 조선족은 여자 친구가 사발(그릇)을 씻어요. 한족들은 남자친구가 다 치워요. 한족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생각이 고정되었어요. 남자가 큰일을 해야 하니까 밖의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주방일 하는 것이 좋지만 매일 하면 보기가 좀 그래요.” (대련, 여성 직장인)

“중국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같은 일을 봐도 각각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한족은 기름진 음식이 많지만 매일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아서 한국처럼 김치나 매운 것을 먹어요.... 옷 입는 것도 달라요. 조선족은 한국에서 들어온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선택하는데 한족은 우리 입는 것하고 달라요.” (대련, 여성 직장인)

“저도 조선족이 좋고 문화 음식 생활습관이 달라서 한족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민족이 틀리면 습관이 달라요. 절대로 부모님이 반대할거고.” (대련, 여성 직장인)

## 5) 평소 사용하는 언어

평소에 중국어와 한국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주로 중국말을 쓰지만 친구 사이나 집에서 가족과는 한국어를 쓴다고 답하고 있음을 볼 때 이중언어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조선어를 쓰지만 대학교 입

학 후에는 중국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결 같이 모두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대학 전에는 주로 조선말하고 대학 이후에는 한족 친구가 있어서 기숙사에서 살므로 한족 말을 하게 되었어요. 조선족도 한족 말을 하니까 한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족 말을 합니다.” (연태, 여학생)

“그런데 길림성에 들어가면 평시에 한족 말을 하니까 조선말을 잊어버린다고, 조선말을 쓰지 않으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점수를 깎아요.” (훈춘, 여고생)

#### 6) 한국 여행 경험 및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연계성을 질문하였을 때, 첫째 한국에 가 본 적이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으나 한번 꼭 가보고 싶고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일부 있다. 심지어 부모가 한국에 있는데도 한국을 가보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다. 대체로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함을 알 수 있고 유학이나 취업은 희망하고 있는 편이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한국의 원주에 변씨(변 씨 성을 가진 학생) 묘가 있다고 해서 한번 조상 묘를 찾아보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이 있다.

“한국에서 2-3년 동안 역사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북경, 여학생)

“한번 가고 싶어요. 원주에 변씨 묘가 있다고 해서 가고 싶어요. 다른 것으로는 가고 싶지 않으나 조상의 묘는 가고 싶어요.” (북경, 여학생)

#### 7) 한국 언론매체와의 접촉 빈도

응답자들은 대부분 연변에 있을 때는 한국 뉴스에 대해 크게 관심은 없으나 한국방송이 시청이 되는 곳에서는 KBS나 SBS를 듣고 드라마도 가끔 본

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TV시청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인터넷으로 뉴스 등을 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선족 청소년들 대부분은 연변의 자기 집에 가서야 한국의 TV방송 뉴스와 드라마를 가족과 함께 보게 되는 것 같다.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집이 연변에 있으면 중국뉴스보다 한국뉴스를 봐요. 언어가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인터넷에서 봐요.” (북경, 여학생)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국제프로그램에 한국뉴스가 있으면 보고 인터넷으로도 보고요.” (연변, 여학생)

#### 8)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

응답자들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고 많이 보는 편이며, 유명한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중국 드라마보다 오히려 좋게 평하며 한국 배우들의 연기실력이 중국 배우보다 우수하다고 평하는 학생이 많았다. 조선족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일가견을 갖고 평하는 것을 볼 때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많이 시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상이 좋은 것은 다 봐요. ‘연애시대’가 재미있고 ‘대장금’은 다 못 봤고 ‘황진이’는 봤고 ‘주몽’을 봤고 역사적인 것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역사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좋아요.” (북경, 여학생)

“한국 것을 많이 봐요. 중국 것을 보는 것은 아주 적어요. 영화대사가 중국 것 보다 깊게 이해가 되고 화면도 깨끗하고 질도 좋아서. 다만 중국은 발전하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가을 동화’, ‘love story in Harvard’, ‘Full house’ 등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은 다 접속해서 봐요.” (훈춘, 여학생)

“한국 드라마는 친근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요. 조선족이

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너무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니까 많이 봐요.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을 배워요. 처음에는 막연히 봤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드라마를 그냥 보냐고 해서 그것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다고 보여 저서 이제는 의미를 갖고 봐요.” (연태, 여학생)

### 9) 중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韓流)’에 대한 생각

한류는 이에 대한 평이 좋고 나쁘진 상관없이 어린 중고생들과 여성들이 더 따르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음악 등을 주로 TV를 통해 좋아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한류를 흉내 내며 머리를 물들이고 과마하는 것까지 따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은 좋지 않은 것으로 답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한류 관련 드라마를 보면서 배울 것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예의바른 것, 열심히 사는 것을 배우며 특히 사극을 통해 한국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게 된다는 학생도 있다.

“중고교 학생들이라든지 여성들이 한류를 더 따르는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나 영화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중국보다 좋았던가 아니면 이상적으로 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일본에서도 한류가 있잖아요.” (대련, 여성 직장인)

“한류를 따르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TV에서 많이 하니까, 계속 같은 것을 하니까 봤던 것을 자꾸 보게 돼요. 중학생들이 특히 철이 안들은 아이들이 생각도 없이 따르고 머리를 물들이고 과마하고 공부는 안하고 그런 것만 따르는 것 좀 못마땅한 것 같고…….” (대련, 여성 직장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류가 들어오면 배울 것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한국 것은 다 좋다 하는 것은 싫어요. 무슨 문화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이것만 좋다 무조건 좋다 하는 것은 싫어요.” (연태, 여학생)

“배울 것이 많죠. 예의바른 것, 열심히 사는 것을 통해서 배워요. 한 민족의 역사 같은 것을 접촉하기가 어려운데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배워요. 사극을 보면. 어떤 데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같은 역사를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아편전쟁은 이쪽을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연태, 여학생)

“중국 애들은 한류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많이 알고 우리에게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북경, 여학생)

#### 10)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과 북한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깨끗하다는 인상이 깊고 경제발전을 크게 이룩한 점이 좋다고 답하고 있지만, 좀 교만하고 과격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편, 발전한 한국에 가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도 있다.

한국인에 대한 인상은 월드컵 응원 장면을 TV로 보면서 단결된 민족성을 느꼈고, 중국에서도 조선족이 함께 뭉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음을 믿으며 조선족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학생이 다수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단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기를, 한국인은 속과 겉이 다른 허위적인 점과 교만함을 꼽았으며, 특히 중국을 깔보는 말투와 태도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인은 개방적이고 생활에 활력을 갖고 있음은 장점이며, 앞으로 한국인과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각종 오해가 없어지길 바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볼 때 1위예요. 삼성, LG등을 볼 때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작지만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에요.” (연변, 남학생)

“한국하면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깨끗하다. 흰색. 우리보다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사람 앞에서 위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63빌딩이 떠오르고 한국사람 중 중국에 오지 않은 사람은 편견이 많아요. 중국에 유람 와서 편견을 버렸으면 해요. 중국이라면 열등하다고 하는 것이 걱정돼요.” (훈춘, 여고생)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관심이 많아져요. 정치 경제시간에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몽고가 나오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내게 듣기 싫은 말이 올 까봐 걱정이 되요. 북한은 별 기분이 없는데 괜찮은데,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발전했다니까. 그런데 정치의 탄핵사건이 안타까웠어요.” (북경, 여학생)

“한국인 이라하면 한테 뭉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산광장’ 앞 대련 호텔위에 TV가 있어요. 2004년 월드컵 할 때 광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응원할 때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중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조선족도 같이 참가하고 싶은데 한국인이 다 같이 모여서 민족심이란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조선족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민족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조선족도 함께 뭉친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련, 여성 직장인)

“민족심이 강하고 결점은 좀 허위적이예요. 허위적이란 말뜻에는 속과 겉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예절이 바른데 뒤로 돌아서면 다르다 이거예요.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연변, 여학생)

“한국이 경제는 발전했지만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교만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소수가 교만하고 과격해요. 한국은 민족정신이 강하고 중국은 민족정신이 약해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깔본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은 냉담해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한국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모른척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러 갔는데 한국 여자유학생들이 중국 사람은 좀 그렇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좀 깔보는 것 같았어요.” (연변대, 여학생)

“(한국)드라마나 개그에서 연변 말을 하면 주위에서 웃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빠요. 연변사람이 촌스럽고 황당하게 표현하면 기분이 나빠요. 개그는 연변에서도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짜증나요. 개그콘서트에서 연변총각으로 강성범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연변에는 자식 9명 있으면 하면서 깔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드라마에서 연변처녀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닌데 너무 촌스럽게 나왔어요. ‘골든 벨’ 프로그램에 연변시 제이중(고등)학교에서 출연한 적이 있어요. 학생 한명이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흉내 내는 것 등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서시장은 연길에서 제일 좋은 시장이라고 했는데 연변은 이렇게 낙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만 방영하는 것을 볼 때 서울도 낙후된 곳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기분이 나빠요.“ (북경, 여학생)

#### 11)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 및 한국문화 이해 욕구 정도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문화는 조선족문화에 비해 발전되고 서양화된 나라로 이해하고 있으며 많은 외래어 사용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있으며 드라마 사극에서 조금 이해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또한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을 보이기도 한다.

“학교 다닐 때는 (한국 문화가) 조선족 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족 문화보다 발전되었고 서양화 되었어요. 처음에 한국인과 접촉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외래어도 많고 해서요.” (대련, 여성 직장인)

“서비스요. 삼성이 잘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면 바로 크레임하는데 중국은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스스로 내가

먼저 해결해보자 하는데 한국은 서비스센터에 크레임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서비스가 잘 되다 보니까 중국에 비해 생각이 틀려요.” (대련, 여성 직장인)

“회사 생활을 하면서 통역을 하다 보니 전통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생활하는 방식과 생각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회사를 고려한다면 배워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인 민족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대련, 여성 직장인)

“특히 역사 쪽으로 배우고 싶어요. 역사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요. 중국 역사를 배우듯이 역사를 좋아해요. 한국의 역사 드라마를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과연 진실은 뭘까 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연태, 남학생)

“한국이 예절 면에서는 제일 으뜸이고 음식을 보면 한국드라마에서 본 부엌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김치를 좋아하니까 그 김치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아직 한국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잡지를 통해 조금 ‘발전하는 한국’을 이해하곤 해요.” (훈춘, 여고생)

## 12) 한국으로의 유학 혹은 취업 희망여부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에 유학이나 취업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유학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만 취업은 별로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취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한국의 생활비가 비싸고, 한국문화에 융화되기 어려운 점과 언어상 외래어 사용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취업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그냥 중국을 자기 나라라고 말하며 중국이 좋아 그냥 중국에 있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이미 3·4세대에 이른 젊은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인화가 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취업은 별로이고 그냥 한국에 가서 유학가고 싶어요. 중국에서 자랐으니 문화에 융합되기가 어렵고 중국에 있는 한국회사는 가겠는데 한국에서 한국취업은 생각이 없어요.” (연변, 남학생)

“한국에서 취업을 싫어하기보다 단기적으로 있고 싶어요. 중국이 고향이니까요.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요. 경험을 쌓고 중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연변, 여학생)

“한국에 취업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가 좋아요. 그냥 중국 여기 있고 싶어요.” (연변, 여학생)

“한국이란 환경에 적응할 때 어렵게 생각하고 언어는 통하지만 습관 등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이모가 말했는데 이모가 보기에 깨끗한데 시어머니가 그릇도 다시 닦고 옷도 다시 빨아요. 일하는데 깐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가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 과정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훈춘, 여고생)

“한국에 가면 사는 생활비가 비싸고 방값이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고 같은 조선어이지만 언어상으로 좀 장애가 있고 한국에서는 언어에서 영어가 많이 있으니 언어가 통하지 않을까봐 겁나요.” (훈춘, 여고생)

“아버지는 남쪽에서 왔고 어머니는 북쪽에서 왔지만 어디에서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집에 역사책이 있는데 남한에서 온 것은 없어요. 의학책도 거의 북한 것이예요. 저는 한국에서 온 것을 보고 싶어요. 저는 역사를 안 믿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말하니까 내가 판단해야 하니까 먼저 책이 있어야 해요.” (북경, 여학생)

13)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과 중국내 소수민족이란 점에 대한 생각  
조선족 청소년들은 대체로 한민족의 후손인 조선족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으며 깨끗하고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두개 언어를 사용하는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족으로의 동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한족이 조선족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는 소수 민족이라는 차별 의식도 거의 없이 조선족의 장점을 살리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민족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대부분이 중국 사람인데 그들과 살다 보니까 그들과 틀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선족이라면 조선족답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대련, 여성 직장인)

“취직할 때도 조선말도 하고 중국어도 하니까 장점이 있고 우리는 일본어 중국어 조선어를 하니까 도움이 되요.” (대련, 여성 직장인)

“어릴 때부터 조선족이 어느 민족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 것이나 다 좋아요. 특히 예의상에서 긍지를 느끼고 조선족으로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대련, 여성 직장인)

“조선족은 음식도 맛있고 깨끗해요. 조선족끼리는 한 밥상에서 식사할 때 친절한데 한족과 있을 때는 술 마시는 습관이 다르고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요.” (대련, 여성 직장인)

“조선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조선족은 세상에 내놔도 우수하고 또한 백의민족으로 깨끗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연변, 여학생)

“자랑스럽습니다. 백의민족이고 예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자신이 한민족의 후손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소수민족이지만 한족과 사귄 때 자랑스럽고 한국이 발전해서 같은 민족이지만 따라가고 전도

가 있고 언어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소수민족가운데서 조선족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발전했고 우리와 같은 후손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훈춘, 여고생)

“매우 자랑스러워요. 두 가지 언어를 하니까 주변에서 받들어 주어서 좋아요. 조선족이 우세하다고 많이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우대도 받고 조선족은 자랑스러워요. 특히 외교분야에서 한국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기뻐고 자부심이 있고 한국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조선민족이 발전하면 한국이 발전하니까. 외국에 나가면 조선족을 한국이라 생각해서 좋아요. 한국과 북한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훈춘, 여고생)

“언어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특별히 소수민족으로서 차별대우는 경험이 없고 저희가 소수민족이므로 대학시험으로 볼 때 한어를 안치니까 소수민족 우대를 받고 한족보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고 소수 민족이라기보다 조선족인 것이 좋아요.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것을 다른 민족이 부러워하고 우리는 교육이 잘되어서 그런지 전체교육이 잘되고 있고 한족이 부러워해요. 조선족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북경, 여학생)

“동화는 찬성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1번 학생처럼 소학교는 조선학교 초중부터 한족어를 배우는 것이지 동화는 원하지 않고 중국조선족은 동화되는 것은 찬성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화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변대, 여학생)

#### 14) 한민족단체 가입 여부

조선족 청소년으로서 한민족단체에 가입한 학생은 전혀 없다. 일부는 교회에서 한국유학생과 접촉은 있지만 중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은 경계의 대상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민족단체에는 가입한 적도, 가입할 마음도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민족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고 다만 한국유학생과 교회에 간적이 있는 것 밖에는 없어요. 단체는 이후에 참가하고 한국 사람과 어울려서 한국말도 늘리고 싶어요.” (대련, 여성 직장인)

“한민족 단체에는 가입한 적이 없고, 같은 민족이라 하지만 중국인이기 때문에 가입한 적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대련, 여성 직장인)

### 15) 한국인 또는 한국인단체와 교류 여부

한국인 혹은 한국인단체와 교류하는 문제는 취업을 통하여 생활과 언어 면에서 일상 접촉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어 중국에서 한국기업들이 직장을 많이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조선족 청소년들은 대체로 기회가 이루어지면 한국인 및 한국인 단체와 교류하고 싶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혹시라도 오해에서 비롯되는 인식상의 잘못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매일 회사에서는 한국 회사라던가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을 일상생활과 언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어 일어 영어도 같이 쓰는 회사라든지 일자리를 하고 싶어요.” (대련, 여성 직장인)

“기회가 있으면 단체에 가입하거나 한국 사람과 교류를 많이 하고 싶어요.” (연태, 여학생)

“한국과는 학교와 학교간 교류가 많으면 좋겠어요. 모두 대학생이니까 사상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 가고 싶어요.” (연태, 여학생)

“한국유학에는 처음에는 무조건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학비를 집에서 조달이 없어 아르바이트 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어렵고 그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 화학선생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어서 유학가서 힘들게 보내는 학생이 많다고 해서 힘들 것 같아요.” (연태, 여학생)

“한국은 땅이 좁고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서로 도와주면서…….” (훈춘, 여고생)

#### 16) 한국정부와 단체의 조선족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정부나 한국인 단체가 주로 문화교류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기를 선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 교류를 강화하면서 유학할 때의 장학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컴퓨터 사이트의 설치, 영어교재나 도서(역사교과서)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지원들이 학교간 교류를 통한 자연스러운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문화면에서 조선족도 한민족이니까 한국문화를 교류하면 좋겠어요.” (대련, 여성 직장인)

“청소년은 거의 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고 교환학생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통문화를 조선족에게 잘 알려주는 것과 도서기여나 도서추천이 중요해요.” (대련, 여성 직장인)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정부에서 전세계 조선족을 위한 컴퓨터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대화도 건의도 할 수 있는 조선족을 위한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선족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어 건의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어요.” (연변, 남학생)

“한국정부에서 한국선생님을 많이 파견했으면 좋겠어요. 교학방식이나 학적환경을 좋게, 영어 등에서요. 영어를 직접 교재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조선족학생도 한국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연변, 남학생)

“무엇 해주기보다 중국학생들이 지금보다 쉽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는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교류한 학생만 가니까 다른 학생은 무조건 기회가 없다고 들어서 많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회가 없어요. 배우는 방면에서 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연태, 여학생)

“지금 경제방면에서 이곳은 한국과 차이가 대단히 나니까, 부족한 것이 경제적인 것이니까 장학금이나 생활이 가난한 학생에게 보조금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더 잘하라는 지지장학금도 주었으면 좋겠어요.” (훈춘, 여고생)

“경제상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연변과 한국의 인재끼리 결합해서 잘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교류가 많았으면 해요. 특히 조선족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으면. 조혈기능으로 스스로 별수 있어 부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훈춘, 여고생)

“청소년 교류가 많았으면 해요. 저희는 지금 북경에서 학교 다니고 있지만 연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락시설은 많은데 형편이 안 좋아요. 지금 연변에 있는 애들에게는 일자리라던가 큰 공장이 없으니까 한국에 돈 벌러 가요. 연변에 큰 공장을 세워서 이산가족이 되지 않고 가족이 다 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북경, 여학생)

“민족문화나 역사에 관한 책을 보내주세요. 연길은 그래도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는 애들에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을 주면 좋겠어요. 농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고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한국에 유학 간 애들은 부자들이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도 갈 수 있지만 조건이 좋지 않은 애들에게 우대정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교육이 발달해야 경제도 발달하니까요.” (북경, 여학생)

### 17) 한국정부와 단체의 조선족 청소년을 위한 인적 지원 활용정책

조선족 청소년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조선족의 취업을 증가시키고 한족 또는 한국인과 차별 대우 없는 고용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는 한국인이 은연중 조선족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정부나 단체가 중국 동북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지역에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혹은 자매학교 등을 세워 장차 조선족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회사가 많이 들어오면 취직의 기회도 좋고 돈벌러간 부모님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들이 이곳에 많이 진출하고 조선족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배려해주면 우리 청소년들도 편부모가족이 되지 않고 좋겠어요.” (대련, 여성 직장인)

“회사에서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평등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따지지 말고 평등하게요.” (연변대, 여학생)

“한국기업에서 취직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높은 관직도 맡을 수 있고 대우 방면도 차이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훈춘, 여고생)

“중국 사람과 조선족과 경쟁할 때 중국에서는 중국인이 득세하지만 같이 동등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한족보다 조선족학생을 먼저 등용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상황이라면…….” (훈춘, 여고생)

“한국에 데려가는 것이 어려우면 연변에 와서 전문학교라든지 세워서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대학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특정한 분야의 전문학교를 세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북경, 여학생)

## 18)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선족 청소년들은 대체로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다만 정신적인 면 즉,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롭고 해외에도 진출하기를 원하는 욕망과 관련한 한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한 한국에 대한 소개자료가 한국어로 된 것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중국에 와서 취업이나 사업을 꾸려 경제적인 성장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은 만족하나 정신적으로는 어려워요. 한국에 대해서 조선어로 된 자료가 많으면 좋겠어요. 대개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는 참고서가 많으면 좋겠어요.” (대련, 여성 직장인)

“만족해요. 그러나 부모가 외국에 있는 것이 싫어요. 돈이 필요해서 간 것이니까 빨리 취직해서 자기 사업을 꾸리고 부모가 빨리 왔으면 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연변, 여학생)

“생활상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만족하나 여기서 자라고 해서 많이 나가 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연변, 여학생)

“저는 만족해요. 점수로 보면 80점 정도 돼요. (사회; 왜 100점이 안 돼요?) 사회와 접촉이 안 되는 것 때문이에요. 환경이 만족하기보다 외부와 접촉하는 것이 적어서 이는 것이 적다고 생각해요.” (연태, 여학생)

“만족해요.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이 목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연태, 여학생)



## VIII. 결론 및 정책제안 :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언

1. 요약
2.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제언
3. 결론



## VIII. 결론 및 정책제안 :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민족 청소년인 조선족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한국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 차원에서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청소년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및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고 해외 한민족 청소년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자료(선조세대들의 이주와 정착과정, 인구이동과 변화, 경제와 생활 실상, 교육 문화 실상 등)를 분석하였고, 실제로 조선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토론조사를 통해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고 이들이 한국과 관련한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변지역, 북경, 산둥성, 요녕성 및 흑룡강성과 상해 등을 포함한 기타지역 등 5개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비교적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자신이 중국에 온지 몇 대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선족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3세대 째 이상인 것으로 답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3분의 1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은 비교적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되었다. 중국사회에 동화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 하나가 조선족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는가에 관한 것인데 조사대상자의 절대다수인 95.8%가 조선족 초등학교(소학교)를 다녔고 94.6%가 조선족 중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선족 청소년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상용어로는 아니든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민족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4.4%가 조선족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응답자의 이성 친구 가운데 85.8%는 조선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응답자의 74.9%는 앞으로 결혼 상대로 조선족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 세 경우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조선족 청소년들의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적인 결집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어나 한민족배경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선조들의 모국인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적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족 청소년들은 자기가 한민족 후손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한류’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조선족 청소년들 가운데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한 예로 조선족 청소년들의 한국드라마 시청 상황을 알아보면, 응답자의 56.4%는 한국드라마를 자주 시청한다고 답하고 있고 36.5%는 가끔 시청한다고 답하여 전체응답자의 92.9%가 한국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드라마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 청소년들 가운데 한류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결과 조선족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은 실제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 한국 연수계획이나 한국관련 취업희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과 관련된 유학이나 취업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2.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제언

이 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청소년정책 및 인적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VIII-1>은 한국정부의 청소년정책과 인적지원정책에 대한 조선족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장 많은 41.0%의 응답자들이 금전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한국초청 훈련지원(17.5%), 기자재 및 교재 지원(9.0%), 교사파견(8.9%), 한국청소년과 교류지원(6.6%), 단기방문지원(4.2%), 인턴프로그램 지원(3.2%) 및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3.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점집단 토론을 통해서 나타난 바를 살펴보면,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정부나 한국인 단체가 주로 문화교류와 교환학생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주기를 선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 교류를 강화하면서 유학할 때의 장학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컴퓨터 사이트의 설치, 영어교재나 도서(역사교과서)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지원들이 학교간 교류를 통한 자연스러운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표 VIII-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정부의 인적지원정책에 대한 조선족 청소년들의 의견을 보면, 조사대상자의 42.2%가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조선족 청소년들의 진학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 다음으로 28.6%의 응답자가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에 조선족 청소년들을 취업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23.2%가 조선족 청소년들을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

초점집단 토론을 통해서 나타난 조선족 청소년들의 기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조선족의 취업을 증가시키고 한족 또는 한국인과 차별 대우 없는 고용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는 한국인이 은연중 조선족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정부나 단체가 중국 동북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지역에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혹은 자매학교 등을 세워 장차 조선족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과 진학 및 취업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XIII-1〉 한국정부의 청소년정책과 인적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청소년정책	빈도	%	인적지원정책	빈도	%
금전적 지원	327	41.0	한국학교 진학지원	333	42.2
한국초청 훈련지원	140	17.5	현지 한국기업취업	226	28.6
기자재 및 교재지원	72	9.0	한국내 취업지원	183	23.2
교사파견	71	8.9	기타	47	6.0
한국청소년과 교류지원	53	6.6	합계	789	100.0
단기방문지원	34	4.2			
인턴프로그램 지원	26	3.2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	24	3.0			
취업지원	15	1.9			
어학연구지원	12	1.5			
기타	24	3.0			
합계	798	100.0			

### 3. 결 론

결론적으로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형성 방안이란 대주제하에, 조선족 청소년들의 생활배경을 조사한 근거와 그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조선족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란 다민족 사회에서 조선족은 한민족 해외 동포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점하며 또한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인접해 있어 우리 한반도의 상황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포일 뿐만 아니라 무수한 역경을 극복하면서 조선족자치주를 운영하고 고유한 한민족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국가적으로 중국 조선족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족의 생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동북지역에의 집중 투자와 함께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장려하고 조선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선족의 경제적 수준 향상과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하여 상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선족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에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남과 북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주고 맺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조선족은 북한이 개방을 본격화하거나 한반도가 통일되는 과정이나 통일 이후에 그들의 전략적인 위치도 부상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미래에 동북아경제권이 중요해질 때, 조선족 사회는 동북아경제권을 주도할 한민족 네트워크의 한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차 조선족 사회의 지도자와 각 방면의 젊은 인재들을 양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들 인재들을 점차 한국의 인재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속적인 교류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선족의 청소년과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이나 산업연수 등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모국 방문취업은 이미 제도화되어 앞으로 활성화되리라 기대되지만 조선족 학생들의 유학 여건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조선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기숙사 제공 같은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오히려 한족 유학생과 비교하여 이러한 분야의 혜택에서 역차별 당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해외동포 지원을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의

올해(2007년도)예산은 300억 원 정도이며, 그 중점사업은 입양동포와 차세대의 모국 문화체험, 극소수의 장학사업, 모국어 교육 등에 할애하는 정도이다. 더욱이 그 예산의 대부분은 북미지역이나 일본에 할당되며 중국 조선족이나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지역의 고려인들에게는 아직은 매우 적게 할당하고 있음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전승시키고 강화할 수 있는 매체인 조선족 언론기관과 출판사 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한민족의 정신과 언어, 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신문, 방송 그리고 출판사 등 매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점점 고사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연변일보 2007. 2. 11일자) 우리가 이러한 조선족 매체들과 유대를 강화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제언을 하였으나, 중국정부는 항상 ‘민족문화’는 장려하고 존중해 왔지만 ‘민족의식’이 민족분리주의로 흐르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조선족청소년들의 지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하는데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조선족과 관련하여 중국정부에게 자극적이거나 경계심을 유발할만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조선족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한국어 자료>

- 권태환(2005). 조선족 인구의 추세. 권태환 편저.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태환 편저(2005).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태환, 박광성(2005). 교육과 조선족 사회의 위기. 권태환 편저.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강일(1997). 중국조선족 : 사회의 문화우세와 발전전략.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 김익기(1997).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을 위한 예비작업-중국조선족의 통일에 관한 의식 조사. 대한민국 외무부.
- 김익기 편(1999). 한국사회조사분석. 서울 : 사회조사연구소.
- 노고은(2001). 기대와 현실 사이 : 한국내 조선족노동자의 삶과 적응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성(2003). 한국의 조선족노동자집단의 유입, 정착,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성(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 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규(2005). 북경의 조선족. 권태환 편저. 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창근(2006). 새로이 형성되는 중국 한인사회. 서울 : 대륙전략연구소 학술회의 발표논문.
- 윤인진(2002).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적응·정체성.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광규(2002). 격동기의 중국조선족. 서울 : 백산서당.
- 이병호(1997).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 서울 : 학교방.
- 이윤기(2007). 재중동포의 실상과 문제점. 백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 백산학회.
- (2005). 잊혀진 땅 간도와 연해주. 서울 : 화산문화.
- 정신철(1999). 중국조선족사회의 변천과 전망. 심양 : 요녕민족출판사.

- 정관룡(1999). 중국조선족과 21세기. 중국 :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최응용·임채완·이장섭·강태구·윤순석(2005). 중국 조선족사회의 경제환경. 서울 : 집문당.
- 최우길(2000). 중국조선족의 정체성 변화, 위치와 역할.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국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한국 : 한국정신문화원.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승직 편(1988). 연변조선족자치주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서울 : 고려대학교출판부.
- 황유복(2002). 중국조선족사회와 문화의 재조명. 심양 : 요녕민족출판사.

### <중국어 자료>

- 潘龍海·黃有福(2002). 跨入二十一世紀的中國朝鮮族. 延吉 : 延邊大學出版社.
-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執筆小組(2001). 延邊朝鮮族自治州概況. 延吉 : 延邊人民出版社.
-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2000). 延邊統計年鑑. 延吉 : 延邊統計局.
-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2007). 2006年國民經濟社會發展及統計年譜. 延吉 : 延邊朝鮮族自治州.
- 鄭判龍(1999). 中國朝鮮族與21世紀. 中國 :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朝鮮族略史編纂組(1986). 朝鮮族略史. 延吉 : 延邊人民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人口調查辦公室及國家統計局(2003). 中國2000年人口調查資料.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2005). 2000年全國教育事業發展統系公報.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 崔厚澤(2007). 延邊人口問題與邊境人口安全問題對策研究. 延吉 : 延邊大學(未刊論文).
- 韓俊光(1990). 中國朝鮮族的人物傳. 延吉 : 延邊人民出版社.

### <언론매체 및 온라인 사이트>

- 연변일보. 2005.11.25 ; 2005.12.2 ; 2007.2.11.
- 길림신문. 2002.5.14 ; 2005.12.10 ; 2006.3.11 ; 2006.3.24 ; 2007.6.27.
- 흑룡강신문. 2003.12.8 ; 2005.1.11 ; 2007.6.26.
- 요녕조선문보. 2005.4.22 ; 2005.6.3 ; 2006.4.19.
- 연변인민방송. 2007.1.8.

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 <http://www.ckywf.com>

연변통신. <http://www.yanbianforum.com>

연변뉴스사이트. <http://www.ybnews.cn>.

온라인 중국정보. <http://www.onbao.com>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http://www.yanbian.gov.cn>.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서울사무소. <http://china.yanbian.gov.cn>.



## 부 록

1. 중국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
2. 중국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중국어)
3. 조선족 청소년 Focus Group Discussion Guideline
4.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 내용



## 1. 중국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조선족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조선 땅에서 중국으로 오게 되었으며 현재 정착하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환경은 어떠한지, 또한 부모님들의 고향인 한국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응답결과는 통계적으로만 처리될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유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각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 5.

### I. 기본 인적사항

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도시이름)?

( )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세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남성          \_\_\_\_\_ ② 여성

4. 귀하의 현재 신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고등학생          \_\_\_\_\_ ② 대학생          \_\_\_\_\_ ③ 대학원생

\_\_\_\_\_ ④ 직장인          \_\_\_\_\_ ⑤ 무직

\_\_\_\_\_ ⑥ 기타 ( 구체적으로, )

5. 귀하의 장래 직업은 아래 번호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___ ① 전문직 등 (변호사, 예술가, 교수, 학자, 의사, 회계사, 교사 등)
___ ② 고위관리직 등(정부 3급 이상 공무원, 행정관리자, 기업체 임원·이사, 장교 이상의 군인 등)
___ ③ 사무직 등(정부 행정 공무원, 기업체 사무직 종사자, 은행원, 경찰, 하위직 군인 등)
___ ④ 자영업(9인 이하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 주인, 개인택시 운전사 등)
___ ⑤ 판매종사자(도소매업 종사자, 보험 및 부동산 거래인, 외판원, 점원 등)
___ ⑥ 서비스직 종사자(음식숙박업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이발사, 미용사 등)
___ ⑦ 농업, 어업, 임업
___ ⑧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 및 단순 노무자(공장근로자, 일용노동자 등)
___ ⑨ 가정주부
___ ⑩ 무직
___ ⑪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 ① 기독교	___ ② 불교	___ ③ 천주교
___ ④ 유교	___ ⑤ 이슬람교	___ ⑥ 종교 없음
___ ⑦ 러시아정교	___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7. 귀하를 이민 몇 세대입니까?

(1.5세대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6~18세 중에 이민을 간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1세대와 2세대와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___ ① 1세대	___ ② 1.5세대	___ ③ 2세대	___ ④ 3세대
___ ⑤ 4세대	___ ⑥ 5세대	___ ⑦ 기타	

## II. 부모와 가정 형편

1. 귀하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까?

- \_\_\_\_\_ ① 부모님 모두 생존      \_\_\_\_\_ ② 부만 생존  
\_\_\_\_\_ ③ 모만 생존      \_\_\_\_\_ ④ 부모님 모두 사망

2.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족배경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아버지만 한인      \_\_\_\_\_ ② 어머니만 한인  
\_\_\_\_\_ ③ 두 분 다 한인

3. 귀하는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 \_\_\_\_\_ ① 혼자 산다      \_\_\_\_\_ ② 부모님과 같이 산다  
\_\_\_\_\_ ③ 부와 같이 산다      \_\_\_\_\_ ④ 모와 같이 산다  
\_\_\_\_\_ ⑤ 형제나 자매와 같이 산다  
\_\_\_\_\_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4. 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빈칸에 아래 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현재 안 계시면, 생전의 학력)

(1) 아버지 (아래 번호 중): \_\_\_\_\_ 번

(2) 어머니 (아래 번호 중): \_\_\_\_\_ 번

- |                            |                    |
|----------------------------|--------------------|
| _____ ①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셨다    | _____ ② 초등학교 중퇴·졸업 |
| _____ ③ 중학교 중퇴·졸업          | _____ ④ 고등학교 중퇴·졸업 |
| _____ ⑤ 대학교 중퇴             | _____ ⑥ 대학교 졸업     |
| _____ ⑦ 대학원 이상             |                    |
|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



8. 귀하 가족의 생활수준은 나라 전체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낮은 편이다                      \_\_\_\_\_ ② 비교적 낮은 편이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비교적 높은 편이다  
 \_\_\_\_\_ ⑤ 매우 높은 편이다

9. 귀하는 현재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 \_\_\_\_\_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_\_\_\_\_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_\_\_\_\_ ③ 보통이다                                      \_\_\_\_\_ ④ 만족하는 편이다  
 \_\_\_\_\_ ⑤ 매우 만족한다

### Ⅲ.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을 하신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1	2	3	4	5
5.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1	2	3	4	5
6.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1	2	3	4	5
7. 부모님은 내가 한국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1	2	3	4	5

#### IV. 한국에 대한 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향후 2-3년 내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	1	2	3	4	5
4.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1	2	3	4	5
5.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1	2	3	4	5
6. 나는 배우자로 한국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7. 한국과 관련성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10. 한국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1	2	3	4	5

11.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 \_\_\_\_\_ 번) \_\_\_\_\_ ② 없다

12. 귀하는 평소에 한국 뉴스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_\_\_\_\_ ① 매일 듣고 있다      \_\_\_\_\_ ② 2,3 일에 한 번 듣고 있다  
 \_\_\_\_\_ ③ 일주일 에 한 번 듣고 있다      \_\_\_\_\_ ④ 별로 안 듣는다  
 \_\_\_\_\_ ⑤ 전혀 안 듣는다

13. (한국 뉴스를 듣는다면), 누구를 통해 듣고 있습니까?

\_\_\_\_\_ ① TV      \_\_\_\_\_ ② 라디오      \_\_\_\_\_ ③ 인터넷  
 \_\_\_\_\_ ④ 신문, 잡지      \_\_\_\_\_ ⑤ 친구나 친지  
 \_\_\_\_\_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14. 귀하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를 시청한적 있습니까?

- \_\_\_\_\_ ① 자주 시청한다.                      \_\_\_\_\_ ② 가끔 시청한다.  
 \_\_\_\_\_ ③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_\_\_\_\_ ④ 중계가 안 되어 시청할 수 없다.

15. (시청한적 있다면) 귀하는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_\_\_\_\_ ① 매우 재미있다.                      \_\_\_\_\_ ② 재미있는 편이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유치하고 재미없다.

16. 귀하는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매우	약간	어느 쪽도 아님	약간	매우	
좋다	<input type="checkbox"/>	나쁘다				
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적이다				
친밀하다	<input type="checkbox"/>	친밀하지 않다				

좋다 vs. 나쁘다 = good vs. bad; 능력이 있다 vs. 능력이 없다 = capable vs. incapable; 활동적이다 vs. 비활동적이다 = active vs. inactive; 친밀하다 vs. 친밀하지 않다 = intimate vs. not intimate

17. 귀하는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매우	약간	어느 쪽도 아님	약간	매우	
좋다	<input type="checkbox"/>	나쁘다				
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적이다				
친밀하다	<input type="checkbox"/>	친밀하지 않다				

## V.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민족 배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설, 추석, 단오, 한식 등 한국의 전통 명절을 쇠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한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1	2	3	4	5
5.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1	2	3	4	5

## VI. 한민족 정체성 관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2. 나는 한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주로 한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한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한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1	2	3	4	5

## VII. 네트워크 구축 관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	2	3	4	5
2.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	2	3	4	5
4.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1	2	3	4	5
5. 나는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한다.	1	2	3	4	5
6.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7.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8.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1	2	3	4	5
9.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10.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1	2	3	4	5

11. 귀하는 한국 정부나 관련 단체 등이 해외 한민족 청소년들에 대해 어떤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 \_\_\_\_\_ ① 현지 능력개발 관련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  
 \_\_\_\_\_ ② 능력개발 관련 기자재 및 교재 지원  
 \_\_\_\_\_ ③ 능력개발 관련 교사 파견 지원  
 \_\_\_\_\_ ④ 한국으로 초청하여 직업교육이나 훈련 실시  
 \_\_\_\_\_ ⑤ 한국 청소년과 교류 프로그램 제공  
 \_\_\_\_\_ ⑥ 원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_\_\_\_\_ ⑦ 단기방문 지원  
 \_\_\_\_\_ ⑧ 어학연수 지원  
 \_\_\_\_\_ ⑨ 장, 단기 취업지원





3.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_\_\_\_(1) 중국어    \_\_\_\_ (2) 조선어  
\_\_\_\_(3) 기타 (구체적으로,                    )

4. 아래의 항목별로 귀하의 친한 친구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4-1. 조선족 친구                    (                    )명  
4-2. 기타 중국인 친구            (                    )명  
4-3. 한국인 친구                    (                    )명

5. 귀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_\_\_\_(1) 조선족    \_\_\_\_ (2) 기타 중국인    \_\_\_\_ (3) 한국인  
\_\_\_\_(4) 기타 (구체적으로,                    )

6. 귀하는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_\_\_\_(1) 있다 (7번으로)                    \_\_\_\_ (2) 없다

7. (이성 친구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_\_\_\_(1) 조선족    \_\_\_\_ (2) 기타 중국인    \_\_\_\_ (3) 한국인  
\_\_\_\_(4) 기타 (구체적으로,                    )

8. 앞으로 결혼 상대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_\_\_\_(1) 조선족    \_\_\_\_ (2) 기타 중국인    \_\_\_\_ (3) 한국인  
\_\_\_\_(4) 기타 (구체적으로,                    )

9. 한국은 금년 3월 해외동포 방문취업제를 입법화하여 한국에서의 취업  
이 쉬워진 점에 대해 귀하의 생각은?

\_\_\_\_ ① 방문취업을 꼭 한번 하고 싶다.  
\_\_\_\_ ②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

\_\_\_\_\_③ 한국어를 못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_\_\_\_\_④ 방문취업은 전혀 하고 싶지 않다.

10. 귀하는 현재생활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_\_\_\_\_ 점

(장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중국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중국어)

### 中国朝鲜族青少年的生活状况问卷调查

您好！

本人此次将进行关于中国朝鲜族青少年生活状况的研究。此研究主要调查现在中国朝鲜族青少年怎样生活；父母经过何种途径从朝鲜半岛迁入到中国；现定居处的生活环境如何；与父母的故国--韩国的关系如何等事宜。调查结果只用于统计资料，不会有个人资料的外流。

望认真如实地填写每项问题。

感谢您的合作！

2007. 5

### I. 个人基本情况

1. 您现在居住的地方（城市名称）？（                      ）
2. 您的年龄？      满（                      ）岁
3. 您的性别？  
①男                      ②女
4. 您现在的身份？  
①高中生              ②大学生              ③研究生  
④职员                  ⑤无业                  ⑥其它（具体，              ）

5. 您将来要从事的职业是下列选项中的哪一个？

<input type="checkbox"/> ①专业行职业等 (律师, 艺术家, 教授, 学者, 医生, 会计, 教师等)
<input type="checkbox"/> ②高级官吏等 (政府 3级以上公务员, 行政管理者, 企业负责人, 理事, 将校以上的军人等。)
<input type="checkbox"/> ③行政职 (白领) 等 (政府行政公务员, 企业白领, 银行职员, 警察, 下级军官等)
<input type="checkbox"/> ④个体经营 (9人以下小规模の生意及从事家族经营者, 木作坊主人, 出租车司机等。)
<input type="checkbox"/> ⑤从事销售业者 (从事批发零售者, 保险及房地产交易者, 推销员, 营业员等)
<input type="checkbox"/> ⑥从事服务行业者 (餐饮, 旅馆管理者及相关人员, 理发师, 美容师等。)
<input type="checkbox"/> ⑦农业, 渔业, 林业。
<input type="checkbox"/> ⑧从事生产及其相关职业者, 运输及单纯劳动者 (工厂工人, 临时工等。)
<input type="checkbox"/> ⑨家庭主妇
<input type="checkbox"/> ⑩无业
<input type="checkbox"/> (11) 其它 (具体,            )

6. 您信仰的宗教是什么？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基督教   | <input type="checkbox"/> ②佛教                   | <input type="checkbox"/> ③天主教 |
| <input type="checkbox"/> ④儒教    | <input type="checkbox"/> ⑤伊斯兰教                 | <input type="checkbox"/> ⑥无宗教 |
| <input type="checkbox"/> ⑦俄罗斯正教 | <input type="checkbox"/> ⑧其它 (具体,            ) |                               |

7. 您是移民第几代？

(所谓1.5代是指出生后在6-18岁时移民的人, 认为自己的主体性与第一代和第二代有所区别的人。)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第1代 | <input type="checkbox"/> ②1.5代 | <input type="checkbox"/> ③第2代 |
| <input type="checkbox"/> ④第3代 | <input type="checkbox"/> ⑤第4代  | <input type="checkbox"/> ⑥第5代 |





9. 整体上您对现在生活的满意程度？

- ①完全不满意                      ②不怎么满意  
 ③一般                                ④较满意  
 ⑤很满意

### III. 与父母相关的家庭生活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跟父母对话时用韩国语	1	2	3	4	5
2. 父母大体上说韩国好	1	2	3	4	5
3. 父母希望我学韩国语	1	2	3	4	5
4. 父母希望我找与韩国相关的职业	1	2	3	4	5
5. 父母给子女教韩国语	1	2	3	4	5
6. 父母喜欢做韩国料理	1	2	3	4	5
7. 父母希望您跟韩国人结婚吗？	1	2	3	4	5

### IV. 对韩国的关心

	完全不那样	不怎么那样	一般	大体上那样	非常那样
1. 关心与韩国相关的新闻	1	2	3	4	5
2. 计划在2-3年内访问韩国	1	2	3	4	5
3. 有在韩国进修或学习的计划	1	2	3	4	5
4. 如果有机会想访问韩国	1	2	3	4	5
5. 想跟与我同龄的韩国青少年进行交流	1	2	3	4	5



16. 您认为韩国是什么样的国家？

	很	稍微	哪一个也 不是	稍微	很	
好	<input type="checkbox"/>	不好				
有能力	<input type="checkbox"/>	沒有能力				
活躍	<input type="checkbox"/>	不活躍				
親切	<input type="checkbox"/>	不親切				

好vs.不好=good vs.bad; 有能力 vs. 沒能力=capable vs.incapable;  
 活躍vs. 不活躍=active vs.inactive;親切vs.不親切=intimate  
 vs.not intimate

17. 您对韩国人的印象如何？

好	<input type="checkbox"/>	不好				
有能力	<input type="checkbox"/>	沒有能力				
活躍	<input type="checkbox"/>	不活躍				
親切	<input type="checkbox"/>	不親切				

很稍微哪一个也不是稍微很

## V. 对韩国语言和文化的关心

	完全不 那樣	不怎么 那樣	一般	大体上 那樣	非 常那樣
1. 因為我是韓民族，在平時生活中有很多有利因素	1	2	3	4	5
2. 過春節，中秋，端午，清明節等韓國的傳統節日	1	2	3	4	5
3. 關於韓民族的文化我很了解	1	2	3	4	5
4. 我能听懂韓國語	1	2	3	4	5
5. 我會說韓國語	1	2	3	4	5
6. 我會讀，寫韓國語	1	2	3	4	5

## VI. 关于韩民族的主体性

	完全不 那樣	不怎么 那樣	一般	大体上 那樣	非常那 樣
1. 我以我是韓民族的後代而感到自豪	1	2	3	4	5
2. 我努力了解韓民族的歷史，傳統，習慣等。	1	2	3	4	5
3. 我積極參與主要由韓國人組成的組織或社會團體（協會，同好會，同鄉會等）	1	2	3	4	5
4. 我很了解韓民族的背景。	1	2	3	4	5
5. 我因自己是韓民族的一員而感到自豪。	1	2	3	4	5
6. 關於韓民族我經常跟別人談。	1	2	3	4	5





6. 您什么时候来到现居住地的？（            ）年前
7. 您来到现居住地时跟谁一起来的？  
 ①自己            ②全家人一起            ③跟兄弟姐妹一起  
 ④跟亲戚一起            ⑤其它（具体，            ）  
 ⑥没移居
8. 您来到现居住地的原因是什么？  
 ①为了学习            ②因工作单位            ③因家人都来  
 ④其它（具体，            ）            ⑤没移居

## IX. 在中国的生活状况

1. 您上了哪种小学？  
 ①汉族学校            ②朝鲜族学校            ③其它（具体，            ）
2. 您上了哪种中学？  
 ①汉族学校            ②朝鲜族学校            ③其它（具体，            ）
3. 您在日常生活中用哪种语言？  
 ①汉语            ②朝鲜语            ③其它（具体，            ）
4. 下列各项中您最好的朋友有几名？  
 4-1  朝鲜族朋友            （            名）  
 4-2  其它中国朋友            （            名）  
 4-3  韩国人朋友            （            名）



### 3. 조선족 청소년 Focus Group Discussion Guideline

1. 귀하의 가정에서 처음 중국에 온 분은 누구십니까? 또 그 분은 언제 한국의 어디에서 중국의 어디로 왔습니까?
2. 귀하 부모님의 민족배경은 무엇입니까?
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 왔고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5. 귀하는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소(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어떤 중학교를 다녔습니까?
6. 귀하는 평상시 주로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들과 어울립니까? 귀하는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입니까?
7.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때 조선족과 한족 중에서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8. 귀하는 평소에 중국어와 한국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9. 귀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10. 귀하는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갔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이 어떠했는지요? (없었다면) 앞으로 한국을 방문

할 계획이 있는지요? 또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하십니까?

11. 귀하는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요? 가끔 한국 뉴스를 듣는지요? (듣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듣는지요?
12. 귀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요? (본다면)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또 왜 보는지요?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는 어떻게 다른지요?
13. 귀하는 중국에서 불고 있는 ‘韓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4. 귀하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5. 귀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요?
16. 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학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지요?
17. 귀하는 본인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중국에서 소수민족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8. 귀하는 현재 한민족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19. 귀하는 현재 한국인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인단체와 교류를 하고 싶은지요?

20.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원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인적 지원  
활용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2.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 4.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discussion)내용

##### Focus group discussion guideline #1

(연변대 역사학과 2학년)

토론시간: 2007. 5. 25 14:00 - 15:50

토론장소: 연길시 라경반점(Hotel)

사회: 김익기 교수

참석자: 1. 박 00 (남자, 연변대 역사학과 2학년)

2. 박 00 (남자, 연변대 역사학과 2학년)

3. 신 00 (여자, 연변대 역사학과 2학년)

4. 한 00 (여자, 연변대 역사학과 2학년)

사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변대 역사학과 학생들인데요. 편의상 번호로 지명할게요.

1. 귀하의 가정에서 처음 중국에 온 분은 누구십니까? 또 그 분은 언제 한국의 어디에서 중국의 어디로 왔습니까?

사회: 1번부터 차례대로 말해 주세요.

1: 할아버지께서 순천에서 왔고 할머니는 그 후에 온 것 같고...처음에 흑룡강성으로 왔고...

(사회: 연변으로는 언제 오셨어요?) 연변은 할아버지가 청년 때 왔어요.

사회: 2번 학생은 어때요?

2: 증조할아버지는 함경북도 회룡쪽에서 오셨고 연변으로 와서 연변에서 계속 살고 할아버지가 화룡인지 경성인지 여기에서 계속 살아요.

- 3: 할머니가 길림성의 장춘에서 오셨어요. 구체적으로 한국 어디지는 몰라요.  
 4: 우리 집은 2번과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증조할아버지가 할아버지 2살 때 왔고 줄 곧 여기서 살아요.  
 사회: 증조할아버지 때 서로 아셨나?  
 4: 아니요.

## 2. 귀하 부모님의 민족배경은 무엇입니까?

- 사회: 부모님은 다 조선족인가요?  
 모두: 예.

## 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 왔고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2: 같이 다 생존해 계세요.  
 사회: 3번은 유학 왔다며? 부모님은 현재 한국에 계시고?  
 3: 예.  
 사회: 그럼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 4번은 여기에 같이 살고 있고?  
 4: 예.

## 4.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1: 예 부모님은 자영직업을 꾸리고 있고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사회: 어디에서? 대학에서?) 예.  
 사회: 연변 아니면 다른 지방? 계속 박사까지 공부해요?  
 1: 예, 그래요.  
 2: 우리 집 부모는 연변대학에서 아버지는 행정업무이고 어머니는 회계사질

하고 있고...

나는 시야를 넓히고 싶어요.

사회: 외국에서, 중국에서?

2: 예. 중국 남방에서 기술을 배워도 좋고 다시 연변으로 와서

사회: 그럼 연변대 졸업하고?

2: 예. 먼저 남방을 가서 시야를 넓히고 다시 연변에 오겠어요. 공부는 그다음에 하려고요.

3: 저의 엄마는 한국 식당에서 한국요리하고요 .아버지는 아파서 집에 계세요.

사회: 가신지는 얼마 되었어요?

3: 2년 되었고.

사회: 언제 오실 계획이에요?

3: 내가 한국에 가면 그때 오세요. (사회: 앞으로의 계획은?) 가이드 하고 여행사를 하고 싶어요. 사회: 라오반(사장)이요? 아니요 큰 여행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4: 아버지는 병원에서 회계사업을 하고 어머니는 운수공사에 직원으로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좋아요 유아교육을 하고 싶은 터전을 만들고 싶어요. 유아원을 하고 싶어요.

사회: 다 전공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네요.

1: 저는 역사학이아니라 다른 것을 하고 싶어요.

5. 귀하는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소(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어떤 중학교를 다녔습니까?

1-4: 모두 조선족학교에 다녔어요.

6. 귀하는 평상시 주로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들과 어울립니까? 귀하는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입니까?

1: 같이 어울려요. (사회: 어느 쪽 하고 더 어울리는지?) 반반 이에요.

사회: 여자 친구 있어요? 여자 친구는 한족 친구?

사회: 멋있게 생겼는데?

2: 과찬입니다. 다 같이 어울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선족과 더 친해요. 언어가 통하니까요. 3: 저는 조선족과 더 친하고 한족도 허물이 없습니다. 여자 친구는 있습니다. (사회: 조선족?) 네.

4: 저는 조선족친구와 주로 어울리고 남자친구는 조선족 친구예요. 소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 조선족과 많이 어울리고 대학에서는 다 같이 어울려요.

7.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때 조선족과 한족 중에서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1: 저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회: 몇 년 후에 결혼하나?) 6년 후에요.

2: 조선족이면 좋지만... 변수가 있지 않겠어요?

3: 조선족과요 (사회: 강하게 말하는 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문화 습관이 비슷하니까요.

4: 저는 상관없어요. 공통언어가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8. 귀하는 평소에 중국어와 한국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1: 저는 반반이에요.

2: 대학 전에는 주로 조선말하고 대학이후에는 한족친구가 있어서 기숙사에서 살므로 한족 말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에서는 조선족도 한말을 하니까 한족 말을 합니다.

3: 대학 오기 전에는 한족말만 하고 대학 온 이후는 조선족 말을 좀 했어요. 고등학교까지는 조선족학생과 같이하니까 주로 조선어를 쓰고 대학에 와서는 한족이 있으니 중국어를 써요.

4: 한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어를 쓰게 되요.

9. 귀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1: 저는 조선어, 한어 일부러 영어를 쓰기도 해요.

사회: 영어를 잘해요? 그냥 조금씩.

1: 부모님이 영어를 심취해서 혼련으로 일부러 영어를 써요.

2-4: 저희는 모두 조선어를 써요.

10. 귀하는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갔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이 어떠했는지요? (없었다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 또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하십니까?

1-4: 없어요.

사회: 한국에 방문할 계획 있어요?

1: 3-4년 후에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사회: 교수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겠나?

2: 계획은 없어요. (사회: 지금 계획은 없고 앞으로?)

3: 졸업 후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요. (사회: 전공은 뭘 할 거예요?) 여행관  
리요.

4: 저는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그 후에 한국  
에 가게 되면 가겠어요. 우리 민족이 살고 있으니까요.

11. 귀하는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요? 가끔 한국 뉴스를 듣는지요?  
(듣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듣는지요?

1: 한국뉴스에 관심이 있는데 조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잘 못 듣고 있어요.  
(사회: 무엇을 통해 보나?) 친구를 통해서 듣고 한국 사이트를 통해서 인  
터넷으로 볼 때도 있고요.

2: 저는 자주 보지는 않고 TV를 통해서 보는데 별 관심은 없고 그저 무얼 하는가 보고 있어요. (사회: 그것이 관심 아닌가?) 큰 관심은 없고 그냥 궁금해서 봐요.

사회: 인터넷으로, 아니면?

1: 그냥 TV만 봐요.

3: 드라마와 영화 때문에 보는데 TV나 잡지를 통해서 보고 부모님의 전화를 듣고 한국에 일이 있다고 하면 알아요.

사회: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전화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듣는 것이 많구만.

4: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국제프로그램에 한국뉴스가 있으면 보고 인터넷으로도 보고요.

12. 귀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요? (본다면)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또 왜 보는지요?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는 어떻게 다른지요?

1: 저는 한국드라마를 자주 봐요. 좋아합니다. 재미있어요.

사회: 한국과 중국 드라마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1: ‘연개소문’,이나 한국의 역사드라마를 보고 중국에서는 ‘삼국연의(삼국지)’ 같은 것을 보면, 장비나 영화 질이 한국 것이 나아요. (사회: 그래서 많이 본다?) 네.

2: 한국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중국드라마와 비교해 보면 한국이 더 잘 찍어요. 각본이 좋고 촬영을 잘하고 화면이 좋고...

사회: 내용이 어때요?

2: 한국이나 중국이나 잘 찍으면 다 봅니다.

3: 저는 2번과 같아요.

4: 중국드라마는 정치색이 짙고 한국드라마는 좀 같은 방면이 많다고 생각돼요. 드라마마다. 예를 들어, ‘가을동화’를 보고 다른 것을 보면 내용이 비슷해서 예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드라마는 한국이 낫지만 영화는 중국

영화보다 한국영화가 질이 떨어져요.

2: 저도 찬성입니다.

### 13. 귀하는 중국에서 불고 있는 ‘韓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 한국연예인들이 중국에 와서 잘 활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정현 가수, 강타 등이요.

사회: 비록 중국사람 이지만 한민족 자손인데 한류가 불고 있는데 대한 느낌이 있어요?

1: 아직은 잘 없어요.

2: 연변사람들은 한류가 있어도 감각이 없어요. 한족보다 먼저 접촉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사회: 3번 여학생은? 한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3: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으면 한국드라마 보고 일본 것이 재미있으면 일본 것을 보고, 외국 것이 재미있으면 외국 것을 봐요. 재미있으면 다 봐요. 저는 별로 특별히 한류에 느낌이 없어요.

4: 한국문화가 우리 다른 지방문화와 다름으로 한류가 불고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많은 학생을 볼 때, 소학교 학생들은 몸은 컸지만 어린학생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회: 2번 학생이 말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방영되는 것을 보았으니까 익숙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나?

4: 우리는 다 80년대라 영화 본 것이 10살 때까지는 북조선의 문화가 더 많이 들어왔고 10세 이후에 최수종과 최진실이 나온 ‘질투’를 처음 보았어요. 15년 전에 KBS연예인들이 연변을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보다 한국문화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 14. 귀하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회: 한국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또 한국 사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요?

1: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볼 때 1위예요. 삼성, LG등을 볼 때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작지만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에요.

사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느끼는 것으로 다른 것은 없어요?

2: 한국이란 내 개인으로 보면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한국 TV를 보면 축구 시합시 해설하는 사람이 일방적인 해설을 한다 말이에요. 한국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방송해요. 예를 들면,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인들은 누구의 편을 들지 않고 공정한데요. 한국이 경제는 발전했지만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교만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소수가 교만하고 과격해요.

사회: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2: 한국은 과격하다고요. 한국은 민족정신이 강하고 중국은 민족정신이 약해요. (사회: 중국이 약하다고요? 그런가?) 한국에 비해서요.

사회: 그래요?

3: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깔본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은 냉담해요. 아버지가 말하는데 한국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모른척한다고 했어요. (사회: 냉담하다고?) 예. 그리고 물건을 사러갔는데 한국 여자유학생들이 중국 사람은 좀 그렇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좀 깔보는 것 같았어요.

사회: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3: 한국은 발전하니까 가서 지식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4: 한국은 민족심이 강한데 결점은 좀 허위적이예요. 왜냐하면 예절 면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데 과분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예를 들면?) 허위적이란 말뜻에는 속과 겉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앞

에서는 예절이 바른데 뒤로 돌아서면 다르다 이거예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회: 물론 그렇겠지요.

15. 귀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요?

사회: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1: 조금 예를 들면, 조선족 친구들을 볼 때 청소년들을 보면 한국 복장을 많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한국복장에 대해 많이 좋아해요.

사회: 한국문화를 더 배우고 싶어요?

1: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사회: 2번 학생은?

2: 한국 언어는 알지만 예의를 배우려고 하는데 대부분 잘 몰라요. 중국문화가 있고 해서요. 예를 들어, 제사상이나 절할 때 우리는 TV에서 배우지만 좀 더 민속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3: 장춘에는 한족이 많아요. 인터넷이나 한국 인터넷에서 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부모님이 배우는 대로 배워요.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4: 2번과 같아요. (사회: 자기 생각을 다시 말해 봐요). 음식이나 예절 같은 것이라든지 한국의 민속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예절이나 아까 예절 같은데서 허위적이라 했지만 배워야 할 것은 있다고 봐요. 이 땅에서 자랐으니까 민족문화를 잘 몰라서 민속 문화를 알고 싶어요.

16. 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학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에 가기를 원하는지요?

1: 취업은 별로이고 그냥 한국에 가서 유학하고 싶어요. (사회: 무얼 배우고

싫어요?) 역사방면으로요.

2: 한국에서는 취업하고 싶지 않아요. 중국에서 자랐으니까 한국 문화에 융합되기가 어렵고 중국에 있는 한국회사는 가겠는데 한국에서 한국취업은 생각이 없어요.

사회: 유학은 가고 싶지 않아요?

2: 기회가 주어진다면 갈 수는 있어요.

3: 유학은 좋은데 취업은 싫어요. (사회: 다 비슷하네요).

4: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학을 가고 싶어요.

사회: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1: 한국에서 취업을 싫어하기보다 단기적으로 있고 싶어요. 중국이 고향이니까요. 한국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요. 경험을 쌓고 중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사회: 그러나 한국이 기술도 있고 월급이 많아서 한국에 취업을 구하려 하는데 여기 학생들은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 한국에 취업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3: 그냥 자기 나라가 좋아요. 그냥 중국 여기 있고 싶어요.

4: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기보다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이곳에서 살고 싶으므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사회: 혹시 한국에 가서 생활하면 불편할 것 같다고 느껴요?

1: 아니요.

4: 저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특히 언어상에서요. 말하다가 한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언어상이나 생활상이나 여기서 오래 살아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가 불편할 것 같아요.

17. 귀하는 본인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중국에서 소수민족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이 가장 총명하고 다음이 한민

족이라고. 전에도 조선족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사회: 우수하고 총명하기 때문에 좋다. 그래요?

2: 조선족으로 태어났다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사회: 후회해도 소용없잖아. 웃음(모두).

2: 중국에 사니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조선족이 생활상으로 깨끗해서 좋고, 조선족끼리는 맨발로 다녀도 되고 환경이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한족의 침실은 깨끗하지 않고, 깨끗해도 자기 한 구석만 치우는데 전체는 깨끗하지 않아요.

3: 조선족은 음식도 맛있고 깨끗해요. 조선족끼리는 한 밥상에서 식사할 때 친절한데 한족과 있을 때는 술 마시는 습관이 다르고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요.

사회: 술 마시는 어떤 습관이 달라요?

2: 조선족은 다른 사람에게 술을 따라주고 우리는 받아야 하는데 한족은 자기 혼자 따라 마셔요. (사회: 재미가 없어요?) 습관이 달라요.

사회: 습관을 말했는데 조선족은 두 가지 이지요. 중국 사람인데 여기서 (한국의)전통을 부모한테 배우는데 한국습관이 익숙한지 중국습관이 익숙한지?

4: 중국 조선족의 습관이지요. 한국 습관과 다르고 중국 습관과도 다른 중국 조선족 습관이지요.

사회: 정확한 표현이네요.

1: 다 융합이 되었지요. 조선족 습관에 한족습관이 합해서.

사회: 융화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내려요? 좋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1: 그 가운데서 우수한 것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사회: 그래서 중국조선족문화가 가장 우수하다 그런 뜻 아닌가?

1: 그것은 아니고 재미있고 편리하다이지요.

4: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특히 조선족은 세상에 내놔도 우수하고 또한 백의민족으로 깨끗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사회: 조선족이 소수민족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중국에 95%가 한

족이고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 중에 조선족문화가 우수하다, 좋다,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소수민족이란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1: 중국에서는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족과 소수민족 간에는 불평등이 존재해요.

2: 우리나라 소수민족정책은 좋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회: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족이고 나머지가 다 소수민족이니깐. 소수민족이란 개념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런 의미로 묻는 것이예요.

2: 흑인 대통령이 없지 않아요.

사회: 그런 뜻으로. 한족이 많고 많다보니 조선족보다 우수하고 조선족이 국가 주석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3: 중국 사람은 다 차별이 없어요.

사회: 차별이 아닌데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그냥 중국 사람이고 소수민족이고 관계없어요.

4: 저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각하게 되는데 다르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2: 동화된다는 느낌이 많아요. ‘리화소학교’에 한 반에 조선족이 한족보다 많다는 말입니다. 소학교부터 한족학교를 보내니까 초중(중학교)부터는 조선족학교를 보내고...

사회: 2번 학생은 동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동화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조선족이 자치주로 언어도 인정하고 소수민족 장려정책으로 아이도 돌을 낳고 하는데, 2번 학생이 말한 동화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1: 내가 보면 동화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냥 언어상에서 소학교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한어를 배우고 그냥 말씀씨가 조선말도 하고 한족 말을 아는 것이고 동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 동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1: 당연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3: 동화는 싫고 한족 말을 하는 것이 좋지만 조선족의 풍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2. 저도 찬성하는데 조선족인데 조선어를 하지 않는 것이 동화인데 좀...
- 4: 동화는 찬성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1번 학생처럼 소학교는 조선학교 초중부부터 한족어를 배우는 것이지 동화는 원하지 않고 중국조선족은 동화되는 것은 찬성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화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 4명의 학생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화 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누구도 동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군요. 북경에 가서 보니 조선족인데 같은 조선족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동화되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도 한족에 동화되었지요. 자기 말을 쓰는 사람도 없고 다 동화되었지요.

## 18. 귀하는 현재 한민족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1-4: 없어요.

## 19. 귀하는 현재 한국인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인단체와 교류를 하고 싶은지요?

사회: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 1: 한국 사람에게 한어를 가르치거나 여행할 때 번역을 해줘요. 친구사이로 지내요.

사회: 유학생들인지 사업하러 온 사람인지? 사업하러 온 사람들이예요.

- 2: 저는 한국 사람과 교류 없어요.
- 3: 아르바이트할 때 가정교사로 한국 애들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요.
- 4: 아파트에 한국 사람이 있어 학원에 와서 한어를 배우니까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고 교류해요. (사회: 이웃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네.

사회: 앞으로 한국단체와 교류하고 싶어요?

- 4: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류하고 싶어요.

사회: 다 그래요? 2번 학생도 그래요? 한국사람 싫다고 했잖아?

2: 그래도 다 배울 것이 있으니까 교류하고 싶어요.

20.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원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생각한 적 없어요

사회: 한민족이 전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 교류가 많아졌는데 한국정부에서 청소년에게 특별히 이런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1: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정부에서 전세계 조선족을 위한 컴퓨터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대화도 건의도 할 수 있는 조선족을 위한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선족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어 건의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2: 생각한 적 없어요. 조선족 도서관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다 낡아서.

사회: 한국정부에서 유학을 하게 하던가 교류를 하던가 교환 프로그램이 있던가 등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충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3: 한국에 유학 가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요. 연대(연변대)에는 한족 애들이 다니는 조선어 과가 있어요. 한국에 갈 때는 다 본인이 지불해서 갔어요.

2: 공부성적이 우수해야 가니까 불공정성이 있어요. (사회: 불공정성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가겠다하면 갈수도 있고 가지 않겠다고 하면 안 갈수도 있고 선택하는 사람이 불공정하게 선택하는 것이예요.

사회: 선택하는 사람의 불공정성이 있어요?

2: 본 적은 없지만 저는 그런 것이 꼭 있다고 생각해요

4: 학생교류를 해서 한국설비를 중국에 들여와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어요. (사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학방면에서 어떤 기술이 중국보다 나은 것들이 와서 봉사하면 좋겠습니다.

사회: 연변과기대에 한국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한국에서 지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1: 한국정부에서 한국선생님을 많이 파견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무슨 방면에?) 교학방식이나 학적환경을 좋게 영어 등에서요. 영어를 직접 교재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조선족학생도 한국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21.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인적 지원 활동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조선족 청소년들이 한국말을 하고 교류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써 달라 사업상이든지 교육관계든지, 여기 네 사람은 한국에 취직할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를 많이 취직시켜라 등. 중국어도 하니까 우리를 많이 고용해라 등의 생각이 있는지?

1: 생각해 본적 없어요.

2: 한국에서 이곳에서 영어 등에 4급을 따라 인정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에서도 인정하는지..

사회: 구체적으로 한국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수는 다르니까 그 문제는 해당 기관과 이야기해야 할 문제이지요.

3: 회사에서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평등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민족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따지지 말고 평등하게요.

4: 같은 생각이예요. 한국본토와 다른 곳의 조선족을 평등하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22.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1: 만족하고 있습니다.

- 2: 생활은 만족하나 정신적으로는 어려워요. 한국에 대해서 조선어로 된 자료가 많으면 좋겠어요. 대개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되어있는 참고서가 많으면 좋겠어요.
  - 3: 만족해요. 그러나 부모가 외국에 있는 것이 싫어요. 돈이 필요해서 간 것이니까 빨리 취직해서 자기 사업을 꾸리고 부모가 빨리 왔으면 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요.
  - 4: 생활상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만족하나 여기서 자라고 해서 많이 나가 보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 사회: 젊으니까 기회가 많이 있고 뜻을 세우면 실천할 기회가 있지요.

## Focus group discussion guideline #2

(북경 어언문화대 학생들)

토론시간: 2007. 7. 5 16:20 - 18:00

토론장소: 북경 어언대학 기숙사

사회: 김익기 교수

- 참석자: 1. 리 0 (여자, 연변 출신, 어언대 스페인어과)  
2. 현 0 (여자, 연변 출신, 어언대 영어과)  
3. 최 00 (여자, 연변 출신, 어언대 일본어과)  
4. 변 00 (여자, 연변 출신, 어언대 독어과)

사회: 지금부터 어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귀하의 가정에서 처음 중국에 온 분은 누구십니까? 또 그 분은 언제 한국의 어디에서 중국의 어디로 왔습니까?

- 1: 누가 처음 왔는지는 모르고 공주에서 왔어요.  
2: 누가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광주라고 하던데...  
3: 언제, 어디서 모르고 분이 경주라고 알아요. 경주 최씨예요.

사회: 일본사람같이 생겼네요. 전공은 일본어예요?

- 4: 어디서 언제는 모르고 본은 원주예요.

2. 귀하 부모님의 민족배경은 무엇입니까?

- 1-4: 다 조선족이에요.

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 왔고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 전부 기숙사에 있어요.

사회: 다 연변에서 왔어요?

1-4: 네

4.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1: 아빠는 이전에는 교사이었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엄마는 주부이고, 저는 될 수만 있으면 무역을 부업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 주업은 모르겠어요.

사회: 부업은 결정했는데 주업을 결정 못했어요? (웃음) 2번 학생은?

2: 아빠는 개인사업 하다 한국에 갔다 와서 그냥 있고 엄마는 회사 출근중이고 국가 기록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를 하고 싶으나 아직 모르겠어요.

사회: 전공과는 관계가 없네요. 전공은 영어과인데.

3: 부모님은 연변에서 옷 장사를 하시고. 저는 장래는 일본어나 한어나 한국어 교사를 하고 싶어요.

4: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아버지는 한국에 갔다 왔고 화가예요.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창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수공예를 하고 싶어요. 일본과 한국에서는 수공예가 발전 했잖아요. 임시적으로 잡지사나 수공예를 하고 싶어요.

5. 귀하는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소(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어떤 중학교를 다녔습니까?

1-4: 소, 중학교는 모두 조선족 학교를 다녔어요.

6. 귀하는 평상시 주로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귀하는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입니까?

1: 고향에서는 모두 조선족친구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조선족도 있고 한족도 있어요.

2: 고향은 한족친구가 없고 지금은 여기 와서 기숙사 친구들이 다 한족이니까 한족친구가 있어요. (사회: 연변에서는 전부 조선족친구?) 다 같아요. 조선족학교를 다니면 다 그럴거예요. 조선족 학생들은 다 똑 같을 거예요.

사회: 그런데 연변에서 학생들은 한족친구도 사귀다고 하던데...

3: 대학에 가면 한족을 사귀 수 있으나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으로 와서 한족을 사귀 시간이 없었어요.

7.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때 조선족과 한족 중에서 어떤 배우지를 원합니까?

사회: 남자친구 있어요?

4: 있어요. (사회: 조선족이에요? 한족이에요?) 예, 조선족이에요.

3: 저는 일본학생이에요.

사회: 결혼할 때 한족을 선택하나 조선족인가?

1-4: 전부 조선족을 원해요.

사회: 전부 조선족? 한족은 싫어요?

2: 가족이 싫어해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습관과 생활 때문에 결혼이 어려울 것 같아요.

8. 귀하는 평소에 중국어와 한국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1: 조선족 친구를 만나면 연변 말을 하고 중국친구와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중국말을 해요. 2: 학교에서는 주로 중국말을 사용하지만 집에 오면 친구나 부모님과과는 조선말을 해요.

9. 귀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1-4: 전부 조선말을 해요.

10. 귀하는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갔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이 어떠했는지요? (없었다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 또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하십니까?

2: 초등학교 5학년 때 여행으로 1달쯤 있었고 서울에 있는 리라학교가 자매 학교이었어요. (사회: 인상은 어땠어요?) 어렸을 때라 잘 모르겠어요. 학생 집에서 있었는데 그 부모가 잘 해 주었어요.

사회: 다른 학생도 가본 적 있어요?

3: 없어요.

사회: 앞으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여행이나, 사업이나, 결혼 등으로.

1: 사업이나 여행으로 가보고 싶어요.

2: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3: 한국에서 2-3년 동안 역사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사회: 돌아와요?) 네,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4: 한번 가고 싶어요. 원주에 변씨 묘가 있다고 해서 가고 싶어요. 다른 것으로는 가고 싶지 않으나 조상의 묘는 가고 싶어요.

사회: 독특하네요. 조상 묘 보고 싶다고.

11. 귀하는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요? 가끔 한국 뉴스를 듣는지요? (듣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듣는지요?

1: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봐요.

2: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집이 연변에 있으면 중국뉴스보다 한국뉴스를 봐요. 언어가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인터넷에서 봐요.

사회: 한국뉴스에 관심 있어요?

3: 한국뉴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드라마 보다가 볼 때가 있어요.

사회: 관심이 없다?

3: 뉴스를 잘 안 봐요. 어디 뉴스이든 뉴스는 관심이 없어요.

4: 방학에 집에 가면 매일 가족과 함께 봐요.

12. 귀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요? (본다면)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또 왜 보는지요?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는 어떻게 다른지요?

1: 한국드라마 봐요 많이는 아니지만...

2: 한국드라마 많이 봐요. (사회: 왜요?) 중국드라마보다 재미있어요. 중국 애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봐요.

사회: 나도 가끔 보면 한국드라마를 계속 많이 (방영)하더라. 3번 학생도 드라마 봐요?

3: ‘환상의 커플’을 봤어요. (사회: 왜 한국드라마 봐요?) 재미있으니까요.

사회: 중국드라마는 발전 못했다고 하던데..

2: 중국드라마는 특수한 것을 하는데 한국드라마는 일상적인 것을 하니까요.

사회: 3번은? 예술적 감각이 있어서 다를 것 같은데..

3: 인상이 좋은 것은 다 봐요. ‘연애시대’가 재미있고 ‘대장금’은 다 못 봤고 ‘황진이’는 봤고 ‘주몽’을 봤고 역사적인 것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역사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좋아요.

13. 귀하는 중국에서 불고 있는 ‘韓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한류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니까 우리도 조선족이니까요. 나쁜 점은 한국 옷은 비싸고 또한 맹목적으

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싫어요.

사회: 여기에서 살면서 한류라는 것이 느껴지는가?

2: 한류가 습관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류를 모르면 약간 언어가 안 통할 정도로...

사회: 중국 애들은 한류를 어떻게 생각해요?

2: 중국 애들은 한류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봐요.

사회: 중국 애들은 의식하고 있지 않은데 이미 생활 속에 들어가 있다?

3: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4: 한류 좋아요. 한류를 통해서 한국을 많이 알고 우리에게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어 좋다고 생각해요.

사회: 나쁜 점은 없어요?

4: 없어요.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나쁜 점은 조선족이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중간이라고 생각되요. 한국 때문에 무작정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만. 한족 때문에 한국을 알았어요. ‘겨울연가’로 인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한국을 좋아하면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을 좋아하면 한국을 싫어한다고 해요.

#### 14. 귀하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 한국 사람과 접촉이 없어요.

사회: 한국에 대해서는?

1: 한국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뉴스를 보지만 직접적인 연계가 없어서 모르고 한국이 잘되기를 바래요.

사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발언인데 (웃음).

2: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관심이 많아져요. 정치 경제시간에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몽고가 나오면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내게 듣기 싫은 말이 올 까봐 걱정이 되요. 북한은 별 기분이 없는데 괜찮은데,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발전했다니까. 그런데 정치의 탄

핵사건이 안타까웠어요.

사회: 2번 학생은 한국에 대해 애정이 있는 듯한데.

2: 북한도 한국도 애정이 있어요.

3: 대학 올라가서 교회에서 한국 언니들을 만났어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한국과의 교류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회: 교회 다녀요?

3: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과 가정에서 예배를 봐요.

4: 한국 사람을 뭐라고 하려면 말하기 어려워요. 연변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전은 한국이 좋았어요.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이 나쁘다고 해요. 여학생들의 복장과 노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쁘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3년이 지나다 보니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오해도 있었어요. 서로 이해를 못했는데 교류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사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4: 친구 동생이랑 친한데, 그 애 친구들이 조선족을 꼭 조심하고 같이 안 놀면 좋겠다고 조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없는 것이예요.

사회: 현재 어언대에는 조선족 친구들이 얼마나 되요?

4: 9명이 있어요. (사회: 얼마 안 되네요). 우리 학교에는 얼마 안 돼요. 북경 다른 대학에는 많이 있어요. (사회: 어디에 많아요?) 민족대(중앙민족대)와 북사대(북경사범대)와 북경대에도 많아요.

15. 귀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요?

1: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역사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역사학과 나왔어요.

사회: 아빠가 연변대 역사학과 나왔어요?

1: 예. 삼촌이랑 연변대 있어요.

사회: 한국문화에 대해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요?

1: 정치라던가 경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2: 역사를 알고 싶어요. (사회: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30-40%는 알고 있어요. 조선족이지만 한족의 역사를 배우니까 한국역사는 전혀 배우지 않아요. 한국은 결혼할 때 함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러나 조선족은 그런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회: 조선족 학교에 다녔다던데 문화 역사를 안 배워요?

다같이: 세계역사에서 일본 몽고와 같이 배워요.

2: 작은 나라니까 간단하게 나와요. ‘조선어문’에 단군신화가 나와요. 김소월 시가 나오고. 한국과 북한이 같이 나와요.

사회: 조선족 학교에서도 나라 크기에 따라 다른 나라와 같이 적게 나오나요?

3: 거의 모르고 있어요.

사회: 부모님이 알고 있지요? 부모님들이 한국문화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4: 네. 우리는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부모의 문화가 한국문화예요. 그냥 민족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사회: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3: 아버지는 남쪽에서 왔고 엄마는 북쪽 평양 쪽에서 왔지만 어디에서 왔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집에 역사책이 있는데 남한에서 온 것은 거의 없어요. 의학책도 거의 북조선에서 온 것이예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온 것을 보고 싶어요. 저는 역사를 안 믿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말하니까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니까 먼저 책이 있어야 해요. 책이 있어야 책을 보고 알 수 있지요.

사회: 한국 책이 없구나?

17. 귀하는 본인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중국에서 소수민족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자호감이 있어요.

사회: 자호감은 한국말로는 긍지라는 말을 쓰지요.

2: 우리문화가 긍지가 있어요. 저희 문화가 문화를 비교할 수도 없지만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도 언어가 벌써 다르잖아요.

3: 이전에 연변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한국 애들을 만나고 나니까 민족적 긍지가 생겼어요. 연변에서는 다 조선족이니까 몰랐어요.

4: 긍지감이 있어요.

사회: 연변은 거의 조선족이니까 몰랐는데 여기에 와서 소수민족인 것을 느꼈다? 소수민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1: 중국에 몽골족도 있고 다른 소수민족도 있는데 언어도 우리가 유리해요. 그리고 회족이 있잖아요. 그들은 잘 못 먹는데 우리는 잘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깨끗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사회: 소수민족과의 비교보다 한족과 비교했을 때는?

1: 언어상에서 한어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가 더 총명하다고 할까 (웃음)

2: 언어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특별히 소수민족으로서 차별대우는 경험이 없고 저희가 소수민족이므로 대학시험을 볼 때 한어를 안치니까 소수민족 우대를 받고 한족보다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어요.

3: 소수 민족이라기보다 조선족인 것이 좋아요. 중국말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것을 다른 민족이 부러워하고 우리는 교육이 잘 되어서 그런지 전체교육이 잘 되고 있고, 한족이 부러워해요. 조선족으로서 자부심이 있어요.

사회: 다 그래요? 4번 학생은 안 그래요?

4: 소수민족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한족과 다르다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조선족이므로 불리한 것이 없지만 선배들에게서 들은 것은 경험담을 들으면 조선족이라 안 좋은 것이 있었어요. 학교지망에서 특별한 것, 예를 들면 비행사 등 국가정부일이나 중앙미술대학 등은 신분을 볼 때가 있어요. 다른 민족 애들도, 연예인들은 위구르족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외모나 여러 가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변방에 있으므로 아무리 노

력해도 차별은 아니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회: 조선족인 것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조선족으로 차별은 없어요?

4: 없어요.

사회: 본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는 다른 것은 없어요?

4: 한족 애들도 자신의 역사를 모르니까 조선족도 모르기도 해요. 중국자체가 소수민족을 모르니까 차별의 의미가 없어요.

18. 귀하는 현재 한민족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1-4: 없어요. 몰라요.

19. 귀하는 현재 한국인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인단체와 교류를 하고 싶은지요?

2: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난 적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3: 기회가 있다면 꼭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올 때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 교류가 있어야 이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4: (한국)드라마나 개그에서 연변 말을 하면 주위에서 웃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빠요. 연변사람이 촌스럽고 황당하게 표현하면 기분이 나빠요. 개그는 연변에서도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짜증나요. 개그콘서트에서 연변총각으로 강성범이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연변에는 자식 9명 있으면 하면서 깔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드라마에서 연변처녀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닌데 너무 촌스럽게 나왔어요. ‘골든 벨’ 프로그램에 연변시 제이중(고등)학교에서 출연한 적이 있어요. 학생 한명이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흥내 내는 것 등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서시장은 연길에서 제일 좋은 시장이라고 했는데 연변은 이렇게 낙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만 방영하는 것을 볼 때

서울도 낙후된 곳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기분이 나빠요.

사회: 중요한 이야기들인데요.

2: 북경에서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도 (연변에)5층 이상 건물이 없다는 말을 듣고 너무 우스웠어요.

사회: 언제 방영했어요?

2: 일 년 전 쯤 전에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잘 아는 사람은 잘 알고.

3: 한국유학생들도 연변사람과 잘 지내라 좋은 사람도 많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회: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3: ‘조선족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사귀지 말라’고 하는 사람한테 학교 오빠가 ‘모르고 말하지 말라’고 직접 지내봐야 아는 것이라고 하면서 싸웠대요. 한번 경험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어디나 있기 마련인데 국민을 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 발상이에요.

사회: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아까 소수민족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족과 동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1: 동화되고 있어요. 말할 때 한마디 중간 중간에 한어가 나와요.

사회: 만주족이 한족에 동화되어 언어도 없듯이?

2: 한국음식을 일주일 계속 먹으면 지겹잖아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중국음식을 먹어야 해요. (사회: 지금은 한국음식 더 많이 먹어요?) 아니요.

사회: 지금은 중국음식 더 많이 먹어요?

2: 아니요. 반반이에요. 인구도 조선족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 동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

3: 네. 한어 수준이 중국 애들처럼 안돼요. 사자성어도 잘 안 되고 발음도 잘 안돼요. 대학 1년은 힘들고 연변에서는 새로 나온 반은 담임선생님이 한족이고 한어는 같은 교과서를 배워요. 하지만 나중에는 한국어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학 와서 공부를 잘해야 하나까 중국학교로 전학 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회: 좋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소학교와 중학교가 조선족학교를 나왔는데 언어가 딸리니까 한족학교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4. 그래도 조선족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많이 배워요.

사회: 내가 만난 조선족 교수들은 동화되기 위해 한족학교를 다녔고 중국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다는데..

2: 그 시대는 그것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돼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조선말을 못하면 경쟁하는 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중국어도 중요하지만 교류를 못할 정도로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언어를 배울 때 더 열심히 배우면 되니까요.

1: 저는 한족학교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조선말은 좀 쉽고 집에서 공부하면 되니까요. 저는 중국이 좋거든요.

사회: 3번 학생은?

3: 저는 조선족학교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조선족 학교 다녀도 한족처럼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총명하니까 경쟁해도 이길 수 있어요.(웃음)

20.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원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 교류가 많았으면 해요. 저희는 지금 북경에서 학교 다니고 있지만 연변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오락시설은 많은데 형편이 안 좋아요. 지금 연변에 있는 애들에게는 일자리라던가 큰 공장이 없으니까 한국에 돈 벌러 가요. 연변에 큰 공장을 세워서 이산가족이 되지 않고 가족이 다 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2: 연변학생에게 역사교과서를 보내 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돈벌이 하는 사람이 많은데 많은 관심과 우대를 갖고 방문취업제등을 통해 연변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2: 역사책들을 보내 주면 좋겠어요.

3: 민족문화나 역사에 관한 책을 보내주세요. 연길은 그래도 있는데 다른 도시에서 공부하는 애들에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을 주면 좋겠어요. 농촌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고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한국에 유학 간 애들은 부자들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도 갈 수 있지만 조건이 좋지 않은 애들에게 우대정책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교육이 발달해야 경제도 발달하니까요.

사회: 아까 4번 학생이 교류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4: 오해가 생기기 전부터 교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릴 때는 어린 소학교 때부터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교류를 잘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다른 여러 곳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어요. 우리도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부모가 중요해요. 부모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쁘다고 하면 자식에게 전해지게 되고. 부모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미 오해가 생기잖아요. 사춘기 애들은 세월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어린애들은 모르니까 이걸 나쁘다고 전해주면 안돼요.

21.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인적 지원 활용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고등학교나 필업(졸업)한 학생들이 한국 가면 막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같은데 가서 1년이나 2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기술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그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한국에 데려가는 것이 어려우면 연변에 와서 전문학교라든지 세워서 가

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대학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특정한 분야의 전문학교를 세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아요.

2: 자매학교를 세워서 학생들끼리 교환과 교류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3번 학생은?

3: 저도 마찬가지예요.

22.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만족해요.(웃음)

사회: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해 보세요.

다같이: 다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사회: 오랫동안 이야기해주어서 고맙습니다.

## Focus group discussion guideline #3

(산동성 연태시 대학생들)

토론시간: 2007. 7. 14 15:00 - 16:30

토론장소: 산동성 연태시 순태빈관(Hotel)

사회: 김익기 교수

- 참석자: 1. 김 0 (여자, 연변 출신, 연태대 공상관리학과)  
2. 문 00 (여자, 연변 출신, 연태대 환경관리학과)  
3. 도 00 (여자, 연변 출신, 산동공상대 회계학과)  
4. 전 00 (남자, 연변 출신, 연태대 전자공학과)

사회: 지금부터 연태시에서 조선족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해서 토론을 시작합니다.

1. 귀하의 가정에서 처음 중국에 온 분은 누구십니까? 또 그 분은 언제 한국의 어디에서 중국의 어디로 왔습니까?

- 1: 잘 모르겠어요.  
2: 잘 모르겠어요.  
3: 잘 모르겠어요.  
4: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해요.

사회: 오래전에 오셨네.

2. 귀하 부모님의 민족배경은 무엇입니까?

사회: 부모가 다 조선족이에요?

1-4: 예. (사회: 부모님은 다 연길에 계시나?) 예

3. 우리 부모님은 한국에 계세요.

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 왔고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공부하려고 왔어요.

사회: 연변에도 대학이 있는데 연태에 왜 왔어요?

1: 나와서 세상이 넓음을 보려고요.

2: 같은 이유요. (사회: 연태에 오니까 세상이 넓어 보이냐?) 나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3: 대학교를 고를 때 연해도시를 골랐고 경제가 발전할 것이고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유학을 목적으로 했으니까요.

4: 연해도시는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연변에 있기보다 중국말 잘하는데도 도움이 돼서요.

4.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1: 어머니는 공인 회계사고 아버님은 기계 부속품 자동차 부속을 하셨습니다. (사회: 본인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선생님이에요. (사회: 무슨 선생님?) 대학 교수요. (사회: 전공은?) 공상학과예요.

2: 부모님은 농민이시고 용정에 계세요.

사회: 본인은 무얼 하고 싶어요?

2: 저는 본업을 잘 공부해서 환경관리로 회사에 다니고 싶어요.

3: 한국에 가기 전에 연변에서 소기업을 했고 퇴직하시고 한국에 계세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에 와서 공인회계사를 하고 싶어요.

4: 부모님은 금융사업 은행에서 근무하시고 저는 발달한 곳에서 유학하고

큰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요.

5. 귀하는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소(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어떤 중학교를 다녔습니까?

1-4: 모두 다 조선족 학교요.

6. 귀하는 평상시 주로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들과 어울립니까? 귀하는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입니까?

1: 어릴 적에 소학교, 중학교는 조선족 친구가 많고 한족친구는 연태에서 반 친구정도이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회: 연변에서는 다 조선족 친구?

2: 대학 오기 전에는 조선족 친구이고 지금은 주변이 한족이니까 한족친구가 많아요.

사회: 4명 다 연변에서는 다 조선족친구였어요?

2: 예. 생활이 그러니까 연변에 있으면 다 조선족 친구만 있어요.

사회: 그러면 지금 까지 조선족 친구만 사귀고 계속 연변에 있으면 계속 조선족 친구만 있겠네요?

2: 예. 그래서 이곳에 왔어요. 친구도 사귀고 중국어를 늘리려고.

사회: 연변에서는 중국어 못해요?

1: 예.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여기 와서 2년 동안 있었는데 표현능력이 많이 늘었어요.

사회: 다른 학생은?

3: 2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달라요. 나가서 사람들과 교류해서 많이 늘었어요.

사회: 4번은?

4: 저도 그래요. (사회: 여기 처음에는 중국말이 어려웠어요?) 예. 처음에 왔을 때는 말이 막혔는데 지금은 좋아요.

사회: 중국에서 태어나도 본인이 중국말이 힘들다고 생각하네요.

7.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때 조선족과 한족 중에서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사회: 혹시 이성 친구가 있어요?

1,2: 없어요.

3: 조선족 친구가 있어요.

4: 저는 한족 친구가 있어요.

사회: 앞으로 1번 학생은 결혼할 때 선택할 배우자가 한족 이에요? 조선족 이에요?

1: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조선족이 좋아요. 표현상에서 한족친구와 교류해도 차이가 아주 커요. (사회: 그래서 조선족과 결혼 하겠다?)

2: 조선족에 기울어져 있고 한족은 안 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조선족이 좋아요.

사회: 3번 학생은?

3: 부모님은 조선족을 요구하세요. 교류에 많은 차이가 나요.

사회: 4번 학생은?

4: 지금 다른 학생은 한족과 어려움이 있다는데 저는 어려움이 없어요. 여자 친구하고 말하는 것을 많이 이해해요. 지금 집에서는 다 반대해요. 조선족과 해라, 한족은 안 된다 하지만 저도 지금은 조선족이 좋으나 한족도 괜찮아요.

사회: 부모는 조선족이어야 한다는 데 본인은 어때요?

4: 조선족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8. 귀하는 평소에 중국어와 한국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1: 주로 조선말을 써요.

사회: 지금 연태에서는 중국어와 조선어중 어느 것을 많이 써요?

2: 중국어를 많이 써요. (사회: 과에 조선족이 없겠네요?). 네.

3: 기숙사와 학교에서는 전부 중국어를 써요. 조선족 친구 만날 때는 조선말을 하고요.

사회: 평균적으로 조선말을 많이 쓰겠네요.

4: 네.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는 주로 한어를 많이 써요.

### 9. 귀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1: 부모와 대화 시는 조선말을 써요. (사회: 부모님은 중국어를 잘해요?) 잘 못해요.

사회: 부모님은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2: 네. 그런데 조선족과 같이 살고 어울리다보니까 2년 전의 우리와 같아요. 계속 연변에서만 살았으니까 중국어를 잘 못해요.

사회: 특히 불편하지 않아요?

4: 예. 중국어를 알아듣기는 하니까요.

10. 귀하는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갔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이 어떠했는지요? (없었다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 또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하십니까?

1, 2: 없어요.

사회: 3번 학생은 가본 적이 있는데 한국이 어때요?

3: 많이 발달하고 붐비고 중국보다 많이 작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4: 저는 못 가봤어요.

사회: 학생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어요.

1: 없어요.

2: 대학교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가고 싶어요. (사회: 전공은?) 환경관리요.

(사회: 몇 년간?) 3년 정도요. (사회: 석사과정? 돌아와요?) 예.

사회: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3번 학생은?

3: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부모가 있으니까요. (사회: 유학이나 다른 것으로 갈 계획은?) 없어요.

4: 한국방문으로 이해하고 특히 유학이라기보다 같은 민족이니까 그냥 어떻게 사는가 보러 가고 싶어요. (사회: 가고 싶은 데 지금 기회가 없다.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는 것이지요?) 네.

11. 귀하는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가끔 한국 뉴스를 듣는지요?  
(듣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듣는지요?

1: 연변에서 들었고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2: 가끔 봤는데 들을 방법이 없어요. (사회: 인터넷은 안 봐요?) 인터넷 하기가 그래서요.

사회: 연변에 있을 때는?

2: TV에서 봤어요.

3: 딱히 고정된 시간에 보는 것은 아니고 우연히 인터넷이 나오면 보고.

4: 여기에서는 볼 기회가 없어요. 집에 가면 부모가 관심이 있어 보니까 덩달아 보는데.

사회: 부모가 있으니까 보게 되지만 여기는 우연히 보면 보고 일부러 시도하는 안한다고요? 4: 네.

12. 귀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요? (본다면)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또 왜 보는지요?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는 어떻게 다른지요?

1,2: 네. 자주 봐요.

사회: 인터넷으로 뉴스는 안보고 드라마는 본다?

1-4: 예 (웃음)

3: 지금 드라마는 안 봐요. 외국영화를 봐요.

4: 인터넷으로 본다는 것은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고 집에 가면 보니까요.

사회: 1 2번은 많이 본다는데 왜 봐요?

1: 여유시간을 갖고 오락으로 봐요. 시간이 나면 보고 아니면 안보고

사회: 2번 학생은?

2: 스트레스가 쌓여서 드라마를 보면 실컷 울고 웃으면서 속이 시원해져요.

사회: 한국드라마와 중국드라마 어느 것을 더 봐요?

2: 한국드라마요.

사회: 한국드라마와 중국드라마가 차이가 있어요?

1: 차이가 있어요. 조선족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너무 환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니까 많이 봐요.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을 배워요. 처음에는 막연히 봤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드라마를 그냥 보라고 해서 그것을 보면서 배울 것이 있잖아요. 의미를 갖고 봐요.

2: 한국드라마는 친근한 감을 느껴 자꾸 보게 되요.

사회: 중국인도 한국드라마를 많이 보던데... 사회: 1번은 자주 보고 3번은 안 본다는데?

3: 생활적인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싫증나요. (사회: 중국드라마는 봐요?) 드라마 보다 영화를 봐요.

사회: 4번 학생은?

4: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보다 현실적으로 같은 내용이니까요.

사회: 한국드라마가 재미있다는데?

4: 네. 재미있어요.

### 13. 귀하는 중국에서 불고 있는 '韓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회: 한류는 산동이 더 강한 것 같은데 한국 기업도 많고.

1: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류가 들어오면 배울 것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한국 것은 다 좋다 하는 것은 싫어요. 무슨 문화나 좋은 것도

-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이것만 좋다, 무조건 좋다 하는 것은 싫어요.
- 사회: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 1: 내 주변은 그저 그래요.
- 2: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그렇지 않고요.
- 사회: 좋은 점은 무엇이에요?
- 2: 배울 것이 많죠. 예의바른 것, 열심히 사는 것을 배워요. 한민족의 역사 같은 것을 접촉하기가 어려운데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를 배워요. 사극을 보면 어떤 데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같은 역사를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편전쟁은 이쪽은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 사회: 3번 학생은?
- 3: 한류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류가 들어오면서 한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선족과 완전히 마음이 안 통해요. 그것이 한스러워요.
- 사회: 구체적으로 마음이 안 통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 3: 과외를 해봤는데 부모님이 말하는 것이 그 뜻이 너무 과했어요.
- 사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잘못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 3: 잘못 받아 들인다기 보다는...
- 4: 우리를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동등하게 안 보고..
- 사회: 동등하게 안 보고 좀 차이를 둔다는 경험이 있어요?
- 4: 특히 경험이라기보다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친절하게 할 것도 없지만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좀 낮게 그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 사회: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혹시 이런 것은 없어요? 한국학생들이 나를 낮게 본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 4: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 3: 교류는 서로 다른 나라사람들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은 이래서 안 돼’ 하는 말을 들을 때 난처해요. 할 말이 없어요.
- 4: 지금 중국에 와서 살면서 더럽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 등등.
- 사회: 한국 사람이 조선족은 한국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중국 사람이지만 마음이 통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 3: 서로 마음이 통하면 알겠지요. 중국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하는 말 등. 과외를 하다 보면 심해요. 우리는 중국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등등. 두 나라 사람이 대화할 때 정치문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한국인은 한국을 사랑하고 중국인은 중국을 사랑하지요. 상대방 앞에서 그 나라가 나쁘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중국 사람을 만나면 말이 안 통하니까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족을 만나면 말이 통하니까 동포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교류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교류가 없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 14. 귀하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 한국 사람을 접촉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문화가 같으니까 한 민족이지요. 좋아요. 부분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우리를 더 친근하게.
2. 저는 어떤 사람은 친절한데. 지난번에 만난 한국 분은 진짜 딸처럼 생각해서 기뻐어요. 슈퍼를 갔는데 한국 분 세분이 중국에 대해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중국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조선족인줄 모르니까 말하는데 진짜 나빴어요.

사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2: 좋게 생각해요.

사회: 3번 학생은?

3: 뭐라 말할 수 없어요. 빨리 통해서 문화교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 한국을 가봤으니까 한국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요?

3: 교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경계가 없었어요. 그냥 조선족이니까 친절하게.

4: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예를 들어 노는 것이 과하다 보니 소리

지르고 산만해요. 한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멸시한다고 들었어요. 드라마도 연변사람을 촌스럽고 전화를 받을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좋은 점은 재단에서 경제적으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감사하고 좋아요.

15. 귀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요?

1. 한국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다고 생각해요.

사회: 잘 모르니까 배우고 싶어요?

1: 네. 특히 역사 쪽으로 배우고 싶어요. 역사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요. 중국 역사를 배우듯이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 진실이 뭘까 하면서 배우고 싶어요.

2: 저도 부족해요. 문화에 대해 알고 싶은 데 알 방법이 없어요. 교류가 없으니까요.

3: 많이 배우고 싶어요.

4: 한국문화도 유교 문화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독특한 문화는 기회가 있으면 배우고.

17. 귀하는 본인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중국에서 소수민족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조선족이라 자랑스러워요. 내가 조선족이라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2: 그건 나도 기뻐요. 저희가 변경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조선말과 중국말을 하니까요.

사회: 소수민족인데 차별이 없어요? 소수민족으로 느낌이 없어요?

2: 없어요.

4: 조선족에게 잘해 줘요.

사회: 1, 2번처럼 3, 4번 학생도 우월감이 있어요?

3: 당연해요.

사회: 언어 때문에 열등감이 없어요?

4: 두 가지 언어를 하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한족도 조선족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사회: 부러워해요?

4: 소수민족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이 달라요.

사회: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러워해요?

4: 우리는 두 가지 언어이고 그들은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고요. 아무리 배워도 우리 수준에 달할 수 없으니까 부러워하죠.

18. 귀하는 현재 한민족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1. 딱 하고 싶다 생각한 적이 없고 한다면 하고 그런거죠.

2. 기회가 있으면 단체에 가입하거나 한국 사람과 교류를 하고 더 많이 싶어요.

3. 학교와 교류가 많으면 좋겠어요. 모두 대학생이니까 사상도 같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사회: 한국학교와 중국학교? 조선족학교 일반학교?

3: 일반학교요.

4. 특별히 하고 싶다가보다 기회가 있으면요.

19. 귀하는 현재 한국인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인단체와 교류를 하고 싶은지요?

1: 과외를 통해서요.

사회: 과외를 통해서 교류했는데 느낌이 있어요? 언어를 가르쳐요?

1: 수학을 가르쳐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많은데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사회: 네 사람이 다 과외해요?

2: 선생님이 한분 있었어요. (사회: 한국선생님?) 지금 캘리포니아로 이민 간 선생님이에요.

사회: 한국가면 생활이 불편할 것 같아요?

1: 처음엔 불편할 것 같아요. 작은 일에서요. 환경이 다르니까 불편하고 익숙해지면 괜찮고 익숙해지는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2: 처음에는 무조건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학비를 집에서 조달 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 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 화학선생님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유학 가서 힘들게 보내는 학생이 많다고 해서 힘들 것 같아요.

사회: 생활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3: 일하는 시간이 많고 일하는 강도가 심해요. 처음에는 생활방면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이 달라서 어렵겠지만 차츰 익숙하게 될 거예요.

4: 생각이 같아요. 사소한 것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적응이 되면 괜찮겠지요?

20.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원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무얼 해주기보다 중국학생들이 지금보다 쉽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사회: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는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교류한 학생만 가니까 다른 학생은 무조건 기회가 없다고 들어서 많이 제한되어 있으니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회가 없어요. 배우는 방면에서 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사회: 언어 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가요?

2: 한국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교류할 기회가 많으면 좋겠어요.

사회: 한국문화를 많이 아는 기회, 특히 중국 안에서 할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2: TV나 인터넷에서 그리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회: 한국에서 중국에 올 때 특히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어요?
- 2: 한민족역사에 관한 책이 한 권 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한된 조건이니까. 영어나 일본어는 많은데 한국 책은 하나도 못 봤어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이 중국어로 번역된 것 한 권 봤어요.
- 사회: 한국말로 된 책을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는 거지요? 여러 방면에서 지원한다고 들었어요.
- 3: 학교를 세우던가. (사회: 학교를 세운다면, 어떤 학교를?) 과학기술 학교 등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 사회: 학교를 세우려면 연변에 세워야 되겠네요?
- 4: 한국에 갈 기회를 넓혀주면 좋겠어요.

**21.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인적 지원 활용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취직을 할 때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좋아요?
- 1: 차이를 두지 말아요.
- 사회: 일을 할 때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건가요?
- 1: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 2: 기회가 있다면 중국조선족을 많이 채용해 주면 좋겠어요.
- 사회: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2: 한국기업에 취직하게 하든지요. 예를 들면, 조선족은 중국어가 능통하니까 기업에서 일할 때, 외국인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일하니까요.
- 사회: 지금 정책보다 더 나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3: 지금 정책을 모르니까 생각해 본적 없어요.
- 4: 한국기업에서 취직할 수 있게 하면 좋겠고 높은 관직도 맡을 수 있고 대우 방면도 차이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 22. 귀하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회: 지금 생각난 게 있어요? 현재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후배에게 (한국에)나가라고 말하고 싶은지? 이야기 할 것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1: 말할 것이 없어요.

사회: 지금 생활에 만족해요?

1: 대부분 만족해요.

사회: 부족한 것이 뭐예요?

1: 전공이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 아까는 그것으로 박사 한다고 했잖아요?) 공상관리로 교수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로 하고 싶어요.

2: 저는 만족해요. 점수로 보면 80점 정도 돼요.

사회: 왜 100점이 안 돼요?

2: 사회와 접촉이 안 되는 것 때문이에요. 환경이 만족하기보다 외부와 접촉하는 것이 적어서 아는 것이 적다고 생각해요.

3: 만족해요. 그러나 청소년들은 자신이 목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4: 지금 생활환경이 만족하고 있고 연변 한 지역이기 보다 발전한 곳에 가서 시야를 넓히고 싶어요.

사회: 오랫동안 잘 이야기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 Focus group discussion guideline #4

(대천시, 대학을 갓 졸업한 직장여성들)

토론시간: 2007. 7. 29 10:00 - 11:45

토론장소: 대천시 청천옥빈관(Hotel)

사회: 김익기 교수

- 참석자: 1. 김 00 (여자, 단동 출신, DELL 근무)  
2. 김 00 (여자, 단동 출신, GE 근무)  
3. 김 00 (여자, 흑룡강 출신, HP 근무)  
4. 문 00 (여자, 흑룡강 출신, 통역업무 종사)

1. 귀하의 가정에서 처음 중국에 온 분은 누구십니까? 또 그 분은 언제 한국의 어디에서 중국의 어디로 왔습니까?

1: 할아버지 할머니가 90년 전에 오셨다는데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할머니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요녕성으로 오셨어요.

2: 잘 모르겠어요.

3: 70년 전에 할아버지가 흑룡강성으로 오셨고 강원도에서 오셨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4: 할아버지 할머니가 70년 전에 오셨고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2. 귀하 부모님의 민족배경은 무엇입니까?

사회: 다 부모님은 조선족이신가요?

모두: 네.

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 왔고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6년 전에 대련으로 왔어요. 대련외국어학원(대학)에 다녔어요. (사회: 대련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입학한 후에 취직하고 나서 대련에 남아 있어요. (사회: 단둥에서 왔지요?) 네.
- 2: 6년 전에 단둥에서 왔어요. 1번과 동창이에요.
- 3: 8년 전에 대학 입학하면서 흑룡강에서 왔어요. 저는 고모가 있었는데 한번 놀러 왔는데 바다가 있고 경치가 좋은 것 같아서.
- 4: 6년 전에 대학교에 오면서 아름답고, 흑룡강은 추워서 날씨가 따뜻한 곳으로 왔어요.

4.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 1: 어머니는 기상국 직원이에요.
- 2: 자영업이에요. (사회: 본인은?) 전공이 일본어니까 전공에 맞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 3: 부모님은 농민이고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지만 외국어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사회: 전공은 무엇이에요?) 경제 관리예요. (사회: 앞으로 외국어학교를 세우고 싶다고요?) 꿈이에요.
- 4: 어머니는 고향 정부쪽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경찰이고 지금은 퇴직하고 쉬고 있어요. 저는 지금 통역을 하지만 회사에서 잘 된다면 기회가 되면 외국에 갔다 와서 환경 쪽으로 하고 싶어요. 나중에 유학 갔다 와서 열심히 해야 되지요.

5. 귀하는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소(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어떤 중학교를 다녔습니까?

1: 다 조선족 학교를 다녔어요.

6. 귀하는 평상시 주로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귀하는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입니까?

1: 대부분이 조선족 친구이고 한족 친구는 있지만 적어요.

2: 중학교까지는 조선족이고 대학교 이후는 한족 친구들이 많잖아요. 조선족 친구도 있지만 한족 친구도 있어요. (사회: 주로 어느 쪽이 많아요?) 지금은 반반이에요.

3: 반반이지만 잘 어울리는 친구는 조선족이에요. 민족이 같으니까 말도 잘 통하고.

4: 친한 친구는 반반인데 평시에 어울리는 거 보면 조선족이 더 많아요. 친한 친구는 2-3명인데 각각 한족, 조선족이에요.

7.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때 조선족과 한족 중에서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1: 조선족이요. 한족이면 본인보다 부모가 반대해요.

2: 저는 한족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가 반대했지만 대학동창이라 마지막은 부모가 동의했어요. (사회: 결혼할거예요?) 한족과 결혼할거예요.

3: 저는 조선족이 좋아요. (사회: 왜 조선족이 좋아요?) 같은 민족이면 생활습관이 비슷해서 어울릴 것 같아요.

4: 저도 조선족이 좋고 문화 음식 생활습관이 달라서 한족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민족이 틀리면 습관이 달라요. 절대로 부모님이 반대할거고.

사회: 문화가 다른데 이곳의 한족과 틀려요? 한족과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1: 음식이 차이가 나요. 조선족은 매운 것을 좋아하지만 한족은 그렇지 않고. 말을 주고받는데 조선말이 더 편하고 감정상 통해요. 한족과 다니다 보면 말을 주고받아도 감정이 안가요. 조선족과는 틀려요.

사회: 2번은 한족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한족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2: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부모들이 언어상으로 잘 안 통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 거의 알아듣는 것 같아요. 부모가 말하면 중국친구가 알아들어요.

사회: 부모가 한국말 해요?

2: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중국말 단어를 듣고 본인이 생각해서 알아들어요.

사회: 다른 학생들은 어때요?

3: 먹는 것과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한족 남자들은 가정 일을 해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저희들은 틀리잖아요. 조선족 남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 부엌에서 남자가 일하면 좋잖아요? 그래도 조선족과 결혼하려고 해요? (웃음) 3: 생각이 틀려요. 어렸을 때 습관이 그렇지 않아요. 대학교 때 한족과 조선족 친구가 있었는데 점심 먹고 조선족은 여자 친구가 사발(그릇)을 씻어요. 한족들은 남자친구가 다 치워요. 한족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사회: 여자는 그런 것이 좋잖아요?

3: 아니요. 이미 생각이 고정되었어요. 남자가 큰일을 해야 하니까 밖의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주방일 하는 것이 좋지만 매일 하면 보기가 좀 그래요.

사회: 전통이 다르니까 남자가 주방 일을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3: 남자는 밖의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회: 4번은?

4: 중국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같은 일을 봐도 각각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한쪽은 기름진 음식이 많지만 매일 먹으면 속이 좋지 않아서 한국처럼 김치나 매운 것을 먹어요.

사회: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중국과 같다고 생각했는데 문화나 음식이 다르네요. 한국에 되레 가깝네요.

4: 옷 입는 것도 달라요. (웃음) 조선족은 한국에서 들어온 디자인이나 그런 것을 선택하는데 한쪽은 우리 입는 것하고 달라요.(웃음)

8. 귀하는 평소에 중국어와 한국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1. 회사에서는 중국말이지만 집에 와서는 조선말을 써요.

2. 회사에서는 중국어 쓰고 부모님과 집에서는 조선말을 써요.

사회: 부모님과 중국어 써요?

3: 있어요. 가끔씩 (웃음)

3: 회사에서는 조선부서라 거의 조선말을 쓰고 가족과는 조선말을 써요.

4. 회사에서 조선족은 저 뿐이라 중국어를 쓰고 친구 등과는 조선말을 쓰는 게 편해요.

사회: 주로 조선말을 쓰네요?

4: 편한 것은 조선말인데 회사에서는 중국어를 써야 되지만 조선어가 편해요.

사회: 한국말이 편해요?

4: 처음부터 가정에서는 조선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더 편해요. 처음 가정에서 조선말을 하고 중학교에서부터 중국말을 배우니까요.

사회: 태어날 때부터 조선말을 사용하므로 조선말이 편하군요. 중국 사람이라 중국어가 더 편한 줄 알았어요.

9. 귀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1-4: 조선말을 사용해요.

10. 귀하는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갔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이 어떠했는지요? (없었다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 또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하십니까?

사회: 한국에 간적 있어요?

1: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사회: 한국에 갈 계획이 있는지요? 언제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1: 경제가 허락하면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2: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사회: 무슨 공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유학으로 가고 싶어요.

사회: 공부하고 싶다? 3번은?

3: 저도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사회: 여행으로만?) 취직되면 좋은 직장이면 갈수도 있어요.

4: 출장을 갈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행도 가고 싶고,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IT나 환경 쪽으로 공부 하고 싶어요. (사회: 한국에 가서?) 예.

11. 귀하는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요? 가끔 한국 뉴스를 듣는지요? (듣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듣는지요?

1: 드라마도 봐요.

사회: 드라마는 나중에 이야기 하고. (웃음)

1: 뉴스는 KBS, SBS를 들어요. (사회: 여기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던데). 신청을 하면 되요.

2: 가끔씩 봐요. 인터넷도 가끔 봐요. ‘모이자 조선족’ 인터넷에서 가끔 봐요.

사회: ‘모이자 조선족’이란 것이 있어요? 이따 좀 가르쳐 줘요.

사회: 3번도 인터넷에서 봐요?

3: 일을 한국 일을 하니까 의도적으로 TV를 봐요.

4: 네이버 엔 파스 좀 보고 가끔 봐요. TV가 없다보니 인터넷으로 봐요.

12. 귀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요? (본다면)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또 왜 보는지요?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는 어떻게 다른지요?

사회: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드라마 이야기해요. (웃음)

1: '2006년 애인' 봐요. (사회: 중국드라마도 봐요?) 안 봐요.

사회: 왜 한국 드라마 봐요?

1: 재미있어요. '불량연인'도 봐요. 말도 알아듣고 말을 배우기도 하고.

사회: 2번은 왜 한국드라마 봐요?

2: '김삼순'(내 이름은 김삼순) 도 보고 말도 통하고 내용도 재미있고요.

사회: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가 차이가 있어요?

2: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사회: 연기를 잘한다고요?) 중국에서는 잘 못해요.

사회: 3번은? 많이 봐요?

3: 많이 봐요. 대학 때는 많이 봤는데. 차이는 연기자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중국 드라마도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반반으로 봐요.

사회: 4번은 어때요?

4: 한국 드라마는 사랑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재미있다 하면 가끔 보고 영화를 주로 봐요. 중국 드라마도 연기는 잘 한다고 생각해요. 치중하는 것이 달라요. 드라마의 주제가 중국은 가정생활이나 어떤 경찰 쪽을 한다면, 한국은 '주몽'도 있지만 '연애 이야기'가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13. 귀하는 중국에서 불고 있는 '韓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 중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여성들이 한류를 더 따르는 것 같아요. 한국드라마나 음악이나 영화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중국보다 좋았던가 아니면

이상적으로 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해요. 일본에서도 한류가 있잖아요.

사회: 동남아나 멕시코도 있어요.

1: 한류라 하면 우리들이 생활수준에서 더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류를 따르는 것 같아요.

사회: 한국 문화수준이 높아서 배우고 싶어 하나요?

1: 그런 것도 있고 습관상이든가 음식 이라든지 옷 입고 음악이든지 한국에서 들어온 것이 중국보다 좋은 것 같아요.

사회: 2번은 어때요?

2: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TV에서 많이 하니까요. (사회: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같은 것을 하니까 봤던 것을 자꾸 보게 되요. 중학생들이 특히 철이 안들은 아이들이 생각도 없이 따르고 머리를 물들이고 파마하고 공부는 안하고 그런 것만 따르는 것이.

사회 : 그런 것이 안 좋다?

3: 한류는 좋다고 생각해요.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한국이 잘되면 우리도 좋아요.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 우리도 본받으니까 좋고 나쁜 점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4: 한류 한류하지만 주로 연예인 쪽이고 오락적으로 따르는 것이니까 좋나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가능하면 열심히 일하거나 경제나 IT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 14. 귀하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 한국인 이라하면 한테 뭉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산광장’ 앞 대런 호텔위에 TV가 있어요. 2004년 월드컵 할 때 광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응원할 때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중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회: 한국에서는 광장에서 응원하는 것 길거리 응원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없다?

1: 예. 조선족도 같이 참가하고 싶은데 한국인이 다 같이 모여서 민족심이란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고 조선족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민족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조선족도 함께 뭉친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 나쁜 감정은 없어요?

1: 없어요.

사회: 2번은 어때요?

2: 회사 다니면서 과외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생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좋아요. 매일 저녁밥도 주고 아프다 하면 쉬라고 하고 아주 좋았어요.

3: 한국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일하는 면에서는 자기가 하는 만큼은 하는데 부정적인 면이라면 향수병이 너무 해요. (한국 사람들이)중국에서 사는 것은 더 편하게 살면서 한국이 더 좋다고 하면 중국인으로서 그런 말을 들으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사회: 기분이 좋지 않아요?

3: 네.

4: 한국에서 높은 쪽으로 하니까 한국인은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잘 놀고 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계속 한국 것이 좋다고 하니까. 21세기 사람이라면 현지를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인은 음식이 특이하다 보니까 외국에 가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향수병이랄지.

사회: 향수병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15. 귀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요?

1: 중학교까지 조선말을 하니까 인터넷이나 TV에서 문화 역사에 대해 듣고 보고 하는 정도예요.

사회: 한국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구체적인 계획있어요?

1: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학생 생활이 더 그리워요. 한국이나 미국에 가고 싶은데

사회: 2번은 얼마나 배우고 싶은가요?

2: 학교 다닐 때는 (한국 문화가) 조선족 문화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족 문화보다 발전되었고 서양화 되었어요. 처음에 한국인과 접촉했을 때 못 알아들었어요. 외래어도 많고 해서요.

사회: 그래서 배우고 싶은가요? 3번은 한국 사람과 제일 많이 접촉한다고 하는데 한국인과 다른 점이 있어요?

3: 교육과 사회제도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지요.

사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놀랐다 등.

4: 서비스요. 삼성이 잘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하면 바로クレ임하는데 중국은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스스로 내가 먼저 해결해보자 하는데 한국은 서비스센터에クレ임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서비스가 잘 되다 보니까 중국에 비해 생각이 틀려요.

사회: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4: 회사 생활을 하면서 통역을 하다 보니 전통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생활하는 방식과 생각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회사를 고려한다면 배워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인 민족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16. 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학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에 가기를 원하나요?

사회: 혹시 유학이나 취업으로 가고 싶어요?

1: 예. (사회: 한국에 가게 되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별로 한국말을 잘 모르지만 3개월 동안이라도 생활하면 금방 적응될 것 같아요.

사회: 2번은?

2: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민족이니까

사회: 취업으로 가고 싶어요?

2: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어요.

3: 취직으로 가고 싶어요. (사회: 불편하지 않을까요?) 별로.

사회: 4번은?

4: 공부하러 가고 싶어요.

17. 귀하는 본인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중국에서 소수민족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가 대부분이 중국 사람인데 그들과 살다보니까 그들과 틀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선족이라면 조선족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긍지를 가지고 더 잘해야겠냐?

1: 네.

2: 취직할 때 조선말도 하고 중국어도 하니까 장점이 있어요. (사회: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니까 장점이 있다?) 우리는 일본어 중국어 조선어를 하니까 도움이 되요. (웃음)

3: 외국어를 하나 더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과 조선족은 전통적으로 깨끗하고 (사회: 다른 민족보다 조선족이 좋은 인상을 줘요?) 예. (사회: 다른 민족도 좋게 생각해요?) 네.

4: 어릴 때부터 조선족이 어느 민족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무 것이나 다 좋아요. 특히 예의상에서 긍지를 느껴요. 조선족으로 태어나서 정말.

사회: 소수민족으로서 어려움 같은 것을 느낀 적은 없어요? 불이익을 받았던가? 4: 그런 것 없어요.

사회: 좋습니다.

18. 귀하는 현재 한민족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1: 단체는 없어요. 다만 한국 유학생과 교회에 간 적이 있는 것 밖에는 없어요. 단체는 이후에 참가하고 한국 사람과 어울려서 한국말도 늘리고..

2: 접촉한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배구 시합이 있었어요. 한국팀 일본팀과

시합을 해보기는 해요.

- 3: 가입한 적이 없고 마음도 없어요. 같은 민족이라 하지만 중국인이기 때문에 가입한 적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 4: 가입한 적이 없어요. 경험삼아 한번 가보고 싶지만 가입은 별로 없어요.

**19. 귀하는 현재 한국인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인단체와 교류를 하고 싶은지요?**

- 1: 매일 회사에서는 한국 회사라던가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을 일상생활과 언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어 일어 영어도 같이 쓰는 회사라든지 일자리를 하고 싶어요. (사회: 교류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예.
- 2: 한국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친구와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사회: 한국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사회: 구체적으로 교류방법이 있을까요?

- 2: 인터넷을 통해서요.
- 3: 사회: 현재 많이 교류하고 있지요? (웃음)  
회사를 꾸려서 저희들에게 직장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어요.
- 4: 한국인과 접촉하면 억양이 틀리고 대화가 잘되기 위해서 한국부에 들어갔는데 교류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면 문제가 없어요.

**20.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원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생각한 적은 없지만 문화상에서는 중학교부터 펜팔을 한 3년 동안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하고 조선족도 한민족이니까 한국문화들을 교류하면 좋겠어요.
- 2: 생각이 안나요.
- 3: 청소년은 거의 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학교에서 소개를 많이

해주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 4: 저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좋고 전통문화를 조선족에게 잘 알려주는 것과 도서기여나 도서추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 어떤 내용의 책이 필요해요?

- 4: 전문도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촉할 수 있는 책이면 좋겠어요.

## 21.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인적 지원 활용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이곳에 회사를 하든가 출장을 와서 학습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2: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한국을) 경험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대학교에 있을 때 한국에 1년에 2-3명밖에 없었어요.

- 3: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사회: 구체적으로 교환학생이라든지.

- 3: 한국 회사가 많이 들어오면 취직의 범위도 좋고 돈 벌러 간 부모님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 4: 일단은 나라가 틀리지만 한 동포이므로 교류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 연수, 교류 등.

사회 토론 중에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요?

- 4: 중국의 조선족의 이미지는 어떤지? 한국인도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이해하는 교류가 있었으면 해요.

- 3: 똑같은 말이지만 중국에 와서 많이 보고 정확히 선전해 주시고 조선족에 대해 선전을 해주었으면 해요.

- 4: 중국의 이미지는 낙후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사회: 고맙습니다.

## Focus group discussion guideline #5

(연변 훈춘시 고등학생들)

토론시간: 2007. 8. 1 11:00 - 12:15

토론장소: 훈춘시 백회반점(Hotel)

사회: 김익기 교수

- 참석자: 1. 유 00 (여자, 훈춘제2고중, 여고생)  
2. 황 00 (여자, 훈춘제2고중, 여고생)  
3. 로 00 (여자, 훈춘제2고중, 여고생)  
4. 리 00 (여자, 훈춘제2고중, 여고생)

사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하의 가정에서 처음 중국에 온 분은 누구십니까? 또 그 분은 언제 한국의 어디에서 중국의 어디로 왔습니까?

1: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 몰라요.

2. 귀하 부모님의 민족배경은 무엇입니까?

사회: 부모님은 다 조선족이에요?

모두: 네.

3.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 왔고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 부모와 살아요?

3: 네.

4: 엄마는 한국에 아버지는 여기에 계세요.

사회: 4번 학생의 어머니만 한국에 계시네.

4. 귀하는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소(초등)학교를 다녔으며 어떤 중학교를 다녔습니까?

1: 조선족학교요. 전부 중학교도 조선족학교를 다녔어요.

5.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귀하는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1: 부모님은 외국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귀국하시고 얼마 후에 다시 나가실 거예요. 저는 대학을 들어가면 우선 유학 갔다 와서 생물공학으로 전공하려고 해요.

사회: 유학은 어디로 가려고요?

1: 처음에는 한국에 가고 싶고 더 나아가 화란이나 미국에 가려고요. (사회: 세계로 뻗어 나갈려고요?)

사회: 부모님은 일로 외국에 나가요?

1: 예. 무역일로요.

2: 어머니는 세무국에 다니고 아버님은 무직입니다. 대학에서 경제 전공하고 계속 공부하고 경제 쪽으로 나가고 싶어요.

3: 아버지는 개체업(개인업)을 하고 어머니는 한국에 갈 계획이에요. (사회: 아버지도?) 아버지도 한국에 가실 계획이시고 저는 외교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가서 외교방면으로 발전하고 싶어요.

4: 엄마는 한국에 있고 아버지도 곧 가시려고요. (사회: 아버지는 지금 뭐해요?) 아무것도 안하고 이전에는 집 짓는 것을 했어요. 대학은 언어에 관한 것을 배워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사회: 4명이 다 대학에 갈 계획이 있어요?

1-4: 예. 고 3이니까 명년 6월에 시험 쳐서요.

사회: 다니는 학교이름이 뭐예요?

1: 훈춘제2고중이에요.

6. 귀하는 평상시 주로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귀하는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조선족 또는 한족) 친구입니까?

사회: 조선족 학교예요? 학생은 몇 명이에요?

1: 한 학급에 60명씩 10개 학급이고 3학년이니까 한 1800명 돼요.

사회: 조선족 고등학교가 몇 개예요?

1: 고등학교는 여기 1개이에요

사회: 고3 600명 중에 대학에 가려는 학생은 몇%예요?

1: 대개 한 학급이 60명이라면 40명은 가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게 되는 학생은 절반쯤 가요.

사회: 다른 한족학교 보다 높은 비율이에요?

2: 높은 편이에요.

사회: 남자친구 있어요?

2: 없어요(웃음).

사회: 그래요? (웃음)

7. 귀하는 평소에 중국어와 한국어 중에서 어떤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1: 조선말을 주로 써요.

4: 저는 주로 중국어를 써요.

사회: 4번 학생 이외에는 주로 조선말을 쓰나요?

2: 그런데 길림성에 들어가면 평시에 한족 말을 하니까 조선말을 잊어버린다고, 조선말을 쓰지 않으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점수를 깎아요.

사회: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으니깐 평시에 조선말을 써요?

2: 네.

사회: 4번은 중국말을 쓴다는데? 왜죠?

4: 그냥 좋아서요. (사회: 중국말을 더 많이 써요?) 네.

8.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때 조선족과 한족 중에서 어떤 배우자를 원합니까?

사회: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 (웃음)

1: 이왕이면 조선족이 좋아요. (사회: 왜?) 조선족과 풍습이 같고 언어가 통하고 음식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관점이 같으니까요.

2: 제한이 없어요.

3: 무조건 조선족이어야 해요. (사회: 무조건! 왜?) 한족은 여러 가지 방면이 맞지 않아서요.

4: 누구나 한족 조선사람 외국사람 괜찮아요.

사회: 외국 사람이라면 미국사람 등?

4: 예. 신선감을 위해서 미국 사람 같은 외국인과요.

사회: 재미나네요.

9. 귀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1: 우리 모두 부모님과는 조선어를 쓰고 밖에서는 한어를 쓰고 있어요.

10. 귀하는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언제 갔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인상이 어땠는지요? (없었다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 또한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려고 하십니까?

사회: 한국에 간적 있어요? 3번 학생?

3: 한번 갔어요. (사회: 언제?)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동포재단으로 갔어요.  
(사회: 얼마나?) 활동은 7박 8일이고 친척이 있어서 이모랑 보름 있었어요.

사회: 인상이 어땠어요?

3: 문화를 많이 배웠는데. 별로 생소하지 않았어요. 평시에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서요. 사회: 여기 학생들은 한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어요?

1. 한번은 꼭 가고 싶어요. 우리 조선족이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 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사회: 유학가고 싶다고 했지요?) 네.

사회: 2번 학생은?

2: 큰어머니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사회: 큰 어머니가 조선족이에요?

2: 예. 한국 가서 일하고 있어요.

3: 이모랑 많이 있어요. 대학 붙으면 기회가 있으면 오라고 합디다.

4: 엄마 아빠 다 한국에 있어요. 한번쯤 가고 싶어요.

11. 귀하는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는지요? 가끔 한국 뉴스를 듣는지요?  
(듣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듣는지요?

1. 한국 위성방송으로 봐요. (사회: 인터넷해요?) 예.

사회: 2번 학생은?

2. TV로 봐요 (사회: 관심이 있어요?) 예

3. TV로 봐요.

4. 관심이 있는데 위성이 없어요. (사회: 전혀 안 봐요?) 보고 싶은데 볼 수  
가 없어요.

사회: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어요?

4: 공부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인터넷 없어요.

12. 귀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요? (본다면) 얼마나 자주 보는지요? 또 왜 보는지요?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는 어떻게 다른지요?

1: 한국 것을 많이 봐요. 중국 것을 보는 것은 아주 적어요. (사회: 왜요?) 한국 것이 중국 것 보다 깊게 이해 할 수 있어요. 영화대사가 중국 것 보다 깊게 이해가 되고 화면도 깨끗하고 질도 좋아서. 다만 중국은 발전하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사회: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2: ‘가을 동화’, ‘Love story in Harvard’, ‘Full house’ 등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은 다 접속해서 봐요.

사회: 다른 학생과 같아요? 4번 학생은 다르다고 했는데.

4: 저는 주로 중국 것을 봐요. 재미있는 것은 한국 것인데 접속할 기회가 없어서 주로 중국 것을 봐요.

사회: 재미있는 것은 한국 것을 좋아하는 데 접속할 기회가 없어서?

4: 드라마도 중국 것을 봐요. 또 중국어를 좋아해서요.

13. 귀하는 중국에서 불고 있는 ‘韓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1: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중국에 들어가는데 연예계에서 본다면 중국의 연예계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따라 배우고 무조건 배우고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회: 한류가 어느 정도예요?

1: 여기에 한족 애들 본다면 옷, 영화, 노래도 좋아하고... 이것은 조선족을 좋아하는 현상이지만 너무 따라하다 보면 안 좋아요. 인터넷을 보면 한류에 관한 것은 큰 글자로 나오고 한족 애들이 스타들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사회: 말을 잘하네요. 2번 학생은요?

2: 개인성을 잃지 않고 문화와 언어도 수준을 높이는 게 좋은데 너무 따르면 개성을 잃는 것이지요.

사회: 한류가 부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2: 예.

3: 중국에 비해 나은 면은 한국 문화가 선진적이니까 조선족 뿐 만 아니라 한족도 많이 보고 가요 뿐 만 아니고 음식도 유행되고 있어서 중국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4: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미 다 말했어요.

사회: 그래도 자기 말로 말해 봐요.

4: 따라 배우되 맹목적이 아니면 좋겠어요.

#### 14. 귀하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회: 한국 사람들과 접촉해요?

1: 조선족 이모 세 사람이 한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셋이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좋은 점은 (한국 사람은) 친절해요. 중국 사람은 음성이 높는데 한국 사람은 살랑 말해서 듣기 좋아요. 나쁜 점은 남자가 여자보다 하늘이다를 따져요. 중국은 부부사이가 평등하고 오히려 여자가 더 높는데 한국에서는 남자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면에서 이모가 불쌍해요.

사회: 이모가 한국에 살아요?

1: 예.

3: 큰어머니도 한국 사람과 결혼했는데 돈을 거슬러 오면 이런 거스름돈은 자신이 가지라면서 가지라 한 대요.

사회: 한국 사람이 친절하다고. 한국사람 좋아요?

2: 말씨도 부드럽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동어매지 않고 속박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예요.

3: 한국에 갔다 왔는데 사귀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데 이메일로 수신을 주고받아요. 그 친구들은 개방적이고 생활면에서 저와 달라요.

사회: 한국학생과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4: 내년 올림픽에 온다고 해요.

사회: 4번 학생은 접촉할 기회가 있었어요?

4: 아는 사모님이 잘 해주고 영향 받아서 사상도 개방되고 나에 대한 교육방법도. (웃음) 여하튼 좋아요.

사회: 한국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1: 한국하면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깨끗하다. 흰색. 우리 보다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사람 앞에서 위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2: 63빌딩이 떠오르고 한국사람 중 중국에 오지 않은 사람은 편견이 많아요. 중국에 유람와서 편견을 버렸으면 해요.

3: 중국의 좋은 면보다는 낙후된 것을 많이 보여주고 초보적인 자주국가인 점도 있지만 발전된 것도 많이 보여주고 중국이라면 열등하다고 하는 것이 걱정돼요.

4: 한국과 중국이 같은데. 중국의 나쁜 면만 보여주니까.

사회: 어떻게 알아요? 한국에 안 가봤는데?

4: 보도도 보고 친구들이 보고 같이 토론하기도 하고.

사회: 지금은 발전된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보도 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15. 귀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요?

1: 예절 면에서는 제일 으뜸이고 음식을 보면 한국드라마에서 본 부엌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김치를 좋아해요.

사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1: 예.

2: 다원화로 발전하고 있고 아는 것은 잡지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3: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와 예절에 대해 체험도 해보고요.

사회: 한국문화를 잘 모르고 있어요? 4번 학생은?

4: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16. 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학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한국에 가기를 원하나요?

사회: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 1: 접촉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요.
- 2: 접촉하고 친구도 사귀어 보고 싶어요.
- 3: 연락하고 있으니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사회: 혹시 한국가면 불편할거라고 생각해요?

- 1: 중국 사람을 낮게 보고 환경에 적응할 때 어렵게 생각하고 언어는 통하지만 습관 등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이모가 말했는데 이모가 깨끗한데 시어머니가 그릇도 다시 닦고 옷도 다시 빨아요. 일하는데 깐깐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가게 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그 과정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2: 사는 생활비가 비싸고 방값이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고 같은 조선어이지만 언어상으로 좀 장애가 있고 한국에서는 언어에서 영어가 많이 있으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예요.
- 3: 먹을 것이 입맛이 맞고 좋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 조선족에 대해 기사(무시)한 생각이 있고 지금 한국이 연변 조선족하고 북조선의 언어와 혼란을 하고 있는 듯해요. 우리말이 아니고 북조선 말을 우리말이라고 하던데요.

사회: 다른가? 비슷할 것 같은데. 온 지역에 따라 쓰는 말이 다를 수 있어요. 북쪽에서 온 사람은 북쪽의 사투리를 쓰고 남쪽에서 오면 남쪽의 사투리를 쓰고. 달라요?

- 3: 달라요. ‘양국화’(‘19살 순정’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주인공)의 말이 연변 말이 아니예요. 연변에서 자전거를 못 탄다고 하는데 작가가 잘 모르는 거고 내용은 좋았지만 세부적인 것은 틀려요.

사회: 세부적으로 틀린 것이 있다? 그거 재미있네요. 4번 학생은 어때요?

- 4: 나는 자존심이 강해서 무시하면 오해 같은 것을 못 참아서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17. 귀하는 본인이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중국에서 소수민족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자랑스럽습니다. 백의민족이고 예로부터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자신이 후손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소수민족이지만 한족과 사귄 때 자랑스럽고 한국이 발전해서 같은 민족이지만 따라가고 전도가 있고 언어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소수민족가운데서 조선족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한국이 발전했고 우리와 같은 후손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2: 매우 자랑스러워요. 두 가지 언어를 하니까 주변에서 받들어 주어서 좋아요. 조선족이 우세하다고 많이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우대도 받고 조선족은 자랑스러워요.

3: 좋다고 생각하고 외교 쪽으로 가고 싶어요. 한국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기뻐고 자부심이 있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조선민족이 발전하면 한국이 발전하니까요. 외국에 나가면 조선족을 한국인이라 생각해서 좋아요. 한국과 북한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그것이 좀 안타까워요.

사회: 말을 참 잘 하네요.

4: 매우 매우 자랑스러워요. 생활습관, 먹는 것, 옷 입는 것 스타일을 보고 한족과 조선족이 구분되고 한국과 닮은 것 같아 마음에 들고 음식도 맛있고 예절도 있고 깨끗하고 성실해요. 한어는 잘하는데 조선말을 잘 못해요.

사회: 조선말 잘해요.

18. 귀하는 현재 한민족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1-4: 없어요.

19. 귀하는 현재 한국인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한국인 또는 한국인단체와 교류를 하고 싶은지요?

- 1: 한국에 가서 접촉하고 교류를 계속하면 서로 발전하고 싶어요.
- 2: 경제방면에서 우선 한국이 발전하고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해서 경제를 높이면 좋겠어요.
- 3: 한국은 경제가 발전해서 남방 쪽에 한국기업이 많이 들어 왔어요.  
사회: 한국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3: 한국은 땅이 좁고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많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서로 도와주면서.
- 4: 언어에 관해서 하니까 조선족을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한국어가 아름다운 언어인 것을 알려주고 싶고 전 세계 사람에게 조선족 언어를 기본적인 언어로 만들고 싶어요.

20.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원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지금 경제방면에서 이곳은 한국과 차이가 대단히 나니까 돈 때문에 걱정해요. 정신상에서는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부족한 것이 경제적인 것이니까 장학금이나 생활이 가난한 학생에게 보조금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더 잘하라는 지지장학금도 주었으면 좋겠어요.
- 2: 부모들이 엄격하니까 학생들이 자립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사회: 어떻게?) 한국의 교수들이 와서 말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선전도 해주면 좋겠어요.
- 3: 경제상에서 어렵다고 생각해요. 연변은 아직도 중심을 받지 못하니까. 저변에 속초에서 와서 참관하고 장학금을 주고 갔어요. 로터리 클럽도 와서 도와 준 것도 감사하고요. 중국과 한국 학교와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4: 발전하지 못해서 될 수 있으면 연변과 한국의 인재끼리 결합해서 잘 발전

했으면 좋겠어요. 연변에 있는 부모가 한국 가서 농촌이 어려워요. 특히, 농촌에서는 한국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조선족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조혈기능으로 스스로 별 수 있어 부해 질 수 있도록.

사회: 한국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2: 중국 사람이 한국에 많이 가면 한국 사람의 직장이 적어지니까요.

사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 21. 귀하는 한국정부와 단체가 조선족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인적 지원 활용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조선족의 학생이 중국 문화를 많이 선전하고 경제방면은 중국과 한국에 이야기 하고 학술방면에서도 좋은 점을 교류하면 좋겠어요.

1: 연변의 인재를 등용할 때 한국을 위해 봉사하기보다 좋은 점을 중국발전에 기여하도록 한국이 중국을 이해하여 기술면 등을 더 배양시켜주면 좋겠어요.

사회: 배양시키는 방법은?

1: 중국에 오던지 한국에 가던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가는 것이 좋고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3: 중국 사람과 조선족과 경쟁할 때 중국에서는 중국인이 득세하지만 같이 동등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한족보다 조선학생을 먼저 등용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상황이라면.

4: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회: 중국어로 말해 봐요. 한국과 교류를 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얘가지요? (웃음) 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어서 고마워요.



---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자문진 ◆

(가나다 순)

김성호 연변대학교 교수  
박정희 북경어언문화대학 교수  
우영란 연태대학교 교수  
윤경애 대련외대 교수

### ◆ 연구보조원 ◆

안정현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졸업

---



##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k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태기 · 임영연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전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교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규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마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명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3-3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11-6(93330)